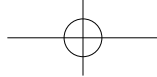


공개질의서-“여호와의 증인이란?”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임원들과 미국본부 임원들께.

알고 싶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공개질의서-여호와와 증인이란?

초판발행 | 2014년 11월 30일

지은이 | 유인술

발행인 | 박찬우

편집인 | 우 현

펴낸곳 | 파랑새미디어

등록번호 | 제313-2006-000085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7-1 서교프라자 318

전화 | 02-333-8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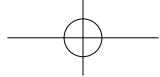
팩스 | 02-333-8326

메일 | thebbm@korea.com

©유인술 Printed in Seoul, KOREA

가격 : 15,000원 - - - - - 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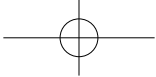
ISBN : 979-11-5721-009-1 03810 - - - - - 미정



속표지 작업중

공개질의서
여호와의 증인이란?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임원들과 미국본부 임원들께
알고 싶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머릿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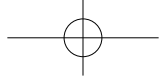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창조주 하느님께도 묻고 싶습니다.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죄가 됩니까?

나는 배움에 한이 맺힌 사람이다. 1950년대 6.25시대에 국민학교(현 초등학교)를 5번이나 퇴학당하고 중학교도 5곳을 전전하다가 마지막은 마산에서 졸업은 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고학으로 공부했다.

그래서 자식들은 그 어떤 재테크보다 우선적으로 고등교육(서울 K대, 유학)을 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40년 넘게 여호와의 증인 생활에서 의문점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고등교육(4년제 대학, 대학원 유학)을 받는 것에 매우 비판적이고 심지어 사탄 마귀의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말로 마음 놓고 교육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점에 대해 의아함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한 예로서 막내를 유학 보냈다고 장로 직책에서 해임시키겠다고 까지 하였다. 그래서 사임서를 제출했으며 결과적으로 ‘증인’ 조직에서 탈퇴하게 되었다.



증인 조직의 가르침도 성서에 근거하여 부도덕을 멀리하고 정직하게 살도록 가르치고 있으며, 이것은 정말 잘하는 것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증인 조직의 모든 지시나 지침과 교훈들이 과연 하나님의 지시이며 계시인가 의문을 많이 품어온 것도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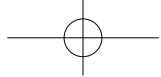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고등교육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식하고 가난해서 증인 조직만을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또 증인 신도들이 집집마다 호별방문하는 야외봉사는 책임의 시간을 하기 위한 형식적 방법이 되고 있다. 노약자들까지도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통을 참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과연 사랑의 하느님이 원하는 방법일까 의심을 하게 된다.

한 예로서 병약한 자매가 세탁소 재방 봉사[#]에서 사망하셨다. 슬픔보다 하느님 봉사를 하다가 사망한 것은 낙원을 갈 수 있는 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고,

약 100년 간 증인지도자(통치체)들의 예언이 빗나가 거짓말이 되었어도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밝아지는 햇빛처럼 밝혀지는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계속 거짓을 숨기며 아마겟돈(세상종말론)이 임박했다고 신도들을 속이는 태도에 참고 볼 수가 없었고, 북한 주민들이 속으면서도 아무런 비판도 못하고 북한 백두혈통을 찬양하고 광분하는 것처럼, 그와 비슷한 실상을 보면서 너무 불쌍한 마음과 연민의 정으로서 증인 조직에서 개혁하고 해방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이 책을 발행

[#] “재방 봉사”란, 증인 전도인이 전도 활동을 하다가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다시 방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고자 한다.

전 세계적으로 ‘증인’ 조직 지도자들에게 공개질의를하고자 한다.

“알고 싶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라는 주제로 처음에는 3대 일간지에 전면 광고로 공개 질의를 하려고 했으나 책으로 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 결정했다.

이 책이 발행되어 구독하거나 권유만 해도 조직을 배교하는 배교자로 몰아 불매 금지할 것도 이미 알고 있다. 심지어 “배교자”와는 부부도 친구도 일가친척도 교제나 식사를 함께 하는 것도 금하는 무서운 조직임을 잘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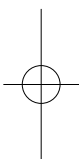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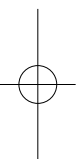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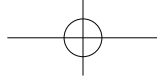
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와 증인만이 “유일한 하느님의 통로”라고 말하는 증인지도자들(통치체)에게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성서적 근거의 대답을 듣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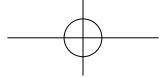
나 자신도 조직 안에 있을 때는 가두리 양식장의 물고기가 되어서 주인(증인 지도자들)이 주는 사료만 먹다가, 우연히 자식들(병역거부로 감옥살이했음)이 건네준 ‘레이몬드 프랜즈’가 쓴 「양심의 위기」 책자의 일부분인 팜플렛을 읽어보고 너무나 놀랐다.

내가 먹고 있는 사료에 항생제도 독약도 들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책이 출판되어 많은 사람에게 애독된다면 ‘레이몬드 프랜즈’(사망)에게 영광을 모두 돌려 드리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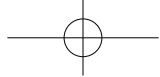
“글 맺음”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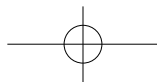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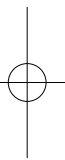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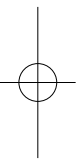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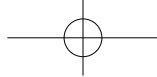
1. 머리말
2.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임원들과 미국 협회 임원들께
3. 질문[1] “한 세대”에 대하여
4. 질문[2] 「생명」 책에서 1975년에 인간 존재 여섯째 해가 끝
날 것이라고 왜 발표 했는가?
5. 질문[3] 「깨어라」 잡지 발행 목적란에 1914년 숫자를 왜 삭
제 했는가에 대해서
6. 질문[4] 기다림의 우울증, 살아서 아마겟돈을 볼 것을 기대한
한 세대는 모두가 사망하지 않았는가?
7. 질문[5] 현금도 무기명으로 한다면 봉사보고도 무기명으로 하
는 것이 성서적이 아닌가?
8. 질문[6] 고등교육 문제에 대해서
9. 질문[7] 종교적 병역 거부인가? 개인의 양심적 병역거부인가?
10. 질문[8] UN NGO 가입에 대하여
11. 질문[9] 수혈 거부와 변경에 대하여
12. 질문[10] 장로와 봉사의 종 임명이 성령의 임명인가?
여호와의 증인만이 유일하게 구원 받는다는 구원론에
대하여
13. 질문[11] 영적인 구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물질적 구원 사업
도 중요하지 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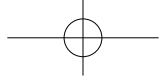


14. 질문[12] 표현의 자유와 제명 처분에 대해서
15. 질문[13] 생일파티, 여자 바지웃, 신체 단련운동, ‘형제’ 호칭,
파수대 연구, 투표권에 대하여
16. 질문[14] “통치체”라는 단어 사용이 성서적인가?
17. 질문[15] 마태 24:44,45,47절에 나오는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에 대하여
18. 인용된 출판물 약자표기와 원제목 표시
19. PS(추신)
20. 연락받을 저자의 전자우편 주소 wishreform@gmail.com

★ 이 책에 사용된 성구는 별다른 표시가 없는 한 2014년에 발행
된 「신세계역」 성경 개정판에서 인용했습니다.

목차 작업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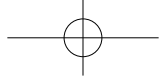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제1부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임원과 미국 협회 임원에게

●
알고 싶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성서 교리에 관한 질문]
●



● 알고 싶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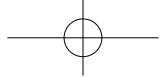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임원과 미국 협회 임원에게

여호와의 증인 (위치타위성서책자협회) 종교 조직이 100년이 넘게 세계적으로 정치적 중립 하에 성서 교육사업 (마태 24:14, 28:19,20)에 이바지한 바는 크다. 사이비 종교로 지목되어 언론을 통해서 그 순기능이 공개되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증인 성원들의 정직성, 준법정신 (로마 13:1) 부도덕 (고린도 첫째 6:9,10)을 멀리하는 정신은 칭찬 받아야 한다.

왕국회관(교회) 건축을 RBC공법[#]으로 3일 만에 완공하는 연합된 정신도 대단한 것이다. 5만 이상의 군중모임이 끝난 장소에서도 청소를 추가로 할 것이 없을 정도로 청결함을 유지하는 질서 의식은 분명히 본받아야 할 것이다.

성서 교리에서도, 하느님께서는 아버지와 예수와 성령으로 이루어진 삼위일체가 아니라는 것과(요한14:28 마가 13:32 사도 7:55,56 요한 10:36 누가 1:32,35), 인간이 죽은 이후에 영혼불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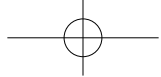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이 아니라는 것도 증인의 주장이 성서적이다.(창세기 3:19 에스겔 18:4 전도서 9:5.6.10 창세기 2:7)

그러나 100년이 넘게,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뇌되고 관념화된 교육과, 표현의 자유가 없는 종교적 순종 정신에서 오는 성원들의 말로 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어야 할 때가 왔음에 하기 (下記) 질문들에 대답해 주기를 탄원하는 바이다.

하느님과 예수의 진정한 사랑의 정신을 나타내야 할 시대성에서 볼 때, 발전을 위한 개혁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15가지 질문과 부가 질문을 하게 되었으므로 성서적인 명확한 대답과 여호와와 증인만이 유일한 하느님의 통로임도 하느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함께 밝혀 주기 바란다.

여기서 RBC란 “지역 건축 위원회”의 약자로서, 여호와와 증인들이 숭배를 위해 모이는 시설물들인 ‘왕국회관’이나 ‘순회대회장’ 등을 더 많이 더 신속하게 짓기 위해 각 나라별로 조직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질문 [1]

“한 세대”에 대하여...

여호와의 증인 교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중심교리 중 하나인 아마 젓돈(계시 16:16)에 대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마태 24:34) 온다”고 약 100년간 예언해 왔는데 (1914, 1925, 1975년) 한 세대의 의미는 계속 몇 번이나 변경 되어 왔다.(파수대 1995년 11월 1일호; 파수대 2008년 2월 15일호; 2010년 6월 15일호 등)[#]

변경에 대한 해명으로는, 점진적으로 밝아지는 햇빛과 같다고 잠언 4:18을 인용 하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 교리나 진리가 점점 밝아질 것이라는 예언이 아니다. 성구의 전후 문맥을 볼 때 그 내용은, 의인과 악한 자들의 앞날을 예언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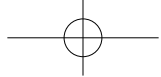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잠언 4:16~19.

16 그들은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고 누군가를 쓰러뜨리지 않으면 잠을 빼앗긴다.

17 그들은 악의 빵을 먹으며 폭력의 포도주를 마신다.

18 그러나 의로운 자의 길은 아침의 밝은 빛과도 같으니, 한낮에 이르기까지 점점 밝아진다.

19 악한자의 길은 어둠과도 같으니, 그들은 지기들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모른다.



이제는 1914년 적은무리 세대와 큰 환란을 맞이할 적은무리 세대가 겹쳐진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아마겟돈이 온다고 말함으로 또다시 한 세대의 길이가 매우 긴 기간으로 길어질 수 있게 되었다. (파수대 2010년 6월 15일호 5면, 2014년 1월 15일호 30~31면 참조)

수십 년 동안 마태24:34에 관한 파수대의 설명은, 1914년을 목격한 세대가 죽기 전에 세상의 종말에 관한 모든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대”가 죽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은 세상 끝날까지 남아있는 짧은 기간을 설명하는 좋은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 11월 1일호 파수대에서 “이 세대”에 관한 교리적 설명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이 변경된 기사들에서는 “이 세대”의 의미가 1세기에는 “동시대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세대”에 적용되며, 오늘날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고 뒤틀어진 세대”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1914년 이후의 부패된 일반 대중으로 구성된 세대를 가리키는 말로 설명함으로써 짧은 기간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고 마지막 날의 끝인 아마겟돈 시기는 무한정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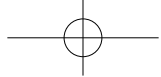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그런데, 2008년에 “이 세대” 교리는 또 한번 변경되었는데, 파수대 2008년 2월 15일호를 통해서 “이 세대”의 의미를 긍정적인 의미로 변경하여 일반 대중과 일반 증인들을 “이 세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 기사에서는, “이 세대”란 성령으로 기름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009년 10월에 워치타워 연례총회에서는 또 한번 “이 세대”에 관한 변경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통치체 성원 ‘존 바’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두 번이나 반복하였다고 합니다. “예수의 말씀은, 1914년에 표징이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할 때 지켜본 기름부음 받은 자들의 생애와, 큰 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지켜볼 기름부음 받은 자들의 생애가 겹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겹 세대론” 설명은 파수대 2010년 6월 15일호를 통해 인쇄되었고, 2008년 2월 15일호 2014년 1월 15일호 등을 통해 거듭 거듭 재확인되었습니다.



왜?

적은우리가 계속 교체되고 있으며, 연감을 보면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8,565명→약 9,000명→약 13,000명)^{##}

그날은 분명히 아들도,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지 않았는가? (마태 24:36)

타종교에 적용하는 마태 7장 15—23절(거짓 예언자들을 주의 ……) 말씀이 적반하장이 될까봐 걱정되지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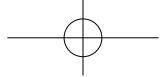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하느님의 때의 계산 및 뜻과는 다르게 인간적인 때의 계산으로 자주 변경한다면 여호와 하느님께서 얼마나 불쾌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염려해 보지 않았는가?

파수대 2013년 7월 15일호 첫 번째 연구기사에서 왜 또 아마겟돈의 기다림의 기간을 변경했는가?

국제연합이 그리스도교국^{###}과 거짓종교의 나머지 부분을 공격할 때 큰 환난이 시작되며 길이는 알 수없는 중간기간을 지나서 아마겟돈이 온다고 변경한 이유에 대해 솔직한 대답을 듣고자 한다.

.....
^{##} “표상물 취한 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 행사에서 빵과 포도주를 취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935년에 ‘표상물 취한 자’ 숫자는 5만 2,465명이었습니다. 1965년에는 1,550명으로 감소하였고, 1985년에 9,051명, 1986년에 8,927명이 되었습니다. 1986년부터 2006년까지 20년간 8천명 대가 계속 유지되었지만, 2007년 기념식에서 9,105명이 되었고 2009년에 만 명을 돌파하여 2013년에는 13,204명이 되었습니다.

^{###} 증인들이 사용하는 단어인 “그리스도교국”이란 그리스도교(기독교)가 유포되어 있는 세계 부분 즉 그러한 국가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종교들(로마가톨릭, 개신교, 정교회, 성공회 등)을 하나로 묶어서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아마겟돈이 올 징조를 강조하면서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대재난들을 언급하였고, “지평선 상에” · “문턱에” · “마지막 직선
코스” 등의 말을 사용하면서 끝이 임박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들도 이제는 크게 자극을 주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파1991년 4/1 11면 13항 - “아마겟돈이 지평선상에 어렴풋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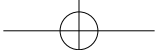
파1992년 4/1 13면 18항 - “오늘날 여호와를 숭배하는 수백만 명 역시 약속의 땅인
신세계의 문턱에 있습니다.”

파1992년 4/1 14면 23항 - “바로 지평선상에 하나님의 참 자유의 신세계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파1993년 11/1 23면 24항 - “우리는 생명을 위한 경주의 마지막 직선 코스에
있습니다.”

파2004년 10/15 17면 12항 - “우리 역시 약속된 지상 낙원의 문턱에 있습니다.”

파2011년 9/15 22면 8항 - “결승선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끝에 거의 다다른
이때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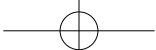


질문 [2]

「영원한 생명」 책에서 1975년에 인간 존재 여섯째 해가 끝날 것이라고 왜 발표했는가?

「영원한 생명」 책(P. 35)에서 1975년이 인간 존재 여섯째 1000년 날의 끝(초가을)이고 일곱째 1000년 통치가 끝나는 해는 2975년(초가을)이라고 분명히 공식적으로 인쇄물로 발표를 했는데 그 끝날은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고 말았다.

5952	「파수대」(12월 15일, 영문), ‘아마겔돈’에서 있을 하나님의 복수의 한가지 이 유가 유혈임을 선언—창세 9:3, 4
5956	(7월 26일) “여호와와 증인”이란 이름 채택
5960	‘와싱턴(디. 씨.)’ 대회와 「파수대」(영문)에서 계시록 7:9-17의 “큰 무리” 의 신분이 밝혀짐
5962	‘죽 카운티’ 병원에 최초의 대규모 혈액 은행 설립
5963	여호와와 그리스도인 증인의 신권 조직 완성
5964	(9월) 2차 대전 시작, 국제 연맹 무활동 상태에 들어감
5970	「파수대」(7월 1일, 영문), 수혈을 폭로—시 16:4 (9월) 2차 대전 끝남; (10월) 국제 연합 기구가 비준됨
5982	(10월) ‘러시아’ 최초의 인공 위성 발사; 세계로 두려워하게 함
5987	(10월 11일) 교황 ‘요안’ 23세, 2차 ‘바티칸’ 공의회 개최
5988	교황 ‘요안’ 23세, 공의회에서 Pacem in Terris(지상의 평화)라는 회칙 발 표, 그 안에서 그는 국제 연합 기구를 찬양. 6월 3일 수혈에도 불구하고 사망
5989	(5월) “정찰위성” 및 우주 비행사들, 세계 긴장을 증가시킴
5990	(10월 4일) 교황 ‘바오로’ 6세, ‘뉴욕’시 국제 연합 분부 방문, 국제 연합 보증, 미국 대통령과 회담, 12월 8일에 그가 제 2차 ‘바티칸’공의회를 폐회
5991	“북방 왕”과 “남방 왕” 사이에 3차 대전의 위협 증대(다니엘 11:5-7, 40) 여호와와 그리스도인 증인들의 조직 계속 확장, 6월 22일 ‘캐나다 온타리 오’주 ‘터론토’에서 국제적 일련의 “하나님의 해방의 아들들” 지역 대회 가 시작될 것이 계획됨. 1966년 6월 25일 토요일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 가운데서의 영원한 생명」(영문)책 발행됨
6000	인간 존재의 여섯째 1,000년 날의 끝(초가을)
7000	인간 존재의 일곱째 1,000년 날의 끝(초가을)



인류역사 마지막 날이 1975년 초가을 (10월 4일경)로 끝을 찍고 이후의 역사기록은 없다.

이것은 2012년 12월 21일이 마야 달력 끝날로 찍어서 세상 종말을 예언한 것과 동일하지 않는가?

「파수대」를 발행해온 증인 역사 약 135년 간(1879년~2014년) 예측·예언을 수없이 했지만 단 한 가지도 성취된 것이 없지 않는가?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께서도 ‘그리스어 성경’(신약성경) 4복음서를 통해서 세상종말을 예언하셨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아직 종말 부분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불안정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정확하게 시기를 예언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24: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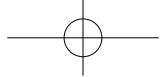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면 잘못 예언하였음을 시인하거나 사과하거나 해명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아직도 한마디의 책임 있는 대답이 없었다. 지금이라도 성서적으로 명확한 대답을 듣고자 한다.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을 알고 있는가?

신명기 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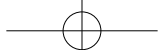
20 어떤 예언자가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주제님께 내 이



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예언자는 죽어야 한다.

21 그런데 너는 마음속으로 “여호와께서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22 그 예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데도 그 말이 성취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호와가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다. 그 예언자가 주재님께 말한 것이다. 너는 그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질문 [3]

「깨어라」 잡지 발행 목적란에 1914년 숫자를 왜 삭제 했는가에 대해서

“이방인의 때”(2520년)가 끝나는 1914년은, 마지막 날이 시작되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라고 약 100년간 강조해 왔으며, 또 한 세대가 시작되는 해로 계산해서 의미심장한 해로 모든 출판물에서 가르쳐 왔는데 왜 이유와 설명도 없이 갑자기 1914라는 숫자를 삭제해 버렸는가?

이 간행물이 발행되는 이유 본지는 가족 전체에게 계몽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타개책을 제시합니다. 이 간행물은 뉴스를 전하며,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종교 및 과학 기사를 게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면을 파헤쳐서 현대 사건 배우의 진정한 의미를 지적해 줍니다. 그러면서도 이 간행물은 항상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며 특정 인종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본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기원 1914년부터 일어난 사건들을 보아 온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평화롭고 안전한 신세계를 실현시켜 주시겠다는 창조주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지식을 원하십니까? 5면에 있는 해당 주소의 위치 타워 협회로 편지하시기 바랍니다.
「깨어라」지의 발행은 자진적인 기부로 유지되는 세계적 성서 교육 활동의 일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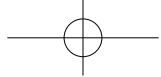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본지에 사용된 성서 번역판은 성구 옆에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그리스어 성경의 경우는 「그리스도인 그리스어 성경 신세계역」이며 히브리어 성경의 경우는 「성경 전서, 개역 한글판」이다.

발행소	100-452 서울 특별시 중구 신당동 405-15	창간 연월일	1952년 9월 1일
등록번호 및 연월일	다 332 1964년 1월 1일	발행 겸 편집인	위치 타워 聖書 冊子 協會 朴 鍾 一
국제판 통권 제76권 21호; 한국문판 통권 제44권 21호		인쇄인	위치 타워 聖書 冊子 協會 全 榮 純

Printed in Korea KOREAN EDITION

4 파수대 (별) - 1995년 11월 1일

여호와와의 증인의 교리 중 가장 중요한 1914년이라면 1995년(11월15일호) 깨어라 발행 목적란에서 왜 그 숫자를 삭제해 버렸는가?
그것은 측량의 기점(출발점)을 없애버린 것과 같지 않는가? 이전에는 1914년은 신세계를 실현시켜 주시겠다는 창조주의 약속과 관



계있는 해라고 강조했는데 삭제한 것은 약속한 창조주 여호와 하느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린 결과가 아닌가?

1914년에 대해서 그 이전 약 30년간 대 예언을 한 것은 “지상 왕국들의 멸망” 즉 “세상 끝”이 올 것이라고 했으나, 1914년에 한 국가도 멸망이 없었다.

예언에 포함 되지는 않았지만 세계 1차 대전이 있었다.

1914년에 세상 정부들의 종말이 없자, 마지막 날의 시작이라는 말로 바꾼 것이 아닌가?

확인 참조 책자들 : 「때는 가까웠다」 라고도 알려진 「천년기 새벽」 책 제2권, 「종말을 고한 비밀」 책[#]

[#] 「천년기 새벽」 책과 「종말을 고한 비밀」 책은 각각 1889년과 1917년에 발행된 책이다. 따라서 최근의 한국어 출판물에서 어렵פות한 근거를 찾아보려면 「천년왕국」 책 175면 7항과 「선포자」 책 135면 하단 및 같은 책 632면 두 번째 각주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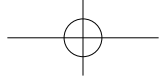
질문 [4]

기다림의 우울증 – 살아서 아마겟돈을 볼 것을
기대한 ‘한 세대’는 모두가 사망하지 않았는가?

한 세대의 생애가 지나가기 전에 온다는 아마겟돈이 안 오므로 많은 성원들이 기다림의 우울증(잠언 13:12)이 많아지고 있지 않는가? 「파수대」 (2006년 7월 15일호 P.22) 에서 의심을 말끔히 해결해 줄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아직도 왜 말하지 않는가? 1918~1922년 사이에 공개강연 주제가 “지금 살아 있는 수백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들 중 지금 살아 있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위의 사진 이미지는 영문판 파수대 1984년 5월 15일호이며, 한국어판은 1984년 9월 1일호에 같은 내용이 실렸습니다. 한국어 표지 기사 제목은 “1914 - 지나가지 않을 세대”였습니다. 파수대 표지와 명단을 합친 이미지는 인터넷 사이트 jwfacts.com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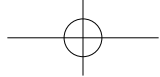


「파수대」 1984년(5월 15일호 영문)표지에서 1914년 세대 16명의 사진으로 본 이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위의 표 9번에 열거된 “소파이유츠니윗츠”도 2008년에 사망하지 않았는가?

이제 ‘한 세대’의 개념을 계속 변경할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한 세대의 의미를 모른다고 인정하든가 아니면 “세대” 개념에 대해 단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도 중단해야 하지 않겠는가?

‘한 세대’의 관념의 포로에서 해방되고 깊은 우물 안에서 나오는 데는 짧으면 3년, 보통 5년, 길게는 7년 이상이 지나서야 진실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고 한다.

모든 성원들의 기다리는 우울한 생활에서 벗어나 “가족생활” 계획을 정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질문 [5]

헌금도 무기명으로 한다면 봉사 보고도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성서적이 아닌가?

성서 마태복음 6:3,4에 나오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서 원칙에 의해서 모든 헌금을 오늘날까지 무기명으로 하고 있다면 야외봉사(전도) 보고도 성서원칙에 따라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성서적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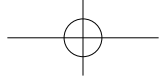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매달 쪽지에 실명으로 보고를 해야 되므로 하느님만이 알아야 할 온 영혼을 다한 봉사 보고[#]를 인간이 먼저 보고 시간이 적어서 걱정하게 한다면 누구에게 드리는 제사인가?

또 책임의 시간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지 않는가? 아파트 경비원들과의 충돌사고, 불법 주거침입죄로 법적인 문제도 야기되고 있지 않는가?

책임완수 시간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거짓과 과대보고도 있을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거짓말 보고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받겠는가?

.....

“봉사 보고”란 모든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부과된 의무로서, 매달 야외에서 수행한 전도 활동에 대해 시간 등의 내용을 적어서 회중에 제출하고 여호와의 증인 협회로 전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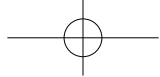
야외봉사를 경험해 보면 집주인들이 너무나 듣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형식적 봉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고 있는가?

여리고 성이 7번째 돌 때 무너진 것처럼 안 들어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하는 모습은 모두가 양심적으로 공감하는 문제점이 아닌가? (고린도 후서 9:7)

성원들이 가족을 위해서는 휴일 한번 제대로 즐겁게 보내는 마음의 여유도 없이 오로지 야외 봉사 시간이라는 책임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호와의 증인에게 제일 무거운 마음의 짐은 모두가 봉사시간 문제라고 생각한다. 온 영혼을 다한 정성의 봉사시간 보고를, 인간들은 모르도록 무기명으로 하느님께 바치는 것이 성서적이 아닌가?

인간조직을 위해서 활동과 봉사를 강요하는 것을 성서와 하느님을 빙자해서 그분의 ‘가르침’, ‘지시’, ‘점점 밝아지는 진리’라고 교육하는 것은 완전한 위선이고 거짓이 아닌가?

하느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는가?



질문 [6]

“고등교육” 문제에 대해서

모든 교육문제는 부모의 책임으로써 실력과 환경이 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요 의무라고 생각한다.

자녀를 고등교육기관인 4년제 대학이나 대학원에 혹은 유학을 보낸 장로에게 왜 사임을 권유하고 해임까지 시키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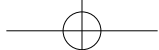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전도인과는 교제도 멀리하라고 해서 지부 봉사부에 찾아가 증인 생활을 그만둔 사건도 있었다.

성서교육도 중요하지만 세상교육도 받아야 한다. 먹고 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필요한 것이지 봉사사업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또한 교육은 개인적 삶의 질과 행복권 추구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이 문제를 종교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세상 고등 교육을 받는 자가 많아지면 조직의 비판 세력이 많아지므로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염려하는 것은 아닌가?

「파수대」(2006년 4월 15일 P.28)에서도 성원이 줄어드는 국가일수록 고등교육 문제가 원인이라고 했다. 반대로 미국협회 본부에서는 필요한 인재(법조계) 양성을 위해서 자금을 지원해서 미국의 일류대 콜롬비아 대학 등에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증인 가족들의 고등교육을 반대하는 목적은 조직의 보호와 보존과 확장에 악 영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하게 된다. 고등교육 문제에 대해서 왜 반대 하는지 성서적인 대답을 듣고자 한다. 무식하고 가난해야 순종을 잘하기 때문은 아닌가?



질문 [7]

종교적 병역거부인가? 양심적 병역거부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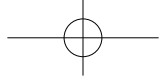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파수대」(2008년 12월 15일호 25면)를 보면 한국지부 임원의 경험담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는 누구의 가르침이나 지시가 아니라 개인 자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문제라고 정부기관 관리에게 말함으로 선교인으로서 강제출국을 당하지 않고 선교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것은 사실과 너무나 다르다. 일례로 증인한국지부 홍보부에서는 전국을 순회하며 병역거부 지침을 교육해 왔으며, 과거 성우 ○○○도 교육 담당자로서 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개인 차원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자면, 증인 자녀가 군대를 갔다 오면 조직의 ‘이탈자’ 즉 제명처분을 당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당한다.##

또한 그 자녀의 아버지가 장로라면 임명에서 해임되거나 사임을 권고 받게 되며 장로직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한 지붕 아래 동거하지 못하게 별거를 시켜야 한다.

비충성자로 취급당함(「유의하라」 책 P. 101, 102)으로 부모의 명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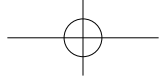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와 가문의 비충성자로 지목받는 것이 두려워서 거부하는 것을 어떻게 증인 모두는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할 수 있는가?

진정한 양심적 거부자가 소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종교적 병역 거부”라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대답이 아닌가?

파수대 2008년 12/15 25면에는 그분의 회고록에 다음과 같은 말이 들어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우리의 활동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우리 법인체의 이사들이 젊은이들에게 병역을 거부하도록 가르친다는 거짓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우리 이사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심문했습니다. ...”

여호와의 증인은 종교적 파문에 해당하는 “제명” 처분을 받은 사람과는 인사도 할 수 없고 그 사람과는 대화하거나 식사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질문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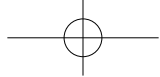
UN NGO 가입에 대하여

증인 교리는 UN (국제연합)을 “붉은빛 짐승” (계시 17:16, 17), “멸망의 가증한 것”, “정치적 우상”, 앞으로 없어질 “8째 세계강국” (「천년왕국」 21면 289면)이라고 가르쳐 오면서 증인 성원들에게는 한마디 이유와 설명도 없이 1991년 UN에 가입신청을 하여 1992년에 가입허가를 받았으며,

약 10년간 UN헌장 지지를 존중하며 UN활동의 홍보수행을 조건으로 회원 활동을 했다가 영국 가디언 신문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UN NGO 가입문제를 2001년 10월 8일자에 보도하자 바로 다음날 10월 9일에 UN에서 탈퇴하였다.

탈퇴한 내용이 동일 신문에 “여호와의 증인, 위선자”라는 제목으로 2001년 10월 15일 자에 크게 보도되었다. 기존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붉은빛 짐승과 결탁과 타협이 아닌가?

또 세계 인권선언 50주년 기념홍보로써 깨어라(1998년11월 22일호)지에 특집으로 UN활동을 게재했으며 그 홍보사실을 UN에 보고하였다.



UN가입에 대하여 전 세계 많은 증인들이 항의 질문을 하자, 협회는 “UN 도서관 출입을 위해서”라고 궁색한 해명을 했으나 실은 미국 대학생들도 신청과 허가의 절차를 통해 출입할 수 있는 곳이 UN 도서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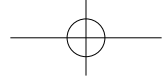
신속한 탈퇴 이유와, 왜 가입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 줄 성서적 대답을 원한다.

UN인터넷 사이트는 많은 증인들의 확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가입여부를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식 문서를 게재하고 있다.

UN 사이트의 기록을 전세계 사이트를 저장하여 증명하는데 사용하는 archive.org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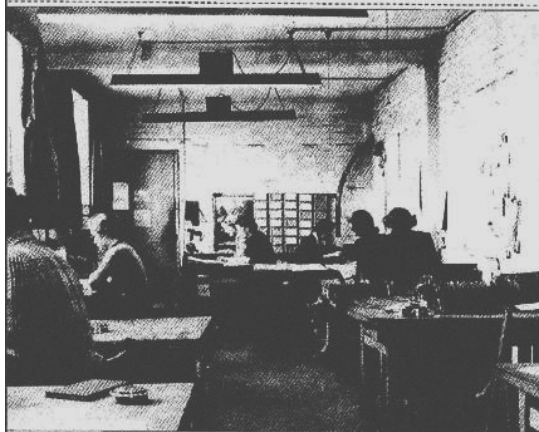
<http://web.archive.org/web/20090810064549/http://www.un.org/dpi/ngosection/pdfs/watchtower.pdf>

워치타워의 UN NGO대표로 언급되고 있는 Gino Aulicino는 당시 협회의 부협회장이었다.



The Guardian Monday October 15 2001 13

codebreakers not dismissed 'simple' solution, book claims



... One of the Bletchley Park huts where codebreakers worked during the war. Photograph: Neil Hope

a text of earlier
encyclopedia of the
organisation's
forte, or be-
light that she
ing her time in

following it up. She had there-
fore been unable to make any
progress."
Fiskine adds: "Even more
surprisingly, although Knox
understood her hypothesis
about its wiring, he had not

pursued it himself, probably
because he could not believe
that the Germans had been so
stupid."
Action This Day, whose roy-
alties will be donated to the
Bletchley Trust, is published to

mark the 60th anniversary of
a letter written by the code-
breakers to Churchill desper-
ately asking for more re-
sources for work which is now
believed to have shortened the
war by up to two years.

Second judge backs juries

Clare Dyer
Legal correspondent

Government plans to use a
blueprint drawn up by a senior
appeal court judge to end the
right of thousands of defen-
dants a year to opt for jury trial
were attached at the weekend
by a fellow appeal court judge.

Sir John Kay, sitting in for the
blueprint's author Sir Robin
Auld on a panel at the bar con-
ference, poured cold water on
Sir Robin's recommendations,
unveiled last week after a
review of the criminal courts,
commissioned by the lord
chancellor in 1999.

Sir John said he had "great
difficulties" with the proposal
for a three-tier criminal court,
with an intermediate tier of a
district judge and two magis-
trates to try middle-ranking
offences meriting between six
months and two years in jail.

It looked "superficially at-
tractive", but the middle tier
would have to deal with a large
volume of cases and the only
magistrates with the time to sit
would be retired people. "You
will be getting a tribunal which
consists of a judge and two re-
tired people which would be
more out of touch than a judge
sitting alone, who at least is still
working."

Sir John's comments came
three days after Lord Woolf,
the lord chief justice, voiced his
doubts about the proposals.

The intervention by two senior
judges suggests the govern-
ment might have a tough fight
in its latest attempt to push
through curbs on jury trial,
with judges joining lawyers
and civil liberties groups in op-
posing them. Two bills have
been defeated in the Lords and
lawyers say the Auld proposals
would remove two-thirds of
cases from crown courts.

Sir John told barristers at
the conference in London: "I
don't think the government
will have the stomach at the
end of the day for the fight
they're going to have because
public opinion will be against
it. If the government does go
ahead, I have no doubt the
House of Lords will defeat it."

'Hypocrite' Jehovah's Witnesses abandon secret link with UN

Stephen Bates Religious
affairs correspondent

ment has al-
ced that pork
European Union
n countries un-
and mouth.
y, many Cum-
attended a con-
ninth to discuss
farming in the
e as bad now, if
id the Rev Bob
of the organis-
who have not
not and mouth
able to move
r—sometimes
ers whose cattle
ected have re-
sation. But these
served nothing at

The Jehovah's Witnesses have
hurriedly disaffiliated from the
United Nations within days of
a Guardian story in which
members accused the sect of
hypocrisy for supporting an
organisation it has repeatedly
denounced privately.

After the article last Mon-
day, the organisation's New
York based hierarchy pre-
empted a UN inquiry by agree-
ing to disaffiliate the Witnesses
from an organisation which it
holds to be the scarlet beast
named in the Book of Revela-
tion.

The Watch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of New York, as

the sect is formally known, has
6m members worldwide and
130,000 in Britain. It had been
secretly affiliated to the UN as
a non-governmental organisa-
tion for 10 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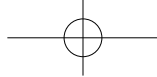
Recognised organisations
are supposed to demonstrate
that they share the UN's ob-
jectives, but Witnesses are in-
stead told by elders to regard
it as "a disgusting thing in the
sight of God and his people"

for allegedly aspiring to world
domination like Babylon the
Great, the beast in Revelation.
The sect does not believe in
participating in government
and initially strove to play
down or deny the evidence of
the UN's website, which lists it
as one of 1,500 affiliated NGOs.

Those bringing the evidence
to light were accused of spen-
tacy. Disaffiliated members
become known informally, like
the rest of humanity, as "bird
seed" in line with biblical
prophecy of the fate of non-
believers, whose corpses will
be pecked bare by crows.

Within hours of the article's
appearance on the Guardian
website on Monday and its
posting on a Jehovah's Wit-
nesses bulletin board, more
than 14,000 people across the
world had read it.

By yesterday there were 353
official posts and 325 message
boards discussing the article
and its revelations, with Wit-
nesses in the US demanding to
see copies of the paper.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DPI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ECTION

United Nations, DPI/NGO Resource Centre, Room L-1B-31
Tel: (212) 963-7233, 7234, 7078 • Fax: (212) 963-2819 • E-mail: dpingo@un.org

4 March 2004

To Whom It May Concern,

Recently the NGO Section has been receiving numerous inquiries regarding the association of the **Watch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of New York** with the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DPI). This organization applied for association with DPI in 1991 and was granted association in 1992. By accepting association with DPI, the organization agreed to meet criteria for association, including support and respect of the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commitment and means to conduct effective information programmes with its constituents and to a broader audience about UN activities.

In October 2001, the Main Representative of the **Watch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of New York** to the United Nations, Giro Aulicino, requested termination of its association with DPI. Following this request, the DPI made a decision to disassociate the **Watch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of New York** as of 9 October 2001.

Please be informed that it is the policy of the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of the United Nations to keep correspondence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NGOs associated with DPI confidential. However, please see below the paragraph included in all letters sent to NGOs approved for association in 1992:

"The principal purpose of association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ith th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is the redissemination of information in order to increase public understanding of the principles, activities and achievements of the United Nations and its Agencies. Consequently, it is important that you should keep us informed about your organization's information programme as it relates to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sending us issues of your relevant publications. We are enclosing a brochure on the "The United Na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hich will give you some information regarding the NGO relationship."

In addition, the criteria for NGOs to become associated with DPI include the following:

- that the NGO share the principles of the UN Charter;
- operate solely on a not-for-profit basis;
- have a demonstrated interest in United Nations issues and a proven ability to reach large or specialized audiences, such as educators, media representatives, policy makers and the business community;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DPI/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ECTION

United Nations, DPI/NGO Resource Centre, Room L-1B-31
 Tel: (212) 963-7233, 7234, 7078 • Fax: (212) 963-2819 • E-mail: dpingo@un.org

2004년 3월 4일

관계자들에게

최근, 우리 비정부기구(NGO)관련 부서는 뉴욕의 위치타위성서책자협회의 유엔 홍보부(DPI)와의 연합관계에 대한 문의를 수없이 받아 왔습니다. 위치타위성서책자협회는 1991년에 유엔 홍보부(DPI)에 연합하기를 요청했고, 1992년에 제휴 연합이 승인되었습니다. 유엔 홍보부(DPI)의 연합을 승인함으로써 이 조직은 연합에 필요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연합의 조건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UN헌장을 지지하고 존중하며 그 구성원이나 일반 대중에게 유엔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홍보를 수행하는 것을 지지해야 합니다.

2001년 10월, 뉴욕 위치타위성서책자협회의 유엔 대표인 사이로·아우리치노(Ciro Aulicino)씨는, 유엔 홍보부와 연합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에 따라, 유엔 홍보부는 2001년 10월 9일자로 뉴욕 위치타위성서책자협회의 연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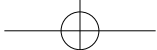
유엔 홍보국은 DPI와 제휴하고 있는 NGO와 유엔과의 통신을 기밀사항으로 취급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음은 1992년에 제휴의 승인을 받은 NGO에 송부된 모든 편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비정부기구(NGO)와 유엔 홍보부(DPI)와의 연합의 첫 번째 목적은 유엔과 그 산하기관의 이념, 활동 및 성과에 관한 대중의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보를 넓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유엔과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항상 우리 부서에 귀 조직의 홍보프로그램을 보고해야 하며, 이 활동에 관련된 출판물 사본을 우리 부서에 보내야 합니다. 「유엔과 비정부기구(NGO)」에 관한 책자를 동봉합니다. 이것에는 NGO 제휴 관계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NGO가 DPI에 연합하는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포함합니다.

- 국제연합헌장의 이념을 널리 알린다.
- 비영리적으로 활동한다.
- 교육자, 미디어 대표, 정책 입안자, 재계 등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집단에게 유엔의 이슈와 검증된 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신임을 받고 있다.
- 뉴스레터, 사보 및 팸플렛의 발행, 회의, 세미나 및 원탁 회의의 개최 및 미디어의 협력을 통해서, 유엔의 활동에 관한 효과적인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결의와 수단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여러분이 관계자들과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질문 [9]

수혈거부와 변경에 대해서

여호와와 증인들이 수혈을 거부하는 이유는 성서적이라고 한다.

성서 (레위기 17:13, 14 사도 15:20 사도 15:28,29)에서의 피는 생명을 상징하므로 먹지도 말고 땅에 쏟아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생명의 수여자인 창조주 하느님께 생명의 피를 돌려드린다는 상징적 의미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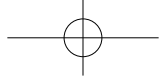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물론 수혈로 인한 부작용이 많은 가운데, 여호와와 증인들에 의해서 발전된 무수혈 대체요법은 현대의학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수혈에 관한 증인의 지침이 변해오면서, 「우리의 왕국봉사」 지(2006년 11월호 삽입물 보관용)에서는 전혈과 ‘네 가지 일차 성분’이라고도 부르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은 금지하지만 거기에서 분획된 피는 개인의 결정과 양심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서 적혈구에서 분획된 헤모글로빈(적혈구의 33%)도 개인의 양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일찍 이러한 지침을 발표했다면 수십 년간 수혈거부로 사망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보상할 것인가?



질문 [10]

장로와 봉사의 종 임명이 성령의 임명인가?

장로와 봉사의 종의 임명을 성령으로 임명하기 때문에 절대적 순종과 복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이는 사실인가?

성령으로 임명된다고 말함으로, 너무 권위적이고 신성시까지 되는 것은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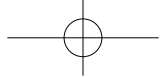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만약 성령으로 “임명” 된다고 하면 “해임”도 성령으로 해야 맞지 않겠는가? 해임은 조건이 있으면 지방 장로회나 순회 감독자의 직권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임명도 성령이 아니라 지방 장로회와 순회 감독자의 추천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옳바르지 않는가?

인간이 하기 때문에 임명과 해임에서 오는 분쟁으로 “여호와와 증인 한국지부”로까지 가는 항의 방문이 얼마나 많았는가?

사람이 임명하므로 (전도서 8:9) 부작용이 많은 것이 아닌가?

“여호와와 증인 만이 유일하게 구원 받는다”는 구원론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로서, 하느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한다는 “통치체”



또는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 과 “회중의 장로”들의 지시에 불순종하는 모든 백성은 하느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구원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

앞으로 있을 아마겟돈에서 멸망을 당할 자들이라고 교훈한다. 그래서 순종하는 여호와의 증인 백성(약 700만)만이 살아남고 나머지 세계인구(약 70억)는 썩은 시체가 되어서 새의 먹이가 (계시 19:17~21)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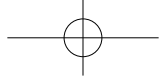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공포와 협박이 될 수도 있지 않는가?

진정으로 사랑, 공의가 많으신 창조주 하느님이 어떻게 무자비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느님께서는 “아무도 멸망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베드로 후서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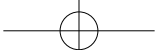
1960~1970년대 우리 증인들은 말라위 형제자매들의 박해를 위해서 기도한 기억이 있다. 말라위 형제들이 내전 중 독재당의 당원 증 구입을 거부함으로 인해 표현할 수 없는 강제추방·강간·살해 등의 박해를 당했다.(말라위 지부의 지침을 협회본부가 서신으로 승인 지지. 협회지면으로도 거부지침 재확인.)

반대로 멕시코에서는 군 입대나 대체복무 대신 딱지(까르띠야-cartilla)를 뇌물로 매입하면서 면죄 받았다.(멕시코 지부로 보낸 협회의 서신으로 지침승인. 협회 잡지나 출판물 지면에는 언급 없음.)



이 두 나라의 대조적인 지침을 보면 공의롭고 평등과 공평하신 분
인 하느님께서 얼마나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으로 여기
셨겠는가? 국가와 민족을 차별하는 불공정의 처사가 아니었는가?
진실한 대답을 듣고자 한다.

여호와와 증인만이 살아남는다는 성서적 명확한 증거와 대답을
듣고자 한다.



질문 [11]

“영적인 구원사업”도 중요하지만
“물질적 구원사업”도 중요하지 않는가?

성서에서도 여호와 하느님과 예수의 사랑의 정신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 (마가 5:30~33, 누가 18:35~41 마태 7:16~20 야고보 2:14~17 요한 4:49~53 요한 13:3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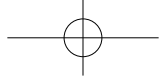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여호와의 증인들이 사랑의 말씀을 얼마나 실행하고 있는가?

예로서 ○○실버(노인요양센터)에서 협조 편지가 오면 협조하지 말라는 순회감독자의 편지 낭독을 듣고 실족할 뻔했다.

악한 세상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순화시킬 사명으로 영적으로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시급하고 중요하지만 물질적 어려움으로 굶어 죽어가는 생명이 있다면 물질적 구원의 손길도 시급하지 않겠는가?

미국협회의 재산은 미국뉴욕에서도 몇 번째가 된다는 말을 듣는다. (부동산, 주식보유 등)

“아마겟돈”[#] 임박을 확신한다면 먼저 협회 재산(각 나라 지부 재산, 부동산 신축 확장 등)을 보유 증식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협회는 증인들에게, 때가 단축되었기 때문에 “임시 거주자”로서 육적 욕망을 멀리하고 기본적인 생활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다. (파수대 2011년11/15호 연구기사)

그러나 같은 호 뒷 기사에서 기본적인 생활과는 거리가 먼 보석, 노후연금, 양도성 예금증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협회에 헌금, 기부, 기탁, 유언과 신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다.

“박하게 뿌리는 자는 박하게 거두고, 풍부하게 뿌리는 자는 풍부하게 거둘 것입니다. ……” (고린도 둘째 9:6,7인용)라는 성구를 인용하면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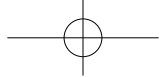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때의 단축을 긴박하게 확신하는 협회라면 이중적 모순이 아닌가?

수십 년 평생 조직마련 봉사 사업에 헌신한 동료 신자들이 노병약자로서 생계가 어렵다면 세상 정부의 도움보다 먼저 보호 시설이나 대책 마련을 해주어야 현재 열심히 봉사하는 자들이 노후를 불안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전 특별 파이오니아. 순회 감독자 등.)

또 최빈국인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가서 우물도 파주고 교육시설도 도와주고 하는 자원봉사가 전도봉사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는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
(앞 페이지) 증인들의 믿음에 의하면, “아마겟돈”이란 미래에 있을 “하느님의 큰 날의 전쟁”이며 세상의 모든 국가가 무너지고 증인이 아닌 모든 인류가 멸망 받게 되는 때를 말합니다. 성경 계시록 16:16에 나온 단어에서 유래했으며 흔히 여호와의 증인 뿐만 아니라 많은 종파에서도 단어의 정의는 다르지만 종말론을 주장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전도 봉사 방법도 시대에 따라 변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로서 한국 어느 순회구에서 약 2천명이 넘는 성원이 1년간 야외에서 80만 시간에 가까운 야외 봉사를 했는데 20명 정도의 사람만 침례를 받았다고 한다. 그 가운데 70~80%는 증인가족의 2세, 3세들이었다.

성원이 늘어나는 것은 자녀들이 태어나서 자라서 늘어나는 숫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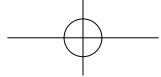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이것은 순수한 신기록이 아니다.

이제는 전도 봉사를 할 때에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조직이 필요로 하는 근로 지원이나 물질적·영적 지원 및 후대하는 것도 특권으로 인식하도록 의식화된 세뇌교육은 잘 길들여진 양과 같이 불평불만 없이 순종하게 한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사람이 아닌 “하느님께 드리는 봉사”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가?

“특권”이라는 당근으로, 지부건물 건축 순회대회장 건축 왕국회관 건축 등에서 노동 및 물질적 지원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질문 [12]

“표현의 자유”와 “제명처분”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가 없는 것은 종교와 사상의 자유가 없는 것과 같은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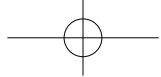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예수께서는 사도행전 1:6,7에서 제자들이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여도 책망하거나 제명하지 않으셨다. 도리어 온유하게 시정해 주셨다.

증인조직의 교리나 지시에 부정적으로 말하거나 반대하면 왜 배교자로 몰아서 제명처분까지 시키는가?

1914년이나 아마겟돈 교리에 의문을 갖거나 UN가입을 말하면 배교자로 제명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협회본부 통치체 회의에서는 의심의 발언을 해도 제명하지 않았다.

예로서 1975년 2월 19일 정기 회기에서 그 당시 협회장 네이션 노어는 자기가 불확실하게 믿는 것 가운데 1914년이 포함된다고 했다고 한다.[#]

[#] 1975년 2월 19일에 있었다는 통치체 회의에서의 당시 협회장 노어 형제의 진술은 그 당시 통치체 성원이었던 레이몬드 프랜즈 형제가 나중에 저술한 「양심의 위기」(영문)책 제 10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통치체의 사회자 위원회 소속이던 앨버트슈로더(의장)는, 1980년 통치체 회의에서 “이 세대”가 시작한 해를 소련이 최초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해인 1957년으로 변경할 것을 성경(마태 24:29,30)을 인용하여 공식 서면으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제명당하지 않았다.

조직의 교리와 지침을 부정하거나 비판하면 부부와 부모자식 사이에서도 소속된 회중의 장로들에게 고발하여 책망 또는 배교자로 제명처분을 한다. 또한 제명처분 받은 자와 식사 교제만 해도 그 역시 제명을 당하게 된다.

이것은 한 인간을 완전 고립과 왕따로 만드는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조직의 교리에 다른 견해의 말을 동료끼리 사석에서 했다고 해서 통치체 내부에서 고발하여 어제의 (수십 년 간) 동료가 오늘의 제명자로 추방 되었다.(전 통치체 성원 레이몬드 프렌즈 : 한국 동아일보 1982년 2월 25일자 보도)

길르앗 학교 교무주임이었던 에드워드 던랩은 73세(40년 이상 전 시간봉사자) 제명당하여 살기 위해 부부가 88세까지 도배(벽지)일을 하시다가 사망했다.

용서와 자비를 가르치는 지도자들의 행위를 여호와 하느님이 보시고 얼마나 한탄스러워하셨을까? 또 하느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고통을 드리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수 없었을까?

破門당한美前고위教役者



「地球終末」예언틀리자 懷疑教會 쫓겨나 가계雜役夫로

권력의 핵심에서 쫓겨
난 전직「여호와의 증인」
교위장부가 비밀에 싸
교를 믿는 신자집안에서
태어난「프란츠」는 고등
학교를 졸업한 직후 교

[illegible][illegible][illegible]

회원을 보기 시작했으며
中美의 자개발국가에서 20
중대한 전도분야에 활약하
후 간행 「전도기관지」를 발
행해 발표하면서 1971년
간 최고구인인 17인원정
을 달성했다.

「가짜뉴스」는 오히려더 중
요한 편지를 더 부속해 물
어 사적화하여 「전도활동자
기재자료집」에 실어 모든
회원 1679명의 장안
에 보냈고 편지 수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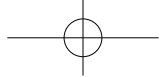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illegible]

이 때 따라서 예수재림의
미려한 사건들중의 하나로 믿고
있었다.

『중환』 1975년 3월 『광
남』 1914년 3월 『동
수재림사건』 이후 사건을
헤아려 중환의 종교가가
같이도 『그들』 21년 3월
중환이 『중환』 21년 3월
중환이 『중환』 21년 3월
이제 보았다.

〈이리〉

44



이러한 방법이 성서 어디에서 가르치는 사랑의 표현인지 알고 싶다.

대답해 주십시오.

증인 조직에서 말하는 배교자들의 말이나 편지, 서적, 인터넷 등 어떠한 것도 보지도 말고 멀리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그들의 주장에 동감 할까봐 염려하는 것은 아닌가?

그들의 논리가 비성경적이라면 성서적으로 끝까지 싸워서 파괴시켜야 마땅하지 않는가?

배교자란 말의 성서적 정의는 예레미야 17장1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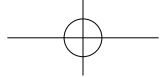
“오, 이스라엘의 희망이신 여호와여, 당신을 버리는 자들은 모두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당신을 떠나 배교하는 자들은 흠에 기록될 것이니, 그들이 생명의 물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여호와 하느님을 버리고 배신하는 자를 말한다.

단지 조직에 대해서 교리를 의심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한다고 하여 배교자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서적이 아니다.

무조건 접근도 못하게 하는 것은 무서워서 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아 구원해 줄 사명도 있지 않는가?

동물 세계에서 싸워 보지도 않고 위세만 보고 도망가는 것과 같지 않는가?



질문 [13]

생일파티, 여자 바지 옷, 신체단련 운동,
형제호칭, 파수대 연구, 투표권에 대하여

생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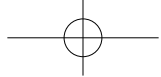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생일파티를 주최하거나 참석조차 못하게 하므로 어린 자녀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와 두려움을 갖고 사는가? 친구들 사이에서 왕
따를 당하고 있는지 배려하는 연민의 정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성서를 보면 생일잔치와 관련된 불미스런 사건이 두 번 나온다.
(창세기 40:18~22; 41:18 마태 14:6~11 마가 6:21~28)

물론 안 좋은 기록이 있었지만 이러한 기록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결과와 관련된 다른 생일잔치도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지 않는
가?

생일을 기억하는 것은 생명의 수여자이신 창조주 하느님과 진통
의 고통으로 출생시켜준 부모님께 효도를 하게끔 생각나게 하는 날
로 기념하면 좋지 않을까?

성서에서는 생일잔치를 “하지 말라”거나 “해도 된다”는 기록은
한 곳도 없다. 성서의 명확한 명령이 아니라면 개인 양심에 따라 결
정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는가? (증인들도 1920년대 중반까지 생일



파티를 금지하지 않았다)

증인들도 육적인 일가친척들의 모임에도 참석하고 교제와 교류를 통하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다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많으면, 고대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

마치 반대를 위한 반대처럼 타 종교와 달라야 한다는, 차별을 위한 차별을 위해서 버리지 못하고, 종교라는 미명아래 어린 아동들에게까지 마음의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지 옷차림

여자들이 옷을 단정하게 입으라는 성서적 교훈은 있지만,(디모데 첫째 2:9) 추운 날씨에도 야외봉사와 집회에 갈 때 반드시 치마를 입으라는 교훈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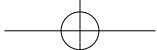
세계적 정상회의에서도 여자들이 바지를 입고 회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성서적 근거가 없다면 이것도 개인적 양심의 자유에 맡기면 좋지 않는가?

신체단련

하지 말라는 것 중에서 심지어 신체단련 호신술 운동도 있다.

예로서 태권도, 유도, 요가 등이 있으며 예능으로서 국악도 있다.

피를 보는 폭력적인 운동종목들은 권장할 수 없지만, 육체와 정신건강을 위해서 원하는 스포츠는 개인양심 문제로 결정할 수 없을 까? 다만 우상 숭배와 관계있는 운동이나 훈련 예능 단체가입 등은



할 수 없지만……

우상숭배란? 절대적이 아닌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잘못 알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고정관념 집착이다.

심지어 재능이 우수해도 학급에서 반장도 못하게 하고 체육기능이 특출해도 국가 대표가 될 수 없기에 포기해야 하는 것은 인간 기능 개발에 저해하는 가르침이 아닌가?

“형제” 호칭에 대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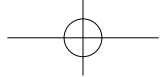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형제라는 호칭은 형과 아우를 칭하는 호칭이며, 타 종교에서도 믿는 신자끼리 스스로 남녀를 구별할 때 하는 칭호이지, 70~80세 된 어른에게 어린아이부터 동일하게 “형제”라고 호칭하게 하는 것은 한국적 전통 예의에서는 상스러운 아주 무례한 호칭이 아닌가? 영어권이나 중국어권에서는 예외지만………….

2014년 국제대회 및 지역대회에서 발표한 신세계역 개정판 부록에 보면 “이 개정판의 특징”이라는 항목이 있다. 그곳에서는 이런 부분도 나온다.

“이 개정판에서는 한국어 독자들의 정서를 고려하여, 시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느님을 가리킬 때 대부분 “아버지”나 “주”와 같은 표현으로 대체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도 2인칭 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에 따라 “왕”, “주인님”같이 상황에 맞는 호칭으로 바꿨습니다.”

“한국어 독자들의 정서를 고려하여”라는 말이 눈에 띈다.

이러한 고려를 “형제”나 “자매”라는 호칭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



을까?

“파수대 연구”

‘파수대 연구’를 “연구”라고 하지 말고 범위 내에서 묻고 답하는 문답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말이 아니가?

연구는 사실인지 아닌지, 객관성이 있는지 일방적인 생각인지, 발전된 견해인지 등을 깊이 있게 토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가?

그런데 「파수대」 지에 나온 내용을 벗어나지 못하고 범위 내에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을 연구라고 할 수 있는가?

선거와 투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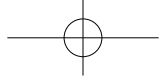
투표권에 대해서 모든 선거에서 투표권 행사도 개인의 양심문제로 결정하는 것이 성서적이 아닌가?

요한복음 15:19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일부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또 로마서 13:1에서는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 하”라는 명령이 나온다.

투표를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이러한 성서 명령을 오해한 것이 아닌가?

예수께서 왕을 삼으려고 할 때 “혼자 다시 산으로 들어가셨다”고 나온다. (요한 6:15)

성서기록으로 볼 때, 증인이 입후보자로 출마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들의 복지를 위하여 일하겠다는 일꾼을 선택하고 선출하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 않는가?



질문 [14]

“통치체”라는 단어 사용이 성서적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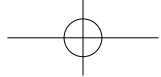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통치체”라는 영어 “Governing Body”라는 어원은 왕권이나 식민지를 지배하는 권력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닌가?

성서에서도 “통치”라는 단어를, “통치하다”(사무엘 첫째 8:9; 15:11) “통치자”(다니엘 4:17 마태 20:25) “통치권”(다니엘 4:3, 34; 7:6) 등 왕권으로 의미할 때 사용했으며, 1세기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연로자들”(사도 15:4.6)이라고 표현했지 예루살렘에 있는 “통치체의 지시에 따라서 결정했다”고 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신권이나 왕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어떻게 인간조직에서 인간이 말하고 지시하는 것을 통치체에서 한다고 말하는가?

하느님의 왕권을 의미하는 이 단어의 사용은 너무 권위적이고 위압적이고 절대적인 명령과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단어사용이 아닌가?

“통치체”라는 용어는 여호와의 증인 외에는 세계 역사상 드물게 구 소련 공산당에서 1950, 1960년대에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능 체제를 가리키면서 “통치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한다.



성서 어디에도 인간조직을 운영하는 조직체를 “통치체”라고 말하지 않았다.

왜 “통치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성서적 근거와 답을 듣고자 한다.

또한 증인 조직에서는 “통치체”라는 용어 말고도, 권위를 내세우는 다양한 직책과 용어들이 존재한다.

성경적으로 “장로”들과 “감독자”들은 모두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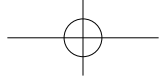
그러나 현실은 다른 형제들 위에 자신들을 높여서 특별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겸손과 겸허의 정신과는 너무 떨어진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몇 년 전부터 조직에서는 “주임감독자”라는 명칭을 수십 년간 사용하던 것을 중지하고 대신 “장로회 조정자”라는 명칭으로 변경한 적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순회 감독자” “지역 감독자” “지부 감독자” 등의 명칭과 실제 운영 방식은 그대로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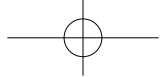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장로들 위에 또 다른 더 높은 장로들을 두는 것은 아니겠는가?

“통치체”라는 말은 여호와의 증인 조직에서 전 세계 약 8백만 명의 성원들에게 성경의 해석과 영적 지침 등을 결정하는 최고 중심부를 말합니다. 통치체는 불과 몇 명으로 이루어진 위원회이다. 미국 본부에는 약 2천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일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통치체는 약 10명 내외의 소수의 남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치체는 전 세계 증인들에 대한 거의 모든 사항을 결정할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좀 더 자신을 낮추고 겸손과 겸허 하라고 하신 성서 말씀과 반대가 아닌가?

성서에는 “감독자” “장로” “연로자”와 같은 단어들은 나오지만, “통치체” “지역 감독자” 등의 더 높은 권위를 주장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질문 [15]

마태 24:45—47에 나오는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에 대하여

양식을 나누어 주게 한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과연 누구이며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돌보도록 임명받은 자가 누구인가? 고대 왕들처럼 기름부음 받은 자는 누구인가?

초기 여호와의 증인은 1914년이 시작되고 나서도 29년 (1914—1943)간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임재를 인식하지 못했다.

1943년에 발행한 「자유」 책(영문 p209)에서 1914년이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게 임재한 해라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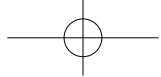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천년왕국」 책 195면 55항에서도 때의 계산 잘못으로 “1874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오심과 그의 보이지 않는 임재 혹은 ‘파로우시아’가 시작된 해라는 생각은 제거되었습니다.”라고 발표하면서 그러한 조정이 1943년에서야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들을 예수님의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1914년 임재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며 잠자고 있었다.

「선포자」 책 (p713)의 내용과 「파수대」 (1984:12월1일 영문)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왜? 1914년에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임재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찰스 테이즈 러셀 (초대 협회장)도 아니고 워치타워협회 내에서 한 사람도 없었다.

임제는 1874년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포자」 책 p46.47)

최근에는 이러한 초대 협회장 러셀도 “슬기로운 종”이 아니었다고 하는 새로운 견해를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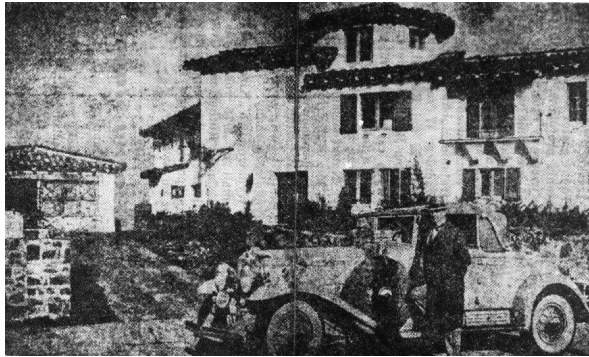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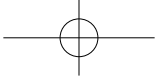
초대 협회장 러셀 당시에는 그분을 유일한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였다가, 2대 협회장 러더포드 시대부터는 한 개인이 아니라 러셀을 포함하여 14만4천에 속한 영으로 기름부음받은 그리스도인들 전체가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라고 바뀌서 설명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러셀도 “슬기로운 종”이 아니었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다. (파수대 2013년 7월 15일호 20~25면 참조)

조셉 러더포드도 1942년에 사망할 때까지 예수의 임재보다 아브라함, 야곱 등이 부활해서 지상 왕국통치를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에 ‘벧사림’ (군왕 즉 왕자들의 집)을 짓고 기다렸으나 부활되지 않았다.(1925년까지 기대)[#]

「선포자」 책 76면에는 ‘벧사림’의 사진이 실려 있고 네모 칸 안에 “군왕들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벧사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군왕들의 집’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땅을 구입하고 집을 지은 목적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왕국을 온전히 믿고 고대의 충실한 사람들이 곧 주에 의해 부활되어 땅으로 돌아와서 보이는 지상사를 맡게 될 것임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지상에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갖기 위함이다.”

이 집은 “고대 충실한 사람들”을 위하여 만들어졌지만, 예언 실패로 그들이 사용할 수 없었고 대신 러더포드 협회장의 별장 역할을 하였다. 러더포드 협회장의 사망 후 나중에 집은 매각되었습니다.



왼쪽사진은
러더포드 협회장이
‘벳사림’에서 찍은
사진.



2008년의 ‘벳사림’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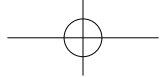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사진의 출처는
둘 다 영어 위키
백과사전 Beth
Sarim(벳사림)
항목.

그러나 거짓예언을 했다고 시인하지 않고 대신 “성급한 견해”라고 표현했다.

A. H. 맥밀런도 1914년10월초에 하늘로 승천될 것을 기다렸으나 (「선포자」 책 P62). 실제로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1914—1918까지가 예수께서 임재하시어 시험 보는 (마태24,25장) 기간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들은 합격할 준비를 할 수 없었다.

반대로 내부에서는 투쟁의 기간이었다.



“후임 협회장”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두 그룹”의 치열한 싸움의 역사만 남겨 놓았다.(「선포자」 책 p67,68)

1919년에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으로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은, 시험시간도 모르고 있다가 시험도 안치고 합격했다는 것과 동일하게 되어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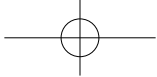
학교도 안 다니고 가짜 졸업장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아닌가?

2013년 7월 15일호 「파수대」 연구기사에서, 1919년 임명은 일부 소유만 임명한 것과 같고 모든 소유를 임명하는 것은 큰 환난 때 가서야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것은,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의 완전한 임명은 없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 아닌가?

왜? 솔직하게 잘못 발표하였음을 시인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렵게 애매하게 말하고 있는가? 진실한 대답을 듣고자 한다.#

2012년까지 협회는 여호와와 증인 중 소수에 속하는 “기름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태24:45에 나오는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 반열을 구성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통치체는 기름부음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할 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마태24:47과 누가12:44에 언급된 “모든 소유를 돌보도록” 임명받는 일이 1919년에 있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2012년 10월 펜실베이니아 워치타워 성서책자 협회 연례총회에서 및 그 이후 파수대 2013년 7월 15일호를 통해서 변경된 내용은,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은 “기름부음받은 그리스도인”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더 극소수로 이루어진 집단이며 “이 사람들이 통치체로서 함께 일할 때”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의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소유”를 말도록 임명받는 일은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변경하였습니다. 즉,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은 통치체만을 가리키며 아직 모든 소유를 말도록 임명받지는 않았다는 변경된 설명을 어렵게 표현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13년 7월 15일호 두 번째 연구기사에서 (12면 8항) 협회이사 7명 중 4명은 러더퍼드 인도에 반발한다는 이유로 1917년 8월에 추방되므로 잡초가 제거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러셀의 유연을 추종했기에 결과는 러셀도 잡초로 분류된 것이 아닌가?

겸손한 정신으로 실수를 인정하고 “거짓 가르침”이나 “거짓 예언”임을 시인하지 않고, “잘못된 이해”, “그릇된 기대”, “이해의 실수”, “성급한 견해”, “과거의 진리” 등으로 변명만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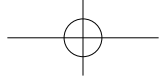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진리와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기에, 변명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이 드러나게 된다.

과학 기술은 “과거의 기술”과 “현재의 기술”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지만, 진리에 대해 “과거의 진리”나 “현재의 진리”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

왜? 진리는 영원불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충실하고 슬기로운 중”이라고 하는 전 통치체성원 ‘레오그린리 스’(1911—1988)와 ‘데오도르(테트) 제라스’(2010사망)는 아동 성추행 혐의(피해자 패트가르샤)로 2002년 미국 BBC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 질문도 받았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성령으로 임명된 통치체 성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사실이 아니고 오보이기를 바라지만, 세계 다른 장로들 중 일어났



다는 비슷한 사건도 함께 사실이라면 세상 법적 재판에서 패소하여
거액의 배상금은 없었는가? 사건이 진실이라면 하느님께 얼마나 큰
모독이 돌아가게 하지 않겠는가?

명확한 사실 확인의 대답을 듣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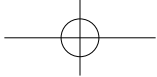
그러면서도, 인류에게 주어지는 모든 하느님의 지시가 오직 위치
타위협회를 통해서만 오게 되며, 이 조직이 “유일한 의사전달 통로”
이기 때문에 조직에 충성하고 위치타위 지도자들에게 충성하는 것
이 하느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조직만이 진리의 조직, 여호와의 조직, 하
느님의 보이는 지상조직, 하느님의 신권 조직, 영으로 인도하는 조
직이라고 교훈하고 있지 않는가?

주의 도착도 모르고 잠자고 있는 종에게 예수께서 모든 소유를 돌
보도록 임명하실 수 있겠는가?

과연 현재는 적절한 때에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의 실체는 누구이
며?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은 정확하게 누구를 지칭할 수 있는지
를 성서적 증거와 함께 객관성 있게 대답해 주기를 바란다.

만약 자격의 증거가 부족하다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으로 자
처하는 것은 자화 자작이 아닌가?



〈인용된 출판물 약자표기와 원제목 표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 가운데서의 영원한 생명」 - 1968년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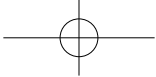
「천년왕국」: 「하나님의 천년왕국은 다가왔다」 - 1976년 발행.

「유의하라」 책: 「자신과 온 양떼에 유의하라」 (현직 장로만 소유) - 1991년 발행.

「선포자」 책: 「여호와의 증인 - 하나님의 왕국 선포자」 - 1993년 발행.

「철저히」 책: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 철저히 증거하십시오」 - 2009년 발행.

「자유」 책: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문만 발행) - 1943년 발행.



P.S.

창조주 여호와 하느님께 숨기거나 증인 성원들에게도 적당하게
넘어간 숨긴 내용들이 있었다면 솔직하고 진실하게 해명하고 실수
와 잘못을 용서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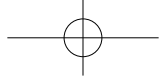
위에서 큰 제목으로 15가지 질문, 세부적인 작은 질문까지 합하
면 112가지 질문 중에서 나타난 빛나간(거짓말) 가르침, 지침서, 예
측, 예언,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신적·지식경제·생활경제 면에서 희
생한 전 세계의 성원들에게 준 번뇌와 고통에 대해서 단 한번이라도
사죄해야 하지 않겠는가?

가톨릭에서는 역사 가운데 실수한 사실들을 사죄하는 발표를 하
지 않았는가?

고대 고라의 교만으로 취급 하거나 질문자를 배교자로 목살하지
말고 여호와와 증인 조직의 영원한 발전을 위한 개혁을 위해서 여호
와 하느님 앞에 충정어린 심정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질문 이
므로 성서를 근거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의 교훈을 사랑하는
한국 Wish of Reform 모임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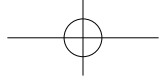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전자우편주소 : wishreform@gmail.com



제2부

여호와와 의 증인 한국지부 임원과 미국 협회 임원에게

●
알고 싶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신앙생활에 관한 질문]
●



왜 고등 교육을 받지 않도록 강조하는가?

성서 교육에서 부도덕 폭력 마약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지침을 주신 것은 감사히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하지만, 증인조직에서 고등교육을 받지 않도록 강조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교육은 실력과 제정 환경이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요 의무이다.

왜 증인조직에서 고등교육을 피하도록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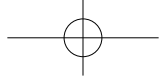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파수대」 2006년 4월 15일호에서 세상 교육을 많이 받는 국가일수록 청소년 전도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이유는 전문대나 기술학교에서는 배우지 않는 교양과목을 이수할 때 조직의 리더 혹은 인도자로서 비판능력도 배우므로 증인조직의 비판 능력이 있게 되므로 4년제 교육을 받으면 많은 학생 전도인이 무활동이 된다는 통계가 나온다고 하기 때문이다.

2003년 12월 15일 파수대 문답식에서도 추가교육보다 정규 파이오니아를 추구하도록 경험담까지 강조했다.

이유를 분석하면 지구상의 모든 종교나 조직들은 자체의 조직을 보호하고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개인의 복지나 행복 삶의 질보다 조직을 우선하기 위하여 세뇌하고 교육하는데 속아서 유혹 당하면 10년 20년 30년 후에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다음에는 참과 거짓 진리가 무엇인지 이야기해봅시다.



활동하는 증인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은 꿈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다.

꿈이 없으면 죽은 상태와 같다. 조직에서 왜 개인적 꿈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가? 개인의 꿈속에는 개인의 희망, 소망, 욕망, 인생의 설계,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조직은 개인의 희생위에 조직의 발전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젊음은 길지 않다. 배움의 시간도 길지 않다. 시기와 때를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배움의 시기를 놓치고 누구에게도 핑계와 이유를 댈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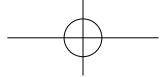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논밭을 팔아가며 자식들 공부시킨 이유가 있다. 천한 직업에서 오는 재난들을 보았기에……

한국의 경제 성장도 교육의 힘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인정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증인 조직에서 하라는 것과 반대로 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

4년제 고등교육 받지 말라 하면 받고, 정규 봉사만 강조하면 공부 열심히 하고, 때가 내일모래라고 강조하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신권교육만 강조하면 세상의 학문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세상을 넓게 보고 견문을 넓혀야 한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배워야 산다. 배움은 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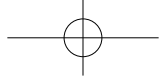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고 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다. 이것은 진리다.

누구의 권고도 유혹도 멀리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마겟돈이 가깝다고 한때는 고등학교도 못 가게 했던 선배 노인
들은 이미 죽어서 땅 속에 있다.

인간들의 말은 변하고 있다.

꿈을 갖자 파이팅.



참과 거짓은...? 현증 청소년들에게

먼저 미라쥬 콜로이드님께 철자도 틀리고 두서없는 글을 읽어 주시고 격려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참은 진리입니다. 참은 진실하고 솔직해야하며 구차한 변명이 없어야 합니다. 거짓이 참인 척 포장을 하는 것은 없는지 청소년들은 관찰해 보기 바라며..... 증인 조직 약 140년 역사에서 예측 예언을 수없이 해왔지만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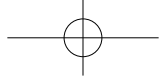
예로서 1914년에 지상에 모든 왕국들이 멸망하고 하느님의 왕국이 온다고 했지만 한 나라도 멸망이 없었다. 다만 1차 대전은 있었다.

또 1925년에는 아브라함 욥 야곱 등이 부활한다고 벳사림(군왕 왕자들의 집)을 짓고 하느님 왕국을 도와줄 것이라고 기다렸지만 거짓예언으로 끝났고 1975년은 인류역사 6000년이 끝나고 새천년이 온다고 (생명책 35p) 공식적으로 출판물을 통

해서 발표했지만 아무런 일도 없이 조용하게 지났다.

그러자 1914_아마겟돈까지 한 세대를 몇 번이나 해설을 변경하는 혼란을 주었다. 그러나 거짓 예언을 했다고 한마디 사과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후로 아마겟돈이 지평선 상에 어렴풋이 문턱에 코앞에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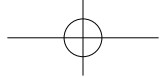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고……

지역대회 주제도 임박한 구출 등 긴박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 말하고 있지만 이제 큰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2013년 7월 15일호 에서는 한 세대 의미는 사라지고 큰 환란 세대를 새로 만들어 애매모호하게 혼돈을 주었다.

성서예언은 상응하는 예언이나 1차 2차 성취라는 말은 성서 한 곳에도 없는 말이다 성서와 하느님을 빙자하는 인간 사조직은 혹시 아닌지 여러분은 관찰하기 바랍니다. 거짓이 참으로 포장하는 것은 없는지……

깨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표현의 자유와 배교자란? 현증 성인들에게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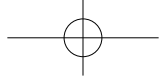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먼저 JW 청소년을 위한 조언방에서 스카이 블루님의 장문의 논리적 번역물을 보고 감동적이었습니다.

현증 조직의 개혁의 촛불이 되었으면…….

성서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했는데 한 가지 미신에서 자유화 된 것은 사실이지만 말과 견해 사상의 표현에서는 증인 조직에서 자유가 없다. 조직의 교리나 지침을 의심하거나 부정하거나 비판하면 배교자로 분류한다.

배교자란 성서적 의미를 모르는 말이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나를 버리고 배교하는 자…… 교리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대로 표현하는 것을 배교자라고 하지 않았다. 예로서 한 세대 (마태 24:34)을 계속 변경하는 지도자 어른들은 더 큰 배교자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성서 기록자의 생각을 인간 생각대로 마음대로 자주 변경한다면 본질을 완전히 다르게 해설한다면 하느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고 불쾌하게 하는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성서 신명기 18:20,21,22.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주재님께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그런 예언자는 죽어



야……라고 하셨다.

표현의 자유가 없는 것은 세계적 유일한 독제국가 북한 김정은 정부와 같다 왜? 부부 사이에서도 정권을 비판할 수 없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속내 마음 털어 놓을 수 없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기 때문이다. 증인들도 의심 부정 비판하면 소속회 중 장로들에게 고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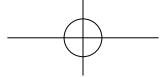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북쪽과 공통점 - 교리 비판하면 배교자로 몰아서 책망 지목 제명처분

이탈 탈퇴 = 탈북

책망 지목 = 수용소(아오지 탄광)

제명처분 = 숙청(사형)

현증 증인 분들은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말고 밖에 나와서 우물 안을 쳐다보며 생각들을 해보기 바라며…… 그러면 세상이 다시 한번 크게 볼 수 있으며 넓은 세상이 있구나…….



왕따와 징계에 대하여… 현증 아동 부모들에게

먼저 다리우스님께 “세상 밖으로” 영화 잘 보았습니다. 현증 청소년들이 많이 좀 보았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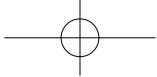
우리 자녀들이 친구의 생일파티 초대 때 나는 여호와의 증인이라서…… 거절할 때 어린 마음의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를 부모로서 연민의 정으로서 생각해 보았는가?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는 마음의 고통과 두려움도 한번쯤 생각해 보았는가 부모들에게 한번 묻고 싶다,

성서를 보면 생일파티와 관련된 불미스런 사건이 두 번 나온다.
(창세기 40:18_22, 41:18 마태14:6~11 마가6:21~28)

물론 안 좋은 내용의 기록이지만 이러한 기록이 있다는 것은 좋은 결과의 다른 생일 파티도 있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생일을 기억하는 것은 생명의 수여자이신 창조주 하느님과 진통의 고통으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효도를 하게끔 생각나게 하는 날로 기념하면 하느님이 과연 싫어하실까? 성서에서 생일잔치를 하지 말라 하라는 기록은 한 곳도 없다.

증인들도 1920년 중반까지는 생일 파티를 했다고 한다. 자녀들이



왕따로 친구들과 멀어지고 교제를 못할 때 얼마나 우울하고 두려움까지 갖지 않을까? 성인들도 이러한 모임을 통하여 일가친척과 교류도하고 왕래로 교제하면 이상한 종교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녀들도 우리도 일가친척이 있는 외톨이가 아니구나 하고 얼마나 기뻐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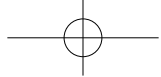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2014년부터 한국에서도 내 자식이라고 마음대로 학대하면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증인들이 그동안 잠언에서 징계로서는 죽지 않는다 하니 얼마나 자녀들을 징계가 도를 넘어 학대했는가? 나의 경험으로서도 2시간 집회 보며 화장실에 끌고 가서 매질을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무릎 꿇고 아버지가 그때는 무식해서 그랬다고 빌고 싶은 심정이다.

어떤 증인 집에서는 이름표 달린 징계막대기를 벽에 걸어놓고 자랑까지도 했다.

미국 사회에 가보면 먹는 음식도 어린이가 먼저 먹고 다음 자매들이 먹고 그 다음 형제들이…… 자동차도 어린이 보호를 위해 먼저 승하차가 끝나야 다른 차들이 움직이게 교통법을 만들어 놓았다.

의학적으로도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야단스럽게 개구쟁이로 놀아야 정상이고 만약 어른스럽게 조용하면 질병이 있는 것이다. 정신신경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현중 학부모들이여 연단에서 징계하라고 한다 해서 학대하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세계에서 광고 제일 많이 하는 회사는 증인 조직 아닐까? 누구를 위하여...? 누구의 지시에...? 효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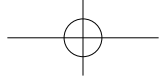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일주일에 5가지 집회에서 약 5시간 정도 결론은 봉사 야외봉사 비공식 전시대 문전연구 등 순회방문 6일간 특별대회 순회대회 지역대회 등 실연까지 보여주며 알바를 해도 주3일제 근무를 해도 봉급이 적은 회사로 옮기서라도.....오로지 강조는 정규 파이오니아.

수십 년 세뇌교육에 자신의 의식 없이 마약에 취한 상태처럼 로봇처럼 가방 들고 나가서 인도자 구역지시에 따라서 하는 말이 앵무새처럼 이웃을 방문하는 자원 봉사자... 이웃에 사는...

돌아오는 반응은, “필요없어요” “바빠요” “다른 데 가보세요” “믿는 종교가 있어요” 욕까지 하거나 소금 뿌리는 일도 있고, 집주인들의 무반응에 지쳐서 “2시간이 왜 안 가지?...”

땡 12시가 되면 노예에서 해방된 것처럼 기분 좋아 헤어지는 모습을 보고..... 과연 하느님을 위해서일까? 그분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

억지로 하는 봉사를 마태 24:14 28:19,20을 핑계로 대며 불법 주거 침입죄로 소송도, 불쌍한 아파트 경비원 목이 날아가는 사건도, 백화점 방승에서 구매 안 해줘도 좋으니 증인 봉사 할머니들 제발



나가 달라고도…….

조직이 얼마나 사려 깊음 없는지 65세 이상 노인 분들은 아주 추운 날씨가 더운 날씨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위험한 날은 봉사를 좀 자제하시고 조심하시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을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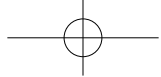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오로지 신기록을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숫자가 작은 곳이 참 종교라고 하면서…….

광고의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은 다단계처럼 보조 50시간, 정규 70시간, 특파 100시간 이상, 전도인 평균 10시간 이상.

3월 4월에는 특혜를 주는 것처럼 30시간도 보조로 인정…….

봉사보고도 인간에게 보이게 하지 말고 현금을 무기명으로 하듯이 무기명보고를 했으면 과장이나 거짓 보고도 없고 마음에 부담 없이 하느님만 아시게…… 인간의 머리털도 세시는 본인에 누가 얼마를 했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양심에 맡기고…….

봉사에 개혁을…… 봉사로 결집하지 않으면 조직이 와해될 수도…… 왜 강조 하는지 알고 해야 합니다.



물질주의와 양면성 누구인가?(7)

때가 단축되었기 때문에 “임시거주자”로서 욕적 욕망을 멀리하고 기본적인 생활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다. (파수대 2011년 11월 15일호 연구기사)

“현재 있는 것으로 자족하라, 자족하라 돈은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귀가 아프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서 JW조직 내부에서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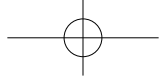
부의 확장을 위해서라면 담배회사, 무기회사, 부동산,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고 있지 않는가.

또 근래 광고 중 노후연금 양도성 예금증서 주식 채권 부동산을 현금 기부 기탁 신탁 유언 등을 협회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박하게 뿌리는 자는 박하게…… 풍부하게 뿌리는 자는 풍부하게 (고린도 둘째 9:6.7)까지 인용하며…….

과연 누가 물질주의자인가? 아마겟돈이 임박하다면 세계적으로 지부증축 거액의 투자 회관건축 등, 신세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이것은 거짓말이다. 아마겟돈 때 하느님께 기도해서 세계에서 최고 고층 빌딩은 파괴하지 마시고 협회용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면 될 수 있는데 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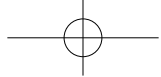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순진한 우리는 70년대 80년대 TV 냉장고 세탁기를 구입하고서
물질주의자로 손가락질 할까봐 가슴을 조이며 살았다.

어떤 형제는 누가 선물해서 할 수 없이 받아서…… 변명도.

소유욕은 동물이나 인간이나 동일하다. 하물며 개미 벌 쥐새끼도
내일 먹을 겨울준비 위해 저장 비축한다.

현중 성인들이여 악착같이 돈 벌고 저축하고 노후대책 필수적으
로 해야 한다. 국민연금도 들고…… 아무도 조직이 도와주지 않는
다.

세월 지나 후회하면 때는 이미 늦었다. 협회의 양면성 이중성에
속지 말라



“가두리 양식장”...? 현증 임원 지도자들에게.

가두리 양식장 물고기들은 주인이 주는 사료(항생제도)만 먹고 살아야 한다. 외부의 먹이는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다.

현 증인들도 조직에서 주는 일명 영적 양식만 먹고 살아가고 있다. 연단에서 나오는 연설, 파수대, 깨어라, 서적들 팸플렛 등...

심지어 목사가 주례하는 결혼식 주례사도 들으면 안 된다고 한다.(불참토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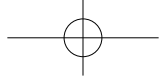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순한 양들은 그대로 따른다. 넓은 바다에 헤엄쳐 다니며 먹고 싶은 물고기도 마음대로 못 먹고 가두리에 사는 물고기들이 얼마나 불쌍하지 않는가?

왜 가두리 양식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할까?

북한 김정은 정권을 보면 이해가 빠를 수도... 체제유지를 위해서 “개방 개혁”을 제일 무서워한다. 그래서 외세 문화를 차단한다. 한류 영화 드라마 노래 등...

발각되면 총살될까 무서워서 이불 속에서 본다고 한다.

현증인 지도자들도 탈증인(일명 ‘배교자’)들의 말이나 편지 서적 특히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자주 광고에서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패션문화에도 신경 쓴다. 바지도 못 입게 하니까 치마를 숨기다가 감시원이 오면 치마를 내린다고 한다. 머리모양도 단속…….

증인 자매들도 자유롭게 추운 겨울에는 바지를 입게 하세요.
성서에도 단정하게 입으라고 했지 꼭 바지를 입지 말라는 기록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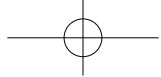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북조선에서 유일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자본경제 자본주의 문화 모든 유행에 대해 왜 눈감게 하는가?

증인들도 지금도 노래방 가서 유행가 부르는 것 허용 안한다.
협회 출판물 이외 세상서적도 금하는 분위기이다. 세상 철학에 물든다고…….

증인들도 몸은 자유지만 정신과 교육은 가두리 양식장 고기와 다를 바 없다.

한국 근대 역사도 보면 쇄국정책 폐쇄정치는 오래 가지 못했다.
인류 문화는 발전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모택동도 문화혁명으로 우민정책(무식정책)으로 지식인을 숙청하고 사형하고 한 결과 30년이 넘는 역사 후퇴를 가져왔다.
등소평 때문에 개방 정책으로 세계 제일의 경제 대국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증인 조직에서는 아직도 해외여행도 통제하고 있다. 예로서 2013년 10월 15일호 13페이지에서 세상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도처에서 “더 나은 삶을” 즐기라는 부추김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개인의 삶의 질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오로지 조직을 위한 야외봉사 봉사밖에는 무관심이다.

북한에서도 남조선이 행복하게 물질적으로 잘산다는 정보가 들어오니 수많은 탈북자가 동남아로 탈북 수십 년 삼대 세습에 거짓말에 속았다는 울분에 목숨 걸고 탈북이…….

증인들도 100년이 넘게 아마겟돈이 곧 온다고 하면서 얼마나 속았는가? 수많은 예언들이 단 한 가지도 성취된 것이 없다.

증인 지도자들의 거짓말들… 숨기는 것들에 대한 예는 협회 출판물을 조사해보면 「선포자」 책에서도 1914년 1925년 1975년 한 세대 교리 여러 번 변경하고,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도 한 번도 임명한 일이 없으며, 이 모두 자화 자작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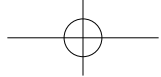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유엔 스캔들 물질주의 투자 지도자들의 소아 성추행 등 이러한 거짓에 속았다는 울분이 폭발한다면 탈북보다도 더 무서운 조직의 와해와 붕괴가 올 수도 있다.

왜? 진실과 참은 창조주 하느님 편이기에 좁은 문으로 가는 소수의 탈증인(일명 배교자)들의 정의로운 논리와 주장들이 세계적으로 승리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북한의 폐쇄정부도 붕괴와 와해가 멀지 않았다고 세계가 보고 있다.

지도자들이여 우리도 동일하지 않겠는가?

“큰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전도하지 말고 증인 조직에서 나가야 구원 받는다고 인도해야 할 때이다.



장로와 봉종은 성령의 임명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명이 아님을 스스로도 시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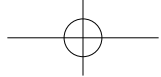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사람이 임명하지만, 성서적 (디모데 첫째 3:1—9, 12,13) 근거에서 임명한다는 식의 설명을 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수없이 성령으로 임명 되므로 절대적 순종과 복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성령으로 임명한다면 “해임 “도 성령으로 해야 맞지 않을까? 해임은 조건이 있으면 지방 장로회나 순회 감독자가 직권으로 하고 있다.

성령의 임명이 아니라 장로회와 순회감독자의 추천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로 추천 문제로 장로끼리 순회 감독자 사이에 감정싸움도 나는 수십 년을 보았다. 심지어 분쟁으로 지부 봉사부를 찾아가서 조정을 요구하는 사건들도 많았다. 사람이 임명하므로(전도서 8:9) 부작용이 일어나는 결과다.

왜? 성령으로 임명한다고 하는가? 성령으로 임명된다고 해야만 장로에게 절대적 권위를 부여해서 그들의 지시에 순종과 복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의 임명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 거짓으



로 포장한 표현이다.

2014년 1월 19일 파수대 연구 기사에서도 2600년 전 “아시리아 사람” 공격을 비교하며 대원들의 보호와 구출을 위해서 해야 할 역할 특권을 4가지로 강조했다. 계속 1월 봉사지에서도 장로들에게 순종 복종할 것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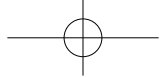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장로의 특권을 왜 강조하는가? 한 회중에 보통 큰 회중이라면 15명에서 20명이 넘는 곳이 있으니 장로 봉종 가족을 제하면 나머지는 얼마나 되겠는가?

또 왜 특권을 강조할까? 근대 역사를 보면 독재정권 일수록 정권 유지와 비밀 보안을 위해서 충성파가 필요한 것이다.

예로서 독일의 히틀러 구소련의 스탈린 북조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중국의 모택동 등 독재자들은 충성파에게는 특별대우 특혜 특권을 주는 것이 조직 보호 수단이다.

조직보호 유지확장을 위해서는 더 많은 충신자 정예부대 홍위병이 필요하며 양성해야 한다.

누구의 조직과 상통하는가 ?



블루 스카이님 귀하

안녕하십니까?

먼저 촌노의 글을 보시고 답글까지 주어서 감사합니다.

저도 님의 글 칼럼 청소년 조연 증인 돕는 방법론 등 읽고 깊이 있는 글에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보카페를 운영 관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탈증인들이 진실의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공간 정보카페가 존재한다는 것은 한국 조직에 큰 개혁의 불씨요 촛불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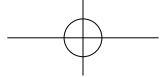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마음 같아서는 탈증인끼리 단체 등산이나 야외모임에서 식사라도 하면서 격려와 단합대회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현증들의 스파이가 참여할까봐 두렵네요…….

정보카페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현증들이 위선에서 거짓가면에서 속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세뇌된 관념에서 탈출하고 해방되는 날이 빨리 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얼마나…….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허상을 광고하듯이 현증도 영적낙원에서 행복하다는 허상에서 해방해서 현실과 실상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정보카페가 사명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속 수고를 부탁하며 님의 가족이 새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워치타워 협회의 재무적 문제의 궁금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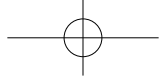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러더퍼드 이후에 종교조직과 재무 조직이 분리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러더퍼드의 후손이나 그 파벌과 공식적인 얼굴마담 역할을 하는 노어를 협회장으로 내세우면서 이원화된 것으로 보여지네요.

지방 회중의 회계보고는 공개하면서도 순회구나 지부, 본부로 이어지는 상급조직으로 갈수록 회계보고의 투명한 공개와 내역 소개는 점점 부실하지 않습니까?

들리는 소문에는 지난번 금융위기 때 투자금의 큰 손실이 있었다느니, 아동 성추행문제의 패소로 천문학적인 징벌적손해배상금을 냈다느니 말이 많습시다만 위로 올라갈수록 회계문제를 공개하지 않으니 알 길이 없지만 요즘 행태로 봐선 뭔가 큰 돈이 필요하긴 한가 봅니다.

혹시 협회본부의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 들으신 분은 없으신가요? 워낙 비밀스런 조직이라 알기가 쉽지는 않으리라 봅니다만.....



“파수대 연구”가 아니다

문답식이다.

연구라는 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객관성이 있는지 일방적인 생각인지 발전된 견해인지 깊이 있게 토론해서 사실 진리를 찾아내는 토론이어야 하는데 심지어 유치원생도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떻게 연구라고 할 수 있는가? 어른들도 어려운 내용인데…….

연구가 아니고 문답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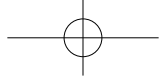
왜? 기록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범위 안에서 묻고 답하기 때문이다.

밑줄 긋고 대답하기…….

강제로 주입하는 교육방법에서 나온 말에 불과하다.

주입된 지식이나 교리도 변형 없이 그대로 따르므로 사법 재판이나 문제를 다룰 때도 몇년 몇월 몇일 몇페이지를 기준해서 처리하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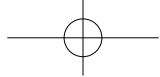
성경보다 우위의 상법이 되었다 군사정부 때 헌법보다 비상 조치가 우선법과 같이 되었다.



3~4살짜리가 연구 대답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은 격려가 아니라 모방 흉내를 잘했다고, 바보라고 욕하는 것과 같다.

연구는 의의도 반론도 비판도 열띠게 있어야 유익한 시간이고 재미있고 흥미도 있게 된다.

파수대 연구 시간은 그렇지 않다. 완전 일방통행이다. 그래서 줄린다.



하지 말라는 것이 많으면 바리새인이다 (11)

먼저 객관적 통찰님의 예리하게 조사하는 관찰력에 응원하며 표
현의 자유를 범죄 취급하는 무식한 장로들이 한심스럽네요.

하지 말라 안된다고 하는 수십 년간 관념들의 예들…….

녹용도 먹으면 안 된다 (멸치도 피가 있다)

순대도 먹으면 안 된다 (조리하여 생피가 아니다)

생일 파티도 해서도 초대해도 가지 말라

보신탕도 먹지 말라 (냄새난다고 피를 뺀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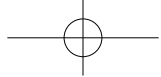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자매들 봉사 집회 때 바지 입지 말라 (베트남 집단자매들은 연구
갈 때 바지 허용…)

머리도 길게 기르지 말라

수염도 기르지 말라

태권도 유도 방어용 운동하지 말라

요가도 하지 말라



축일 이벤트도 하지 말라

어버이날 꽃다발 선물도 하지 말라

투표도 하지 말라

목사가 주례 서는 예식장에는 가지 말라

노래방에도 가지 말라(세상영에…)

성형 수술도 하지 말라 (모르게 가만히…)

부부 잠자리에서 ****도 하지 말라 (인권침해)

담배 판매 심부름도 하지 말라 (투자 이익은 왜 받을까…?)

세상 책은 보지 말라 (세상 철학…)

형님 자매님이라고 호칭 말라 (미국 중국은 제외, 한국 문법 어법은 아니다)

고등교육도 받지 말라 (이중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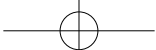
사업도 확장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고… 협회는 계속 투자하고…?)

학급 반장도 하지 말라

체육기능 특출해도 국가대표 하지 말라… 등 등 봉사의 종님 감사… 참 술잔 “부라보”라고 외치는 소리도 하지 말라 하네요.

왜? 세상과 다른 종교와 차별 위해…….

오로지 야외봉사에 결집을 위하여. 그리고 하늘에 보물만 많이 쌓으면 낙원 간다고……???



w1 지역 감독자의 연설

알면서 하는 연설인지 모르고 하는 것인지?

모르고 한다면 세계소식에 너무 무식하고 알고 한다면 성원들을 완전 바보로 보고 조롱하고 숨기는 쇼다.

내용은 담배는 “죽음을 파는 사업”이라고 했고, 또 천주교에서는 성직자들의 아동 성애나 폭력을 알면서도 자리만 옮겨주고 징계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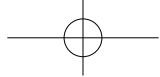
사람은 모두가 자기 잘못은 숨기고 남의 잘못은 확대 비판하는 본능인 것 같다. 자신은 유령회사를 만들어 투자한 담배 이익금을 몽땅 기부 받지 않았나?

아동성애문제는 호주 빅토리아주 영국 미국 등에서 지명수배까지 수천 건이 뉴스에 보도까지도…….

끌어다 붙이고 이용하는 예언도. 2600년 전 학계의 예언을 현대 증인을 두고 한 것이라고 하니…… 내용인즉 학개 2장 6,7절 진동하는 사건이 현대 증인들에게 예언한 것이라 한다. 왜? 800만의 증인이 수십억의 야외 봉사에서 진동을 일으킨다고……

성원들을 너무 무식하게 바보로 취급하고 가지고 놀린다고나 할까? 그래도 옳다고 박수치고 웃음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고 느끼
아……

진실을 숨기는 개인 단체 종교는 언젠가는…… 결과가?



특권이란?

특권(Privilege)이란?

개인 집단 국가기관에 대하여 인정하는 특별한 권리와 이익 또는 의무의 면제.

예 면제특권 면책특권 외교특권 불체포 특권 등이 있다. 특권의 의미를 오용하여 자원 봉사를 특권이라는 미명하에 노임 착취를 변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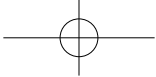
자원봉사의 특권이라 하여 지부건축에 3~4년간이나 자원봉사 RBC도 대회장 청소 등.

나도 열심일 때 청소자 명단에서 빠지면 왜 특권에서 빠졌냐고 항의도 했다. 서운하고 원망도 했던 기억이 난다.

보조P 정규P를 최고의 고생을 최고의 특권이라고 추켜세워 박수치고 축하한다고

과연 누구를 위한 특권일까? 조직 통치체 확장공사에..... 진정 하느님이 주는 특권일까?

하느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세계 최고 파이오니아 국가라고 광고 달마다 신기록 봉사라고 광고.....



농촌 형제의 아마겟돈 일화

어느 농촌에 가난한 형제가 살았다.

형은 무학이고 동생은 조금 배웠다.

배운 동생이 하루는 “형님 잠시 후에 아마겟돈이라는 큰 전쟁이 온답니다.”

형님이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노?”

동생이 “형님하고 같이 전도봉사를 해야 합니더…….”

“나는 농사일이 바빠서 안 된다 니도 알면서…….”

“형님 봉사 안하면 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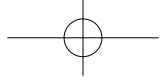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죽어도 우짜겠노 나라도 열심히 해라.”

그래서 동생은 외지로 멀리 전도 봉사를 갔다. 하지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아마겟돈 전쟁이 안 온다.

동생도 배고프고 지쳐서 형님께 돌아왔다.

형님 말씀이 “내가 전쟁에서 죽고 나서 와야 니 말이 맞지 벌써오면 우짜노?”

“형님 죄송합니다. 세월이 자꾸 거짓말을 하네요.”



아마겟돈 한 단어가 메가톤급 핵폭탄 위력…?

만약 계시 16장 16절에 아마겟돈이란 단어가 없었다면 지금쯤 어떤 상황일까?

여호와의 증인이란 조직이 지금까지 존속할까?

아마겟돈이란 단어를 편리상 “핵폭탄”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핵폭탄의 위력은……. 부부 사이도 부모와 자식 사이도 형제 사이도 친척까지도 피도 눈물도 없이 혈연을 잘라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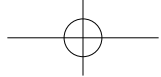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이 지구상에 이러한 조직 단체 종교가 또 있을까?

시한부 핵폭탄 위력에 전 생애를 희생한 자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될까?

개인적 재테크도 포기 전공 기술도 포기 고등 교육도 포기 오늘의 지족으로 내일의 준비도 연금도 노후대책도 포기…….

가문의 영광을 위해 옥살이 죽음과 평생 장애인으로……. 이혼과 별거도 불사하고 …….

핵우산 밑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공포와 두려움에서… 가족 모두가 살기 위해 가족봉사, 가족연구… 가족 여행이나 놀이는 사



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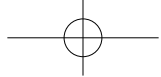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세상영이 무서워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 올챙이끼리 영적 낙원이
라고 노래하고 연합하고…….

1975년에는 메가톤급 핵폭탄이 투하된다고 미숫가루 콩가루 준
비해서 피난가기도 …….

병원 개인 사업자도 정리하고 산골로 피신도……. 수류탄 한 발도
투하되지 않아 다시 고향으로…….

그러면 통치체 어른들은 확신했을까? 아니다. 프랜즈 부협회장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고… 이미 이전에 앨버트 슈로더 의장
은 한 세대의 시작을 1957년 (마태 24:29.30)을 인용하며 연장 주장
을 하기도. 이에 대해 노아 협회장도 동의….

핵폭탄의 공포와 두려움은 누구에게만…… (다음 내용은 다음
에.)



... 핵폭탄 위력 연결 (2)

패배와 불가능을 알면서도 고지 점령을 위해 내몰아 치는 군대 지휘관과 같다 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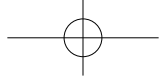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아군의 전력을 알면서도 죽어도 싸우고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강력한 교육 때문에……. 통치체 지위자들은 과거에 몇 번이나 핵폭탄의 투하를 예언했지만 없었기에 알고 있다.

그래도 약속한 체면에 ‘임박한, 구출, 지평선 상에, 어렴풋이, 문턱에, 코앞에’란 말로 순박하고 순진하고 무지몽매한 백성들은 그 말을 문자대로 믿고 신념을 고정하고 생활을 조정하며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는 무식자도 유식자도 미국 NASA 직원 형제도 예외가 없다.

얼마 전 뉴스에서 지식인 여 약사가 죽은 남편을 거실에 주무시는 상태로 7년 동안을 산사람처럼 인사하고, 살아서 활동할 것이라고 믿고 자녀들도 같이 행했다고 했다. 종교의 세뇌 교육은 무섭다.

선진국 미국에도 지금도 세상 끝이 가깝다고 산속에서 집단생활하며 자식들 학교도 안보내고…… 이런 종교가 있다고 한다.

핵폭탄의 위력의 피해는 불상한 노인네들이다. 어느 자매는 봉사



하다 죽으면 부활이 보장될 것으로 생각했는지 재방문 하는 세탁소에서 사망하시다 살아서 낙원 가야 한다고 추운 혹한에도 무더운 혹서에도 중국 미세먼지 주의보에도…….

노인 분들은 조심 주의를 위해서 봉사를 자제하시라고 한 번도 권유나 위로의 말 한 마디 없었다. 순회하는 감독자도 봉사시간 더하라는 격려만하지. …ㅎ…ㅎ… 봉사하다 죽으면 하느님께 영광이라고……. 아주 불효한 쌍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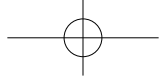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핵폭탄의 위력은 무조건 800만의 숫자를 유지 위해서 교리비판 부정적인 조직 불순종… 제명처분으로.

핵폭탄이 언제 투하될지 잘못 계산하고 있기에 아무도 모른다 고… 선각자이신 레이몬드 형제는 그 비밀 내밀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데 성공한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머리 숙여 존경한다. 비밀상자 속에서 영원히 잠들 기밀을… 통치체 모임은 지방 장노회의와 동일함도…….

하느님의 계시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800만이 알고 메가톤급 핵폭탄 투하가 없다고.

공포에서 해방돼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모두가 잘살았으면…… 소원.



Wish of Reform

정보카페 핵심 자료실에서 발표한 내용과 일부 반복되는 것이 있지만 이해하시고 현증들 분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기 몇 회 나누어 올리고자 합니다.

종합 자료를 정리해서 준비되면 ○○언론에 전면 공개 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좋은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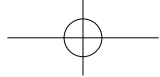
개혁은 시대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말일성도물문교도 말일이라는 종말론을 제거한 명칭을 사용하며 세계최고 보수 종교 단체인 천주교에서도 2013년부터 교황청 바티칸에서도 개혁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미국의 유명한 컨설팅회사 메킨저 K.P.M.G.에 위탁(계약)하여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폐쇄적이었던 회계검사 심지어 성직자 비리의혹까지 새로운 방향의 조직 운영방식까지 방법을 의뢰하고 있다.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WTS도 100년이 넘게 한 번도 개혁다운 개혁이 없었다. 인제는 협회 회계내역도 투자이익 손실도 법적 배상도 솔직하게 투명하게 발표하든지 가톨릭처럼 컨설팅회사에 의뢰하여 대대적 개혁을 할 때가 왔다.

예로서 불루클린 본부건물들을 왜 매각이 필요했는지 성원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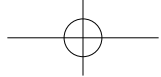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모르고 의아해 하고 있다.

우리 생각에는 본부건물들은 증인의 산역사요 산증언이기에 미래에 성지로서 순례하는 명소로서 영원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인제 진실한 개혁은 사실은 사실대로 발표하고 실수도 거짓으로 숨긴 교리도 고백하고 신도들에게 용서를 받을 것은 받고 사죄할 것은 사죄해야 한다.

자꾸만 점점 밝아지는 햇빛과 같다고 하는 시대는 지났다.

다음으로……



Wish of Reform (연속2)

“통치체”라는 말은 성서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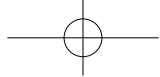
Governing Body 라는 어원은 왕권이나 식민지를 지배하는 권력을 의미하는 단어다.

성서에서도 통치하다(사무엘 첫째 8:9, 15:11), 통치자(다니엘 4:17 마태 20:25), 통치권(다니엘 4:3 .34 7:6), 왕권으로 의미할 때 사용했으며 1세기에서도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연로자들(사도 15:4.6)이라고 표현했지 예루살렘의 통치체의 지시에 따라서 결정했다고 하지 않았다.

신권이나 왕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인간조직에서 인간들이 말하고 지시하는 내용을 통치체에서 한다고 명하는 것은 너무 권위적이고 위압적이고 절대자의 명령과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통치체라는 용어는 여호와 증인 외에는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구 소련 공산당에서 1950, 1960년대에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기능 체제를 통치체라고 했다. 성서 어디에도 인간조직을 운영하는 조직체를 통치체라고 말하지 않았다.

감독자라는 어원도 위에서 아래를 보고 감시 감찰 참견하는 뜻을



의미하며 건축 현장이나 감옥에서 교도관이 결눈질로 감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왜 이러한 용어를 사랑과 겸손을 가르치는 조직에서 사용하는지 알 수가 없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과 겸허를 강조하는 성서 말씀과는 얼마나 상반되는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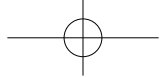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감독자라는 단어를 삭제한 한 예는 주임 감독자가 무슨 감투로 알고 분쟁하는 회중들이 있어서 조정자로 부르기로 했다

용어 단어 사용에도 개혁이 필요하다

“승인했다”는 단어도 말이 안 된다. 협회가 회관을 짓는데 전 시간 봉사자로 일하기로 승인했다고…… 원하지도 요청하지도 않았고 요구하는 자도 경쟁도 없었다.

“이러한 기구를 신설하고자 하오니 관심 가지는 분들은 지원해달라”고 도움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음 연속



Wish of Refom(연속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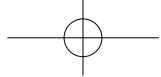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은 처음부터 임명이 없었다. (마태 24:45,46, 47)

1914년은 렛셀이 지상의 모든 왕국이 멸망하고 하느님의 왕국이 온다고 약 40년간 외친 해다 심지어 종교는 올무라고 피켓을 들고 도 휘장을 몸 앞뒤로 두르고 전파하는 때였다. 그러다가 과로인지 1916년 사망하셨다. 그러자 협회장을 두고 두 그룹이 치열하게 투쟁했으나 법률 고문인 러더포드파에 밀리고 렛셀 세력은 7명 중 4명이 잡초로 추방당하다. 1917년까지…….(와책 p67.68)

이러한 기간에 마태 24장 25장, 시험을 위해서 준비도 시험도 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시험에 합격하여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으로 임명받았다는 것은 시험시간도 모르고 있다가 시험도 안 치르고 합격했다는 것과 동일하게 되어버렸다

학교도 안 다니고 가짜 졸업장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되고 말았다

1914년 임재의 해를 1943년 29년이 지나서 소급 적용해서 오늘



날까지 사용하였다.

이처럼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으로 임명 받은 역사도 없는데 100년 가까이 도용하고 있다.

그래서 2013년 7월 15일자 파수대 연구 기사에서 모든 소유를 임명 받는 것은 큰 환난 때 있을 것이라고 애매하게 말했다.

솔직하게 잘못을 왜 시인하지 못하는가? 답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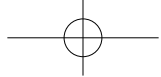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그러면서도 인류에게 주어지는 하느님의 모든 지시가 wt만 통해서 전달된다고 하니……?

“유일한 의사전달 통로”라고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 하느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증인 조직만이 진리의 조직, 여호와 조직, 보이는 지상 조직, 신권 조직, 영으로 인도하는 조직이라고……?

증거가 부족하면 이것은 자화 자작이다.

다음 연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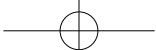


하느님이 증인 조직(지도자들)을 왜 미워하고 불쾌하게 생각하실까 ??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주체님께 내 이름으로 말하거
나…… 그런 예언자는 죽어야……(신명기 18:20,21,22)

하느님의 이름과 성서를 빙자한 내용들……

1. 1914년에 지상왕국이 모두 멸망하고 왕국이 온다고 즉 아마겟돈
이 온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한 나라도 멸망이 없었다.
종말이 없자 마지막 날의 시작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2. 1925년은 야곱 아브라함 욥 등 부활하여 지상 왕국통치를 도와줄
것이라고 벳사림(군왕 왕자들의 집) 짓고 별장으로 사용하며 기다렸
으나 부활도 지상 왕국도 오지 않았다.
3. 1975년에는 생명책 35 페이지에서 인간 존재 여섯째 날이 끝(초가
을)이고 일곱째 날이 끝나는 2975년(초가을)이라고 인쇄물로 공식으
로 발표했으나 인류종말 아마겟돈은 오지 않았다.
4. 1995년 11월 1일호까지는 깨어라 발행목적 란에서 1914년을 보
아온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평화롭고 안전한 신세계를 실현시켜 주
시겠다는 창조주의 약속이라고 했다가 갑자기 1955년 11월 15일호



부터 창조주의 약속이라고 한 1914년 단어를 삭제해 버렸다.

5. 러더포드는 1942년 사망할 때까지 지금 살아있는 수백만은 살아서 죽지 않고 지상 낙원에 갈 것이라고 했으나 자신도 죽고 말았다. 1984년 5월 15일호 (영문) 표지에서 1914년 세대 16명 (사진 게재)은 결코 죽지 않고 낙원 간다고……. 2008년에 마지막으로 “소파이유 니윳츠”도 사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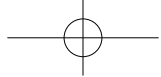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6. 성서 마태 6:3,4에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원칙에 의해 헌금은 무기명으로 하면서 봉사보고는 실명으로 함으로 전도인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서 이웃을 피곤하게 심지어 아파트 경비원 파면까지 가져오게 하는가?

7. 성서에서 세상 교육을 받지 말라 받아라 하는 말은 없다. 교육은 종교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다. 무식하고 가난해야 잘 순종 복종할 수 있으니 우민정책이다.

8. 양심적 병역 거부도 일부 있지만 전부는 아니다. 종교적 병역 거부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다. 왜? 전국 순회 특별 모임에서 거부가 성서적이라고 교육했다. 나도 참석해봤다. 절대로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다. 심지어 증인이 군대를 갔다 오면 아버지가 장로라면 해임 또는 한 지붕 아래 살면 안 된다.

이탈자는 제명자 취급…. 비충성자로 지목받는 것이 두려워서 가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다.

9. 증인교리에서 유엔을 붉은빛 짐승(계시록 17:16,17,) 멸망의 가증한 것이라고 가르치며 정치적 우상 앞으로 없어질 8째 세계강국이라 한다. 그러한 조직에 정식으로 1991년에 가입신청 1992년에 허가를 받았다가 영국 가디언 신문 2001년 10월 8일 자에 “여호와와의 증인 UN NGO에 가입 위선자”라고 보도하자 다음날에 탈퇴하다 UN대



표에는 당시 부협회장 Gino Aulicino였다.

10. 수혈거부도 시대 따라 원칙 없이 변해가고 있다. 1차 2차 분획된 피는 수혈을 양심 문제로... 적혈구에서 분획된 헤모글로빈(적혈구의 33퍼센트) 양심에 따라 할 수 있다고 했다.

11. 장로와 봉사의 종을 성령이 임명한다고 절대 권위를 부여하지만 인간 순회 감독자와 장로회 추천으로 각 지부봉사 위원들이 임명한다. 해임도 성령으로? 아니다. 인간적 감정으로 하는 예도 많다.

12. 표현의 자유와 제명처분도 협회 지도자는 1914년을 1957년으로 고치자고 정식공문으로 제출해도 제명당하지(사회자 위원인 앨버트 슈로더 의장) 않았다. 일반 전도인이 1914년 교리 부정하면 바로 제명이다.

13. 통치체라는 말은 성서에 없다. 사도 15:4 .6.에서도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연로자들이라고 호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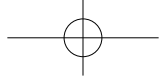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왕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표현을 인간 조직에 사용하는가?

14. 마태 24:45_47에서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을 언급한 바 있지만 하느님이나 예수께서 한 번도 임명할 기회나 사실이 없다.

1914—1918년까지는 럽셀파와 러더포드파의 치열한 두 그룹의 투쟁 기간이었다. 협회장과 주도권 다툼…….

성서와 하느님과 예수를 빙자해서 거짓말 속임수 변명 등을 하는 조직 지도자들을 얼마나 미워하고 불쾌하게 생각하실까?

두렵지 아니한가???



좋은 선물도 거절하는데 억지로 주면 실례가 된다

마태 24:14 28:19. 20에서 가서 전하고 가르치라고 명령했지만
찾아오는 것을 싫어하고 거절하는데도 주기적으로 찾아오면 전하는
자는 좋은 소식이라고 하지만 듣는 자는 싫은 소식이라고 짜증내고
화난다.

억지로 전하는 것은 큰 실례다.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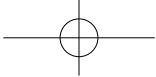
예수께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나에게 싫어한다
해도 계속 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사랑하라는 명을 여기면서도 다단계식으로 무임금으로 전도하는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인간 조직이 만든 시간 목표를 만들어 조직의 확장을 위해 이용당
하는 것도 모르고…….

한 달 70시간 50시간 무임금 강제 노동이다. 한 사람 증인 만드는
데 수십 만 시간을 바친다. 이것 순수 자연인이 아니다.

직계 2~3세대들이다. 방문 방법도 한 집도 빠짐없이 하는 종교는
증인밖에 없다고 자랑하지만 사실 전도하는 것이 아니다. 호별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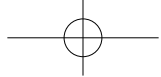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해서 주인이 있는지 부재중인지 조사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있어도 말 한마디 못하고 쫓겨난다.

무거운 짐을 지우는 봉사시간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시간
책임제보다 자유롭게 무기명 보고를 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에 어느 자매가 일반 교회로 개종해서 하는 말이 봉사보고 내
라고 안 해 너무 편안하다고 자랑했다고 했다.

얼마나 그동안 무거운 짐을…… 해방…… 평화…….



불쌍한 증인 애들에게……

묵직한 글 쓰고 간다는 애에게.

자신의 글을 올리며 묵직한 글이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겸손치 못하고 교만하게 조직에서 배우고 있는지 한심해서…….

이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 자기가 제일이고… 가두리 양식장 물고기가 되어 자기들이 먹는 사료가 제일 좋다고 하는 것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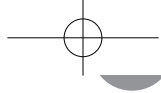
세상을 넓고 크게 보지 못하도록 교육도 못 받고, 우민정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붕어빵 교육이 얼마나 불쌍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고…… 장문의 글에서 조직을 대변하는 가벼운 말이 인간이 통치하기에 실수도 인정해야 한다고 그러면 신권 조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인권 통치라고 겸손하게 말해야지…….

자네들이 증인역사 약 140년간의 내용을 알고 하는 말들인지 1914년 전후 예언한 내용들을 알고 하는 말인지……

“때는 가까웠다” “천년기 새벽” “종말을 고한 비밀” 등 책을 보고 하는 말들인지도…….

이탈자들은 성서를 무시한다고…? 자네 너무 성서를 공부 안하고 하는 말이네.

신명기 18장 20 21 22에서.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말을 주체님께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 그런 예언자는 죽어야 한다. 그런데 네가 마음속으로 “어떻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지 알 수 있겠는가?”라고 말할 경우에 예언자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하지만, 그 말대로 되거나 이루어 지지 않으면 그것은 여호와가 한 말이 아니다.

그 예언자가 주체님께 말한 것이다. 너는 그(예언자)를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증인의 지도자들이 임의로 교리 변경이나 시대에 따라 변명할 때 하느님이 얼마나 불쾌하고 기분 나빠하실까?

거짓 예언자들을 죽이고 싶을 심정일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의 조직 유지 방법은 북한 정권을 알면 이해가 쉽다. 북한은 정책을 부정하거나 의심하거나 비판하거나 불순종 하면 무조건 아오지 수용소 탄광 요덕 수용소 숙청 총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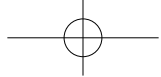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증인 조직도 마찬가지다.

조직의 기밀을 (UN가입) 폭로하거나, 1914년 교리 부정하거나 그 외 교리도 의심 하거나 불순종하면 배교자로 몰아 제명 처분하고 있다. 자네들이 알고 있는가?

글 쓴 자네도 보자 하니 나이도 어리고 증인 생활 역사도 없고 2세나 3세대 같은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깨어나기 바라네…….

불쌍한 인생 보내지 말고 고등교육도 받고 노후대책 위해 돈도 열심히 벌어서 저축도하고…….

10년 20년 후에는 오늘 내가 한 충고가 참말일 줄 알게 될 것이네.



나도 피곤해서 글 안 쓰려고 했는데……

한 인생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 연민의 정을 갖고 사랑하기에……

자네라고 표현한 것은 내 나이가 80을 바라보고 있네.

애들이라고 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식견들이 너무 모두 애들 같아서네….

여호와가 증인이고 증인이 여호와로 오인하고 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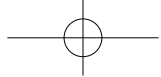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이러한 관념에서 해방되면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네.

모세시대부터 예수시대까지는 창조주 신이 개입해서 지시가 성서에 남아 있지만 그 이후는 인간들이 종교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마치 자기 조직에만 신이 개입해서 인도하고 계시하고 지시를 받는 것처럼 조장하고 있네.

신권통치 신권조직 아니라 인권통치 인간 조직이네. 증거로서 성서적 사도 15:4 .6에서도 “통치체”라는 말이 없네.

자네가 1914년 수혈 병역 문제는 시대 따라 변하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하니 다행이네.

나도 삼위일체신 영혼 불멸신은 안 믿네. 성서적이 아니니…… 집회도 가서 무엇을 잘못 가르치는지 봉사도 나가서 하는 방법이 무엇



이 문제인지……. 기원 일세기에 사도바울이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땅 끝까지 하라고 한 것이지.

지금은 자기 조직을 보호 유지 확장을 위해 무거운 짐을 계속 봉사회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네.

증인조직에서 봉사강조 안하면 아무런 존재 가치나 이슈 비전이, 결집력이 없어지네.

침례도 받고 무활동자가 활동자보다 세계적으로 더 많다는 것도 가치를 알아야지……. 침례장에 가보면 거의가 증인 2세 3세대들뿐인 이유를 알아야지…

낙원 문제는 증인만이 전도하는 목적이 아니네. 통일교도 안식일교도 재림교도 하나님교도 신천지도…….

아담 하와 원죄도 예수의 대속으로 아직까지 미해결이네.

우상은 증인 통치체가 우상이네 성서나 하느님보다 상위에 있으니. 통치체의 편지와 파수대가 판결의 지침의 기준임을 알아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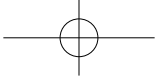
조직의 필요성은 뉴스에 나오는 구원파도 필요한 조직일까?

신명기 18장 20, 21, 22에 반대되는 조직은 필요한 조직이 아니네.

인간조직은 공동 운명체로서 공동 생명 유지를 위해 살기 위한 직업이고 직장이네.

자네도 어린 나이에 그 정도 생각을 한다는 것은 보통은 아니네.

머리를 들고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보게. 우물 안 개구리 가두리 양식장 고기로서 만족하지 말고. 사랑하네…….



양치는 방문은 거절해야 한다

왜냐?

장노들은 쇠뇌로 교육받은 의식 없는 저능아 로봇들이다,

왜? 성서 기준보다 협회편지 몇 월 며칠 호의 파수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판단력도 없다 지해도 없다 지식도 없다.

시키는 대로 하면 바보 로봇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거절하라 오지도 말라고 해라 집 안에 들이지도 말라,

스파이처럼 탐문 탐색도해서 순회감독에게 바로 고발도 서슴지
않는다.

바보 로봇들이 방문하기 때문이다,

경험에서 하는 글이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홀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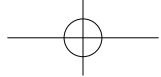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양의 탈을 쓴 고양이와 같다

장로들은 인간이 아니다. 재생 불가능한 로봇이다.

완장 찬 반장이다 하느님이 제일 미워하는 거짓말쟁이다.

욕이 한없이 나오지만 참고 기다린다.

약 장노 25년, 주임 15년 한 경험담이다.



촌로의 글에 격려와 댓글 감사합니다 미친 짓 많기도 했네요……

감정을 아무리 억제 자제하려고 해도 부족하네요.

저도 한때는 회중을 인도하며 하느님이 함께 하는 유일한 지상 조직이라고 생각하고 왕국회관 건축 사회자로 물질적 바보짓도 봉사 많이 하라고 미니 뺄스까지 헌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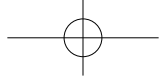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모든 희생이 지금 보면 미친 짓이었네요

공도 견학대절 뺄스도 종들 단합대회도 지리산 설악산 삼척 대둔산, 많기도……. 내 콘도 공짜로, 봉사 가면 점심은 도맡아…….

미친 짓 많이 했네요. 주임할 때는 봉사회 프로라도 달라고 90도 절도 받고.

지금은 입원해도 인사도 개 고양이 보듯……. 인간 교육이 이렇게…….

북한의 요덕 수용소가 무너지듯 불쌍한 인생들 해방을 하느님이 한시 바빠 해주소서. 기도 또 기도뿐이다. 나는 이미 나약해져서…….



현 지상에서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종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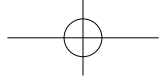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거짓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유들 모두 다 말하면 지면이 부족해서 조금만…….

1. 1914년 전 역사를 보면 약 40년간 지상의 인간 왕국들이 모두 멸망하고 하늘의 왕국이 설립된다고 자동차로 대형 스피카로 몸에 휘장을 두르고 라디오 방송으로 신문으로 팜플렛 광고로…….

아침으로 우리는 종교가 아니다. 만국 성서 연구생이다. 종교는 심지어 올무다. 그래서 종교 비판을 위해 라디오까지 허용을 해주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1914년에 국소적인 이전부터 전쟁의 위험성이 보였다가 마침 소 뒷다리에 쥐가 밟혀 죽듯이 1차 대전이 일어나니 예언이 성취 됐다고 거짓말을 하게 됐다.

2. 아마겟돈이 안 오니 또 거짓말 만들기 시작. 그것이 프랜즈가 1975년 초가을에 인류역사 6000년이 끝나는 해에 아마겟돈 온다고 책으로 발표, 또 거짓말. 그래서 1914년 세대의 측량 기점을 1957년으로 바꿔 보자고 공식 공문을 영감님들께 배부했지만 거부…….

3. 한 세대 교리가 계속 변경. 잠언 이용 점점 또 거짓말. 이제는 깨어라 발행 목적란에 하느님의 약속이 아리라고 또 거짓말로 전도인 모르게 살짝 없앴다.



4. 1925년도 웃지 못할 거짓말 쇼 .

러셀도 거짓말 스트레스로 1916년 사망. 러더포드도 1942년 스트레스와 독주로 사망.

5. 유엔가입도 하고서 오리발 거짓말 지금도 계속 중. 재테크 투자도 거짓말. 봉사보고는 일 년에 한 번씩 세계 활동 시간 발표.

협회 회계보고는 백년에 한 번도 무보고 무슨 거짓말을 할까?

6. 아마겟돈이 문턱에 왔다고 거짓말. 하느님이 보고서 거짓의 아버지를 두고 보실까?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방법이 궁금. 아마도 100근짜리 우박으로 거짓말쟁이 머리에 쏟아 붓지 않을까?

7.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고 5손가락 얼마나 사용했나? 스스로 거짓말이었다고 자인하고 모임 날짜를 없애고 있는가? 이것도 거짓말.

8. 세계적으로 장로들의 아동 성폭행 은폐 지시도 거짓해위 지금도 지명수배 국가도 가톨릭이 하면 음란 증인이 하면 로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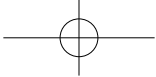
9.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있다고 충성을 요구하는 것도 거짓말.

왜? 1914~1918년에는 시험도 없었고 준비도 안하고 두 그룹이 싸움하는 기간. 합격했다고 자랑 시험도 안치고 거짓 졸업장 받다.

불쌍한 인생들 빨리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느님께 용서를 구해야지 살려면…….

북한의 백두혈통 고집하듯 같이 하면 같이 망합니다.

거짓의 애비는 사단 마귀입니다. 잘 알고 있지요.



아침부터 가족으로 오는 스트레스 풀기 위해 진실을 덜어가 보자

야외봉사를 강조하는 숨어있는 의미도 모르고…….

하느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더워서 쓰러져도 추워서 동상이
걸려도 거리로 집으로 직장으로 길거리에서…….

명령자는 한 톨도 손해 볼 것 없다. 무보수 무임금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켜야 한다고 하니 효과의 경쟁의 심리를 이용하고자…….

특파 정규 보조 세일 보조까지도(순회방문 기간 기념식 3, 4월) 다단
계 기법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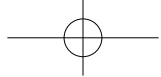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효율은 한국을 예로 들자면, 1 대 1, 1만 대 1, 10만 대 1도 안 된
다. 회관 가면 언제나 그 얼굴에 그 얼굴. 수십 년이 되어도 자연인
을 보기가 힘들다.

인터넷으로 말로는 막을 수가 없다. 세계가 하나인 세상……. 동
남아 및 일부 선진국은 전도인이 줄어들고 일본 미국 한국도…….

방법 거짓 없이 솔직해야 발전하지 숨기면 안 된다.

모르면 모른다, 솔직히 직시하는 하느님처럼……

인간미가 있고 사랑과 사려 깊음이 있어서, 연로자 병약자에게
는 ‘너무 더울 때는 봉사를 좀 쉬었다 하시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할



까?

봉사하다 죽으면 하느님께 영광이요 부활도 확실하다고…….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봉사회 프로, 실연, 서적연구, 신권학교, 공개강연, 파수대, 주 요점은 “봉사”, “봉사”, “왕국을 첫째로”…….

봉사에 신들린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자나 깨나 강조. 과연 이것이 창조주의 목적이고 지시일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올리나? 조직 인원 한 사람이라도 떨어져 나가면 채워야 하니까? 길을 가보면 전시대봉사 정자 밑에서 승용차 안에서 편이점 안에서 기다리는 모습 시간봉사 시간 뺑꾸 때우기 위해서 몸부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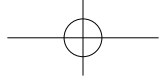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겉으로는 영적 낙원에서 즐겁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속이 타서 우는 모습 하느님께서 알고 계실 것이다.

목적의 의미도 모르고 순종하는 불상한 백성들 해방시켜 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조금 참고 인내하자.

무지한 북한 백성들이 백두혈통 찬양하고 춤추는 모습을 보며…?

참과 진리의 하느님이 승리하는 그날을 보고 죽었으면……

남북이 통일되는 날도 보고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의도를 알고 목적을 알면 왜 강조하는지……?

세계 유일한 호별 방문 철저히 하는 조직은 증인뿐이라고… 섬에도 산꼭대기에도 오지에도 창고에도 화장실까지도……

증인은 호별방문 강조 없으면 할일이 없다. 연단에서도 할 말이 없다.

성서의 좋은 말씀만 계속하면 식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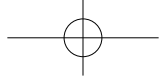
오로지 결집의 목적으로 유일함을 강조한다.

이유는 마태 24:14 28:19, 20 명령이라고? 아니다.

사도바울이 기원 1세기에 땅 끝까지 전하라고 했던 소식은 조직에 대한 결속이 목적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위해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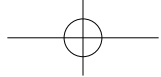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증인이 진정으로 이웃 사랑 구원을 위해서 한다면 지금 이 지구상에 영육간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먹을 것도 제공하고 정신적 희망도 주고 숙소도 제공하고 건강을 위해 우물도 파 주고 학교도 세우고 교육도 하고 문명의 혜택을 받도록 인터넷 교육도 어려운 나라에 가서 안 듣겠다고 하는 이웃에게 짜증나게 하는가?



자기조직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매우 이기주의다.
자기 확장을 위해서 보존을 위해서 유지를 위해서...
무임금 무보수 무일당이라고 마음대로 노동자의 입장 생각도...
이것은 사이비 조직에서 사용하는 수단이다,
로마 교황청처럼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사죄해야 발전도 할 수 있
다.

영원 존속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하느님께 사죄하고 신도들에게
도 사죄하고 속이고 거짓말도 버리고 새 출발해야 살아남는다고 충
고하고 싶은 심정...?...?



장로 추천 받으려면 걸리는 이유들

정규를 안 하면 장로임명이 어려워진다는 말을 듣고서...

장로 추천해본 경험에서 나는 느낀 점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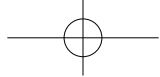
예들 성서적으로는 디모데 첫째 3:1—9를 기준으로 자격 심사를 해야 하는데 형식이고 개인적 감정이 제일로 이유와 조건을 만들어 할 수 없다고 고집하면 할 수 없게 된다. 심지어 순감 친척이라고 반 강제 추천도.

협회 기준도 없다. 어떤 순감은 봉사시간 부족이유, 어떤 이는 재방건수 부족, 연구건수 부족, 가족연구 부정기적 집회 참석 빠짐 등.....

후대부족 자녀 고등교육도. 유학은 더더욱. 가족이 함께 동거 안 하고 혼자 거주 자녀가 중립 안 지켰다고 군필한 자녀와 한 지붕 아래 산다고..... 가지각색.

어떤 순감은 은근히 자기 집에 공구가 필요한데..... 가구가 필요한데.....?

무시 못 하고 구입해서 선물로. 중고자동차도 선물했다는 소문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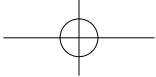
앞으로 순감이 장노 임명 해임권이 주어진다니 어떤 부작용
이......

전도서 8:9이 생각나네요.

경험들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장로하려면 소 앞에서도 예예하며 빌고 복종할 수 있는 알아도 모
르는 척하는 멍청이가 되어야 추천받을 수 있다.

복종은 약간 여유 있고 이유가 적다.



제명이란 제도를 왜…?

제명이란 제도를 만든 목적과 이유가 누구를 위하여……

한 인간을 완전 고사시키기 위함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조직을 떠나지 못하게 비인간적 고통을 주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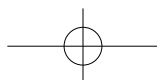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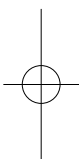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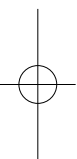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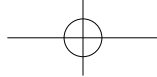
조직해명은 다시 영적 낙원으로 돌아오도록 한다고……. 경험담을 만들어 돌아온 기쁨을 자랑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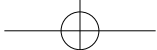
집회 끝에 노래 끝나면 남몰래 나가야 하는 인간적 비애 인권유린 따돌림 진정 사랑의 하느님의 바람이고 지시일까?

이탈자도 탈퇴자도 모두 제명자와 동일 취급.

부부와 가족사이 일가친척 동료 모두에게 적용 대화도 식사도 어떤 교제도 못하게…….

하느님이 생각할 때 기막힌 수단과 방법으로 인간사회에서 최고의 악질적 인간관계를 파괴토록 하는 인간조직이라고 불쾌하시고 야단칠 날이 올 것이다.





탈퇴서 (원본 동일 사본)

성명 ○ ○ ○

생년월일 19** 년 12월 *일

침례일 1974년 7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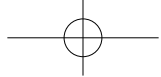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상기 본인은 자신과 자녀들의 영육간 건강 문제에 책임을 지고 더 이상 여호와 증인 생활을 이중적으로 할 수 없으며 성서예언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증인역사 140년간 예언한 것은 연대별로 단 한건도 성취된 것이 없기에 탈퇴하고자 합니다.

탈퇴이유 : (신명기 18 : 20 21 22, 낭독)

1) 아마겟돈이 온다는 이유에서 성서를 공부하여 침례를 받았으나 한 세대 교리가 너무 자주 변경되는 것에 실망과 기대를 할 수 없게 되었음 (2013년 7월 15일호 연구기사 파수대 큰 환난 세대 참조)

2)성령으로 임명 되었다고 수십 년 장노직을 수행해 왔으나 인간 순회 감독자가 앞으로 임명 해임도 할 수 있다는 편지 낭독을 듣고 그동안 임명도 과연 성령의 임명 (통치제) 이었는가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 (장노직 약 25년 주임직 15년간)

3) 내 자식 자녀를 내가 유학 보냈다고 양치는 방문을 한다고 위장 방문하여 순회 감독자에게 고발하여 특별 장로 모임(감독자 ***)을 갖고 해임 운운했을 때 항의 질문을 순회감독자와 전체 장로회 모임에서 이유를 알고 싶다고 하며, 자녀교육은 환경과 실력이 되면 보내는 것이 부모의 권리요 의무라고 하였으나 고등교육은 사단 마귀의 유혹이 될 수도 있다고 지난 순회 대회에서 프로로 다루었다고 하면서 항의와 반론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해임이 창피해서 신변 문제로 사임 하겠다고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배움은 종교에서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지금도 소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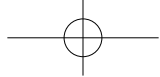
4) 지금도 건강 문제도 심각하다 (어지러움 두통 두중) 치료입원을 반복하고 있다 야외봉사를 1시간도 할 수 없다.

5) 본인은 탈퇴와 동시에 회중의 어느 누구와도 전화나 연락 면담을 일절 사절하며 가족의 어떠한 과장된 음모도 답변을 거절하며 스스로 결정하여 처리하기 바란다.

내 마음은 창조주 하느님만이 아실 것이다 탈퇴 후에도 생을 마감할 때까지 성서의 진리와 도덕성과 지침을 생활화 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며 창조주에게 불명예를 돌리지 않을 것이니 부탁은 배교자로 취급 발표하지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 ○○○ 장노회 귀중

2014년 7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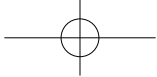
탈퇴서 제출 후 후유증……?

- 1) 짓눌린 몸과 마음이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 2) 지병이 있어도 봉사시간 1 시간이라도 해야지 하는 압박감에서 해방.
- 3) 집회에서 유익 없는 연설 안 들으니 마음의 가벼운 해방감
(옛 어른들 속언에 귀신 떡 갈라먹는 소리 한다)
- 4) 집회 시간 구애 없이 행동자유 사업자유 여행자유 .
- 5) 이방인 친구와 술도 한잔 대화도 소통
- 6) 이중생활 조직 부정 생각에서 자유 해방
- 7) 속이고 속고 살아가는 불쌍한 무리에서 해방 .
- 8) 육적인 몸도 가벼운 정신에서 오는 영향으로 회복이 나타난다.

나를 조직에서 탈퇴케 한 주요한 원인은 고 레이몬드 프래즈 (이전 통치체 성원)께서 통치체 지도자들의 영원한 비밀의 상자 판도라를 열어 세상에 햇빛을 보게 해주신 덕택이다.

그분의 위대한 정신에 박수를 보내며 영광을 돌리고 싶고 기회가 되면 홍상이라도 세워서 영원이 남기고 싶은 심정이다.

범준 | 2014.08.25. 19: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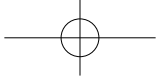
제3부

여호와의 증인 전 통치체 성원

레이몬드의 고백

※이 글은 여호와의 증인 협회 본부 전 통치체 성원 레이몬드 프랜즈와
일본 의사 무라모토 오사무와의 인터뷰 내용과,
레이몬드의 저술 「양심의 위기」의 일부 내용을 포함한 요약된 전기입니다.

인터뷰 내용을 포함한 레이몬드의 전기문이 사실이라면
그에 대해 대답해 주십시오.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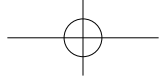
여호와의 증인 세계 본부 전 통치체 성원이었던 ‘레이몬드 프랜즈’가 통치체 내부의 기밀을 햇빛을 보게 세상 밖으로 끌어 내지 않았다면 여호와의 증인 지도자들(통치체)의 어떠한 숨김도 비밀과 실상들이 영원히 판도라 비밀 상자에서 잠들게 될 것이었지만, 하느님의 뜻이었는지 ‘레이몬드 프랜즈’의 용기 있는 폭로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에 하느님께 감사함을 먼저 돌려드리고 싶고 한 없이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레이몬드 전 통치체 성원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살아생전에 그와 인터뷰한 (의사) 무라모토에게도 수고에 대한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끝)

* 본 글에 실린 위치타워 출판물은 영어 및 일본어를 근거로 한 것이기에 한국어 출판물의 내용과는 다소의 상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용어들 (증인들이 신권적 용어라 부르는 단어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용어로 변경하였으며 한국 증인사회의 상식수준에 맞추어 일부 내용이 의역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호와의 증인은 편의상 영어약자 JW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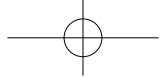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전 여호와의 증인 통치체 성원 레이몬드 프랜즈의 인생의 궤적과 그 신앙

취재 및 글 : 무라모토 오사무(村本 治)

소개말

이 전기는 여호와의 증인(Jehovah's Witness)의 최고 중추 기관인 통치체(Governing body)의 얼마 안 되는 일원으로서 전 세계에 있는 수백만 명의 여호와의 증인을 지도하는 출판물을 집필했던 레이몬드 프랜즈의 인생의 궤적과 신앙을 그린 것이다. 현재까지 레이몬드 프랜즈는, 여호와의 증인의 최고 중추 기관의 내부를 체험했기에, 그것을 외부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레이몬드 프랜즈가 1980년에 통치체를 사임했을 때 이 사건은 증인 사회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거기에는 그가 당시의 제4대 협회장인 프레더릭 W.프랜즈의 조카라는 사실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의 인생은 JW의 한 사람으로서의 전형적인 삶의 방법과 신앙을 보여주는 한편, 그가 조직으로부터 제명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워치타워협회 조직의 내부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 파란 많은 인생 체험은, 그가 저술한 2권의 책, 「양심의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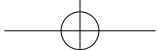


기」(Crisis of Conscience)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찾아서」(In Search of Christian Freedom)에 자세하게 진술되어 있다.^{##} 지금 이 전기에서는, 이러한 저작을 포함한 많은 자료와 레이몬드 프랜즈 본인에 대한 취재를 통해서 그의 인생과 신앙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통치체 성원으로서의 활동을 묘사한 부분에서는 「양심의 위기」 책 내용을 많이 인용했으므로, 필자는, 이 중후한 레이몬드의 저작을 영문으로 독파할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 그 내용의 개요를 간단하게나마 아는데 도움을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워치타워 종교의 밑바탕에 있는 것이 이유가 되어 워치타워에서 사라진 레이몬드 프랜즈의 신념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으로, 일본 증인들에게 생각할 양식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덧붙여 성서의 인용은 원칙적으로 워치타워 성서책자협회에서 발행한 신세계역을 사용했으며 워치타워 협회 출판물의 페이지를 인용할 경우 대부분 영문판에 근거했지만 일본어판 페이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같이 표시해 두었다. 이 전기를 집필하는데 특별한 협력과 격려를 해준 레이몬드 프랜즈씨와 로자린 휴즈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 페이지) 물론 그 이후 증인종교 내의 많은 감독자들이 뉴욕본부와 여러 지부에서 이탈하였지만 레이몬드는 현재까지 증인조직을 이탈한 최고위급에 해당하는 전 통치체 성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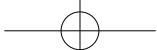
한국어로는 아직 출판되지 않았지만, <http://cafe.daum.net/christianfreedom>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성장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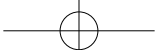
레이몬드 프랜즈(이하 레이라고 하는 애칭으로 부른다)는 1922년 5월 8일 신시내티의 강 건너 마을인 켄터키 주 데이턴에서 독일계 이민자의 가게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인 하먼 프랜즈는 철도 회사에서 비서와 사무일을 하고 있었다. 레이의 부모님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이었다. 그리고 그의 4명의 조부모 중 세 명이, 워치타워 협회의 초대회장으로 이 종교의 창시자인 찰즈 러셀이 주재한 워치타워 종교의 신자로서 나중에 여호와의 증인으로 불리는 「성경 연구생」이었다. 그의 부모님의 형제 중 어머니 형제 한 명과 아버지 형제 3명이 증인이며, 이 중에는 레이 아버지의 바로 아래 남동생인, 제4대 워치타워 협회 회장인 프레더릭 프랜즈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4명 가운데, 아버지 쪽의 가장 젊은 숙부 알버트는 1925년의 예언이 빗나갔을 때 이 종교에서 멀어졌다. 레이에게는 두 명의 누나가 있고 양쪽 모두 JW으로서 자랐다. 바로 위의 누나는 워치타워 협회의 선교인 학교인 길르야드 학교를 졸업한 후에, 브라질에 봉사자로서 파견되었지만 나중에 워치타워 종교에서 떨어져 나갔다. 또 한명의 누나는 현재까지도 JW이며, 그는 정기적으로 인사편지를 쓰고 있지만 한 번도 답장을 받았던 적이 없다고 한다. #

JW종교는 조직을 이탈한 사람과 사상적 이유로 제명된 자를 이른바 배교자로 낙인찍어 성령을 거스른 자 또는 배신자로 배척한다. 우연히 지나친다 해도 가벼운 인사조차 할 수 없으며 가족간의 교제도 최소화(사실상 단절로 유도)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이 지침을 어긴 사람에게도 충고 또는 책망 등의 사법 처분이 내려진다.



레이는 일찍이 고등학생 시절부터, 집에서 집으로의 전도(호별 방문)를 한 주에 20시간에서 30시간을 하면서 길거리에서 잡지와 전단을 나눠주거나 하는 열렬한 위치타위의 전도인(신도)이었다. 1938년에 16세였던 그는 그 해에 집에서 가까운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열린 JW의 대회에서 당시 제2대 협회장 조셉 러더포드의 연설을 런던으로부터 라디오 전화를 통해 듣게 되었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그때 이래로 조직이 구원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증거사업은 결혼이나 출산 등의 개인적인 관심사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JW의 활동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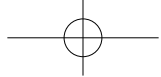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1939년 1월 1일에 침례를 받은 후에, 1940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대학교육을 추구하는 일 없이 즉시 전 시간 JW의 활동에 들어갔다. 그때에 전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에 돌입하고 있었고, JW은 전쟁참여거부, 국기경례거부의 입장 때문에 각지에서 박해를 받았다. 그 해에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JW의 대회에서는 세계 종말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었다. 러더포드 회장은 이것이 큰 환란 전 마지막 대회가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그 해 가을에 여름옷을 처분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다음에 여름옷이 필요하게 되기 전에 아마겟돈이 오든가 혹은 큰 환란 시대에 접어들어 강제 수용소라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전시중의 종교박해 체험

레이 자신은, 미국에서 극심하게 행해졌던 1940년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박해를 눈앞에서 체험하고 있었다. 그 해에 그는 동료 JW에 대한 선동죄의 재판에 참석해서, 유죄판결 후에 폭도에 의해 못매가 될 뻔한 경험을 강렬한 인상으로 기억하고 있다. 더욱이 그 후에, 그는 75명의 회중 내 증인들과 함께, 집단에서 오하이오주 신시내티로부터 인디애나주의 코나스빌에 나가, 당시의 워치타워 협회가 합헌성을 제기했던, 집에서 집안의 전도(호별방문)의 권리를 행사하는 활동에 참가했다. 이 결과 레이를 포함해서 일단의 증인들은 일주일간 감옥에 투옥되었다. 이 젊은 시절에 당한 폭행이나 투옥에 의한 종교 박해의 생생한 경험은, 스스로가 하느님을 실제로 섬기고 있다고 하는 그의 확신을 더욱 강하게 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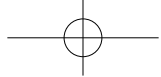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그는 그 후, 집에서 나와서 다른 동세대의 증인과 돌이서, 동부 켄터키주와 웨스트버지니아주의 탄광 지대에서 전 시간 파이오니아 봉사자로서 전도 활동을 계속했다. 레이는 여기에서도 매일같이 박해의 위협에 직면하는 일이 계속됐다. 분노에 찬 집단에 둘러싸였다가 간신히 도망간 적도 있었다. 그 당시 그는, 이러한 박해를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 속에 있는 뿌리 깊은 종교적 불관용을 가슴에 사무치게 느꼈다. 레이는 그 당시, 자신의 몸에 40년 후에 닥치는, 워치타워 종교내의 불관용의 폭풍우를 예상할 방법도 없었고, 자신은 그러한 종교적 불관용이 없는, 워치타워 조직에 속해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느끼고 있었다고 한다.



1941년 여름이 왔지만, 레이의 기대와는 반대로 아마겟돈[#]도 큰 환난도 오지 않았다.^{##} 그는 그 해에 세인트루이스 대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이것이 러더포드 회장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대회가 되었다. 대회 마지막 날, 러더포드 회장은, 5세부터 18세까지의 아이들을 연단의 맨 앞자리에 앉게 하였고, 결혼을 하는 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성서에 등장하는 고대 충실한 사람들이 부활하여 나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설득하며, 「어린이들」(Children)이라는 제목을 붙인 새로운 책을 나눠주었다. 이 책은 존과 유니스라고 하는 약혼중인 젊은 JW 커플의 이야기였다. 이 두 등장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혼해서 가족을 만드는 것은 수년 후에 오게 될 새 질서가 되고난 뒤로 미룰 것을 권유받고 있었다. 당시 19세로 독신이었던 레이는, 흥분과 낙담이 뒤섞인 복잡한 기분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 해, 임박한 아마겟돈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그 해 9월의 「파수대」지는 “아마겟돈까지 남아있는 몇 개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러더포드는 곧 그 다음 해 1월 8일에 사망하였고 예상한 아마겟돈은 끝내 오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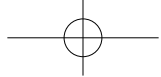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성서 계시록에 나오는 현 세상 종말의 날, JW들은 이날 하늘의 왕국이 사탄마귀를 잡아 가둘 것이라고 주장한다.

JW조직은 100여 년의 그들 역사 속에서 많은 종말 예언을 반복해 왔다. 1980년대, 1914년, 1925년, 1940년 그리고 1975년과 1990년 전후, 세상의 종말 즉 아마겟돈이 가까운 것처럼 긴박감을 심어주었지만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고 그때마다 교리(지침)을 변경하면서 신도들을 독려해 왔다.



레이는 나중에, 워치타워 협회의 임원이 된 후에, 당시에 러더포드가 그러한 긴박감을 부추긴 이유를, 차기 회장으로 숙부에 해당하는 프레더릭 프랜즈로부터 들었다. 그것은 러더포드 자신이 그 시점에서 말기 암이었고, 자신이 수개월의 생명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서, 어떻게든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에 아마겟돈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강한 소망이 그를 그와 같은 긴박감을 부추기는 기사나 연설로 몰아갔다고 하는 것이었다. 한편 당시에, 러더포드의 권고를 따라서, 결과적으로 결혼 적령기를 놓쳐 생애를 독신으로 보낸 여호와의 증인이 다수 나왔다.

1942년에 레이는, 오하이오주 웰스톤에서 특별파이오니아가 되어 전파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는 협회 본부로부터 지급된 최저수당만으로 극한의 오하이오의 겨울을 견디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마을에서도 JW에 대한 박해는 끊이지 않았다. 1944년에는 레이는 5개월간, 협회의 선교학교인 길르앗 학교에서 선교 훈련 코스를 밟았다. 그 후 일년 반은 순회감독자로서 애리조나와 남 캘리포니아의 회중들을 순회하였다. 이전에 그는 샌디에고에 있는 뱃사람이라고 부르는, 워치타워 협회 소유의 러더포드의 별장에도 머물게 된다. 러더포드는 처음에 이 대저택을, 머지않아 부활해서 나오게 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고대의 충실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협회의 자금을 사용하여, 이러한 성서의 등장인물들 명의로 구입했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은 러더포드 자신의 별장으로서 그의 사망까지, 오로지 그 자신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었다. 그는 이런 저택에 머물면서, 성서에서 읽은 고대의 인물들이 이런 대저택의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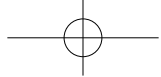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양식을 정말로 기뻐할까 하는, 소박한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카리브해 제도에서의 지부감독 시기

1945년, 레이는 「기름부음 받은 자」 중 한 명이 된 후에, 1946년, 당시의 제3대 위치타워 협회장 노어로부터 푸에르토리코의 지부 감독자로 임명되어, 카리브해의 섬나라에 단신으로 부임했다. 그는 열대섬나라 특유의 병에 시달리면서 8년간을 수도 산후안의 선교사의 집에서 보냈다. 그 후 여행하는 감독자로 임명받아 인접한 버진제도나 여호와의 증인이 금지되고 있던 도미니카 공화국으로도 수차례 여행하였다. 이 여행은 주로 파수대 잡지를 이 금지령하에 있는 나라에 밀반입시키는 것이었지만 어떤 때에는 당시 독재자와의 면접을 통해 위치타워의 금지령을 해제해줄 것을 청원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1957년에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증인에 대한 탄압이 한층 악화되어 수많은 증인들이 박해받고 투옥되었다.

1959년에 레이는 현재의 아내인 신시아와 푸에르토리코에서 결혼했다. 이것은 협회가 지금까지의 방침을 변경해서, 선교인으로 파견된 사람도 결혼을 해도 상관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는 결혼 후에도 푸에르토리코를 담당하는 여행하는 감독자의 직무를 계속했다. 레이와 그의 아내 신시아는 여행처의 미개척 섬에서의 비위생적인 생활환경에 계속 시달렸다. 오염된 물, 상한 음식, 바퀴벌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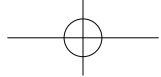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취와 같이 지낸 탓에 아내인 신시아는 심각한 위장염과 기생충증을 앓은 적도 있었다.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 그 후의 신시아와 레이의 건강 상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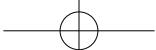
1961년에 그는 독재정권이 무너진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임명받았다. 5년간의 그의 지부 감독자로서의 임기 중에, 이 나라는 정치적 불안정이 반복됐다. 그러다가 1964년에는 다시 길르앗 성서학교에서 10개월간의 훈련을 받았다. 이 때 그는 처음으로 노어 회장으로부터 브루클린 본부에서의 근무를 제안 받았다. 하지만 레이는 도미니카공화국 지부에 남겨진 일 때문에 일단 도미니카로 돌아오게 된다. 1965년에는 도미니카에서 내전이 발발했지만, 레이와 여호와 의 증인 선교인들은 미국 본국으로 피난하지 않고, 내전의 한가운데서 이 고장에 머무르면서, 문자 그대로 총탄이 난무하는 가운데 간신히 위치타워 지부의 존재를 지켰다.

브루클린의 집필 부문의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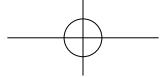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1965년에 레이는 회장 노어의 지시에 따라서, 20년간의 카리브해 섬들에서의 임무를 끝내고 뉴욕 브루클린의 국제본부(이곳을 “베텔”이라고 부른다)에 초대받아 집필분야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는 처음엔 카리브해 섬들에서의 선교 활동에 만족하고 있어서 이 중요한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신청했지만 이것은 노어 회장의 불만을 사게 되었다. 결국 그는 노어 회장의 지시에 따라서 뉴욕 본부로 이사가게 되었다.



레이가 브루클린에 도착한 후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그에게는 노어 회장에 의해 협회의 성서사전을 편집하는 중대한 임무가 주어졌다. 이 임무의 시작은, 그 당시에 이미 모아지고 있던 방대한 원고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원고는 전 세계의 여호와의 증인 약 250명에 의해 분담 집필된 것이지만, 그 집필 분담은 단지 협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할당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필자는 사전을 집필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없었으며, 조사방법조차도 몰랐다. 이러한 기존원고의 적어도 90퍼센트 이상은 온전히 사용할 만한 것이 아니어서, 다시 새롭게 집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처음에 단독으로 이 사전의 집필을 시도했지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협회의 이사이며 나중에 통치체 성원이 된 라이먼A.스윙글과 길르앗 선교 학교의 교무 주임인 에드워드 덴 랩이 이 기획에 더해졌고 그에 더해 두 명이 함께해서 모두 5명의 팀에 의해서 이 편집 작업은 계속되었다. 레이는 이 일에서 중심이 되어 많은 기사의 조사와 집필에 그 후의 5년간을 소비했다. 이 방대한 일은 1970년에, 1696페이지의 분량에 다다른 위치타워협회의 성서사전, 「성서 이해를 위한 보조서」(Aid to Bible Understanding)가 되어 결실을 맺는다. 이 사전은 그 후에 1988년 「성경 통찰」(Insight on the Scriptures)이라고 하는, 현재 JW이 사용하고 있는 2권의 성서 사전으로 옮겨졌지만, 그 내용은 레이가 편집한 「성서 이해를 위한 보조서」를 단지 수정하고 많은 도판을 더했을 뿐이며, 현재 JW의 지식의 보고(寶庫)로서 전 세계에서 애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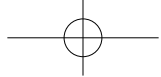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이런 5년간에 걸친 성서 사전의 집필, 편집, 조사 작업은, 그에게 새로운 경지를 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는 노어회장의 지시를 받아서, 협회의 출판물에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정보원을 사용해 성서의 항목의 해설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것들 중에는, 일반 JW이 손에 넣는 일도, 대충 훑어보는 일도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리스도교국이 출판한 많은 성서 사전이나 주해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레이는 이런 「큰 바벨론」이라고 경멸적으로 불리고 있던 그리스도교국이 출판한, 말하자면 「적측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에 처음엔 주저하는 맘을 억누르지 못했다. 그러나 의외로 노어 회장은 그것에 대해 아무 망설임도 없는 모습이었다. 레이는 이러한 주해서를 조사하는 것에 따라, 이러한 많은 출판물의 내용이, 어떤 경우엔 한 세기 이전에 쓰여진 것이면서도, 정확하고 신빙성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워치타워 협회의 수년 이내에 어지럽게 바뀌는 출판물과는 완전히 다른 이러한 서적은, 레이의 눈을 뜨게 하였다. 그는 그때까지는 이와 같이 성서를 깊이 연구할 기회가 없었고, 또한 성서의 이해는 항상 협회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의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 레이의 성서에 대한 견해가 이것으로 인해 하룻밤사이 변화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 후 몇 년 간의 연구를 통해, JW에게는 거의 없는 성경에 대한 통찰을 배워간다. 그는 이 과정에서, 성서를 전후관계 안에서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 성서 단어의 의미는 성서 안에서 찾아내야 한다는 점 등을 재차 인식했다. 그리고 그는 성서를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의 원문으로부터 읽는 것의 중요성도 배워갔다.



그는 이 조사의 과정을 통해, 몇몇 협회의 가르침이 성서의 정확한 해석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를 들면, 「연로자, 장로」와 「감독자」라고 하는 항목의 집필에서는, 일세기 당시에 회중은 장로가 그룹(會)이 되어 인도했으며, 모든 장로가 감독자로 책임을 맡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1932년 이래, 러더포드 회장의 지침을 바탕으로 장로 그룹이 해산당하고 그것을 대신하여 협회가 직접 임명한 「봉사 지휘자」가 단독으로 지도한다고 하는, 그 당시까지의 협회의 제도와는 완전히 차이가 났다. 레이는 이 점을 회장인 노어와 부회장인 숙부 프레더릭W.프랜즈에게 지적했지만, 두 사람 모두 가까이 임박한 최후의 대결전까지는 이 체제를 계속해 가려는 자세였다. 그러나 수년 후에는 레이의 진언이 받아들여져 이 제도는 변경되었고 회중은 다시 장로회에 의해 인도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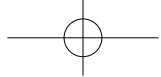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그는 그리고 많은 역사적인 항목에 대해 조사, 집필을 해야 했다. 「연대 계산」의 항목은 27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기사였지만, 이 조사와 집필은 그리고 레이에 놀랄 만한 사실을 분명히 해주었다. JW교리의 근간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1914년에 누가 21:24에 진술되어 있는 「이방인의 때」가 종료되었고 그 해에 예수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통치를 보이지 않는 형태로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가르침의 근거가 되는 것은 다니엘 4장의 「일곱 때」가 2520년을 의미하며 그 「일곱 때」는 기원 전 607년부터 계산되어 1914년이라고 하는 연대가 산출된다는 것이다. 이 607년이라고 하는 해는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네부카드네자르)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된 해이지만, 레이는 이 607이라고 하는 숫자가 웬일인지, 위치



타워 협회 출판물에서만 나오는 뭔가 협회특유의 숫자라는 사실을, 희미하게 깨닫고는 있었다. 그러나 그 시점까지는 특별히 깊이 있는 조사를 한 적이 없었다.

이 「연대 계산」이라는 방대한 기사의 집필을 할당받아서, 그는 몇 개월 동안, 고대사의 문헌이나 자료를 조사하여, 어떻게든 협회의 기원 전 607년이라고 하는 해를 지지하는 역사 자료를 계속 찾았다. 그는 집필 부문의 비서를 사용해 뉴욕 내에 있는 도서관을 찾아다니게 했지만, 협회의 연대를 지지하는 역사자료는 아무것도 발견해 낼 수가 없었다. 반대로 모든 자료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바빌로니아 제국 왕으로서의 즉위가 기원 전 607년이라고 하는 연대보다 훨씬 일찍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고 예루살렘의 멸망은 협회가 가르치는 연대보다 20년 후에 일어났다는 것으로 일치하고 있었다. 레이는,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덴스에 있는 브라운 대학의 고고학 교수로서 고대 설형문자의 권위자인 아브라함 삭스 교수를 방문해 이러한 협회의 연대를 뒤집는 많은 사료에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어 그것을 불신할 수는 없는가를 질문했다. 이 회견에서 밝혀졌던 것은 그에게 있어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다. 워치타워 협회가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기원 전 607년에 함락했다는 것이 사실이기 위해서는, 고대의 서기들이 서로 가리키는 많은 설형문자로 쓰인 문서를, 일제히 똑같이 고쳐 적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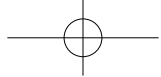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당시에 레이는 협회 연대 계산이 이러한 압도적인 사실 앞에서도



올바른 것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계속 믿고 싶었다. 그 결과, 그는 그 “연대 계산” 항목의 집필에 즈음해서는, 할 수 있는 한 이러한 협회에 있어 불리한 사료의, 약점이나 문제점을 크게 채택해 당시의 고고학 자료의 신뢰성을 흔드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협회의 기원 전 607년이라고 하는 연대를 지지하는 것처럼 쓰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의 속마음에는 무엇인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 것이 있었다. 레이는 그 밖의 항목의 집필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나라들의 지정된 때”(이방인의 때), “충실하고 슬기로운 중”, “큰 무리”등의 항목의 집필에서는, 똑같이 성서나 자료의 해석에 협회의 독특한 가르침을 지지하는 것처럼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한편 그는 비록 불완전하긴 하지만 이 「성서 이해를 위한 보조서」 책이 사물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객관적인 견해를 증인들 사이에 배양시키는데 다소의 역할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통치체로의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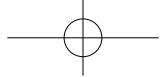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1970년에 5년간에 걸친 성서사전 집필과 편집이 완성되어 발행된 해에, 협회는 통치체 구성원을 지금까지의 7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 해 10월, 레이는 다른 3명과 함께 통치체 성원으로 임명되었다. 이제 앞으로 9년간에 걸쳐서, 그는 이 종교 조직의 최고 중추 결정기관의 내부에 있으면서, 수백만에 달하는 전세계 JW의 일상생활과 생사를 컨트롤 하는, 협회의 운영과 방침결정 과정에 참여해 나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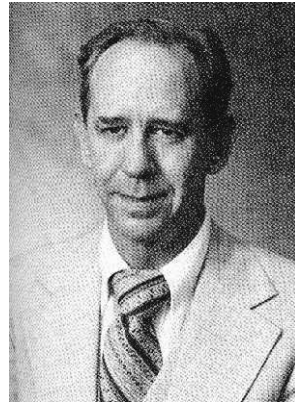
이 통치체라고 하는 기관은 JW의 교리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 교리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 반열 (마태 24:15-47에 나오는 예수의 비유적 이야기에서 유래)이라는 소수의 증인을 임명했고 그분의 “양”들인 일반 증인들의 지도와 관리를 맡겼다고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소수의 선택된 여호와와의 증인이 “기름부음받은자들” 중 “남은자들”이라고 불리며 그 중에서도 일부 소수가 선택되어 통치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치체라고 하는 개념도 존재 자체도, 이 종교의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는 레이가 통치체에 참가하기 이전에 어떻게 통치체라는 것이 발전해 왔는지를 먼저 보자.

제1대 회장 러셀, 제2대 회장 러더포드 시대에는, 이러한 다수의 JW으로 구성되는 결정기관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모든 결정은 회장의 최종적인 독단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1942년에 러더포드 회장이 사망한 후에, 네이션H.노어가 제3대 회장으로 그 지위를 계승했고 얼마 되지 않아 통치체라는 말이 워치타워의 출판물에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에는 7명으로 구성된, 워치타워성서책자협회의 법인이사회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것은 다음의 1955년의 「봉사자가 되기 위한 자격」 책 381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써 있는 대로이다.

‘주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이후 몇 년 동안에, 법인의 이사회가 눈에 보이는 통치체라는 점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올 때 까지 이 이사회는 회장아래에 있던 종속적이고 형식적인 단체였으며 이사회가 중요한 결정을 회장과 독립적으로 결의한 적은 없었다. 예를 들면 당시의 중요한 협회의 기획인 워치타워협회 독자적인 번역에 의한 성서, 신세계역 성경의 번역과 출판에 관해서도 그 최종 단계에 이를 때까지 이사회는 그 건



브루클린 본부시절의 레이몬드

에 관해서 듣지 못했고 순전히 그 기획은 노어 회장과 프레더릭 프랜즈 부회장간에 진행되었다. 중요한 교리의 변경에 관해서도 이사회가 거기에 발언권을 가지진 않았고 주로 노어 회장의 지식 면에서의 전면적 보좌를 하고 있던 프레드릭 프랜즈 부회장이 회장의 이해를 구하면서 진행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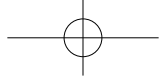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통치체의 권위와 내부개혁

그러나 레이가 통치체로 들어온 1970년 이후에 이 체제는 재검토된다. 그가 통치체 성원으로서는 맡은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통치체와 워치타워 협회 법인체와의 관계를 재검토해서 지도 체제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었다. 그는 다른 통치체 성원을 포함한 4명과 함께 「5인 위원회」를 형성해 성서에 근거한 여호와의 증인의 지도 체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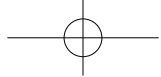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개혁에 임했다. 그 시점에서의 큰 문제는, JW 전체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최고기관이어야 할 통치체가, 법인으로서의 법적인 단체인 위치타위협회 즉 그 법인의 회장과 이사회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인가였다. 레이는 이미 통치체에 참가하기 이전부터, 「성서 이해를 위한 보조서」의 집필, 편집을 통해서, 성서에 그려져 있는 초기의 그리스도인 교회에는, 한 사람의 독재적인 체제는 없었고, 그룹에 의한 지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여, 그것을 부회장에게 진언했던 사실이 있었다. 이것에 근거한 변경은 1972년에 실시되었다. 그 결과 회중의 종이 혼자서 회중을 관리하는 체제로부터, 현재의 장로회와 봉사의 종에 의한 집단적 지도 체제가 확립된 것은 이 때였다. 따라서 레이는 이 체제가 여호와의 증인 전체의 체제로서 최고 지도부에도 확립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레이는 5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부직원이나 통치체의 구성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했다. 그런데 레이가 경험했던 것은, 많은 베테랑으로 불리는 본부 직원들이 협회회장으로부터의 상위하달식이며 일방통행식인 운영에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본부 직원의 사기저하는 눈에 띄고 있었다. 집단지도 체제는 이 폐쇄적인 지도 체계를 보다 개방적인 것으로 만들어 좀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수렴될 것이라는 희망을 바탕으로 넓게 환영받았다. 또 다른 문제는 법인의 관리 기구인 협회의 회장과 종교의 최고 지도 기관인 통치체와의 관계였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통치체는 오랜 세월 동안 협회의 회장에게 종속되는 이사회였다. 레이를 중심으로 하는 5인 위원회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변경해, 법인



과 그 회장은 통치체에 예속되어서 통치체의 실무면에서의 필요를 채운다, 말하자면 통치체의 도구로서 운영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 생각의 기초는 이미 1971년 12월 15일호 「파수대」 지(영문) 기사에 게재되고 있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부회장이자 레이의 숙부인 프레드릭 프랜즈는 이 안에 반대를 나타냈고, 노어 회장도 변혁에 소극적이어서 현상 유지를 원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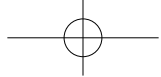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흥미로운 점은 1975년 9월의 길르앗 성서 학교의 졸업식에서, 프레드릭 프랜즈 부회장이 축사 중 이 문제에 대해 말한 일이었다. 레이는 이 부회장의 연설의 논점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그는 협회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러셀도 통치체에 따르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한 후, 사도 6장을 언급하면서, 12사도는 7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을 선택해 신자들의 음식분배를 돌보는 것을 맡겨 그로 인해 사도들은 영적인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 라고 말했다. 부회장의 의도는 통치체는 영적인 일 이외에는 관여해서는 안 되고 세속적 일은 법인에 맡겨 두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부회장은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있던 안티오크 회중이 얼마나 예루살렘의 사도들의 회중과 독립해서 중요한 일을 결정했으며 선교사를 독립적으로 파견하고 있었는지를 언급했다. 부회장의 의도는, 마치 안티오크 회중이 예루살렘의 통치체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것과 같이 통치체와는 별도로 법인이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 회중의 예를 사용해서 지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졸업식에서 이 축사를 듣고 있던 레이는, 이 부회장의 논리 그 자체가 사실은 JW 통치체의 절대적 권위를 흔드



는 것이라는 점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레이는 확실히, 부회장의 논리는 바야흐로 성서의 기술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일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 회중이 중앙집권적인 예루살렘의 통치체와는 독립적으로, 예수와 성령에 근거해 회중이 독자적인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성서에 기록되어있는 사실은, 현대 JW의 통치체가 전 세계의 모든 회중을 권위를 가지고 지도해 간다고 하는 주장을 실제로는 근본부터 뒤집는 것이었다. 물론 이것은 부회장이 의도한 것이 아니고, 그는 어디까지나 법인과 그 회장이 통치체로부터 독립된 권위를 가져야 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논리였다. 레이는 이 같은 논리를 일반 증인이 사용해 현대 통치체의 권위에 의문을 갖는다면 그는 「배교자」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레이는 성서의 동일한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 하나의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한편 다른 상황에서는 같은 일을 반대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사실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리액션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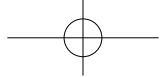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1975년 8월 15일, 레이는 5인 위원회를 대표해 보고서와 권고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 내용은, 회장에게 집중하고 있던 권위를 통치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분산시키는 개혁안이었다. 부회장 프레더릭 프렌즈와 통치체 성원 중에는 이것을 「회장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 개혁안은 채택되었고



1976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이 새로운 체제에서는 통치체가 법인 및 종교상의 방침 결정의 최고 기관이 되어서, 그 바탕으로 여섯 개의 위원회가 놓여졌다. 펜실베이니아주의 법인인 워치타워 성서 책자협회는 이 여섯 개의 위원회아래에 놓여져 이 펜실베이니아 주 법인아래에 더욱 말단의 많은 법인 조직이 놓여졌다. 이 개혁에 의해서, 법인의 회장은 순수하게 법적인 직무가 되었고, 종교상의 권위는 통치체로 옮겨지게 되었다.

통치체 내부에서의 「양심의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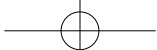
레이가 통치체 성원으로 임명된 당시 그는 자신이 수백만 명의 여호와와 증인 중에서 선택된 얼마 안 되는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으로서 수 많은 증인들의 믿음생활을 좌우할 수 있는 임무의 중요성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통치체의 매주 회의에 임하였다. 그러나 그 회의의 내용은 레이의 기대와는 크게 다른 것이었다. 통치체 회의의 상당한 부분은 인사에 관한 결정을 승인하는 일에 대한 것이었다. 여러 나라 협회의 직분, 특히 여행하는 감독자(순회 감독자, 지역 감독자)의 임명에 즈음해서는, 그 사람의 이름, 나이, 침례 년월일, 「기름부음 받은 자」인지 아닌지, 를 읽어 가면서 대부분의 경우 금방 다른 곳으로라고 승인되어 갔다. 이것은 통치체의 지루한 의사 결정이며, 형식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연로자들로 구성된 통치체 중에서도 특히 고령의 구성원은, 자주 앉아서 졸지 않을 수 없었다. 표결하는 시점에서도 잠에서 깨어날 줄 모르는 인사가 승인



에 투표하는 것은 안 된다는 배려를 받아서 앉아서 졸고 있던 통치체 성원은 표결에서 제외하고 그대로 놔두는 일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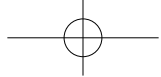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의제는, 세계 각지의 회중이나 지부로 부터 보내져 오는 상담의 편지에 대한 대처였다. 그 중의 상당수는 회중 내 개개인의 행위가 제명 처분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결정은 1975년까지는 전원일치를 필요로 하고 있었고 그때 이후로는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견이 크게 나뉘는 경우는 드물고, 많은 경우 소수의견은 주류의견에 맞추어 양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레이도 통치체에 참여한 처음 몇 년간은, 다수 의견에 맞추어 표결에 참가했고 많은 경우에 결정은 전원일치로 행해졌다. 그러나 나중에 말하겠지만, 그의 통치체 안에서의 마지막 몇 년 동안, 레이는 소수파로서 주류에 반대하는 투표를 하는 것이 늘어갔다.

이렇게 일반 회중으로부터 전해지는 상담 편지에서는, 온갖 JW의 일상생활의 문제가 얹히고 있었다. 어떤 증인이 아들이나 딸에게 대학교육을 받게 했을 경우에, 그 증인은 장로로 임명받을 자격이 있는지, 딸이나 아들을 18세에 결혼시켰을 경우, 장로로 임명받을 자격이 있는지, 어떤 증인이 교대로 야간근무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저녁 집회에 빠질 경우에, 그 사람을 장로로 임명해야 할 것인가, 등등.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이혼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지, 남편이 아내에게 이전의 부도덕을 고백했을 경우, 아내는 그 남편과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이 허락되는지, 이혼은 부도



덕을 저지른 사람의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부도덕을 한 사람에게도 정당화되는지, 부도덕을 저지른 사람의 배우자가 이혼을 정당하게 한 후에 사실은 본인도 부도덕을 저질렀다는 것이 밝혀졌을 경우에, 원래의 이혼은 그대로 합당한지, 등 등. JW의 교리에서는 이혼이 허용되는 경우는, 성적부도덕이 있었을 경우뿐이지만, 그 정의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문의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 외의 상담의 예에서는 JW의 활동 때문에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벌금을 지불하는 것은 정당한 일인가, 노동조합원인 JW이 회사 단체파업시 피켓을 드는 파업 행위에 참여해도 좋은지 혹은 「대체 업무」로서 조합 시설의 청소 등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협회는 자금을 미국 국외의 지부로 보내는 경우, 제3국을 경유한 송금을 통해 달러의 가치를 늘리는, 일부의 나라에서는 위법으로 되어 있는 거래를 허락해도 좋은지, 적십자를 통해 재해의 이재민들에게 원조를 보내는 것은 올바른 일인가 등이 있었다. 마지막 사례에서의 문제점은, 적십자가 십자가라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이 금지하고 있는 종교 표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적십자가 수혈의 세계적인 공급원이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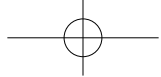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일반 여호와의 증인이라면 통치체의 의사결정은 면밀하게 성서에 비추어서 결정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여러 가지 의제가 의사에 올라 심의되어 가는 과정에서, 결국 궁극의 결정 사항은, 어떤 일이 증인의 제명에 적합한 일인지 아닌지의 여부였다. 이러한 의제에 오르는 질문 사항은, 각국의 상황에 의해 실로 여러 가지이며 방대한 수에 달했다. 그러나 이러한



심의에서 성서가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
유가 있었다. 먼저 통치체의 각 구성원에게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다.
통치체성원이라고 해도, 일반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집회와 봉사의
의무를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되며, 거기에 더해 각 구성원은 몇 개의
위원회에 소속되어서 그 중에 임무가 주어지고 있었다. 거기에 더해
세계 각국에서 전해지는 서류의 양은 항상 위원회의 처리 능력을 넘
어서고 있었다. 따라서 구성원 중에는 파수대지에 게재될 예정인 기
사를 성서와 대조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일도 없이 일종의 거수기로
서 단지 승인을 위한 표결에 참가하는 사람도 여러 명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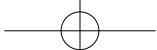
이 문제는 JW 지도부 개개인의 문제이기도 했다. 조직의 지도적
인 지위가 올라가는데 따라서 일의 양은 증가하여 그 결과 깊이 있
는 성서연구를 할 기회가 거기에 비례해 줄어들어 가는 것이다. 이
것은 레이의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증명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
실은 위치타위의 종교적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다. 일단 조직
의 내부에 들어가면 개개인이 성서를 깊게 연구할 필요는 거의 없어
지고 가장 소중한 것은 조직의 방침과 가르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를 조직의 출판물을 통해 연구하고 배우는 것이며, 이것이 증인종교
의 근간을 지탱하는 결정적 기둥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통
치체의 내부에서도 먼저 검토되는 것은 어떤 결정이 지금까지의 조
직의 방침과 가르침에 들어 있는지 즉 그동안의 지침에 판례가 있었
는가 하는 점이었다. 그것만 확인되면 성서를 펴려고 하는 일은 없
고 의결은 즉시 내려졌다.

그러나 성서가 통치체의 결정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가장 큰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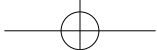
유는, 이러한 각지로부터 전해지는 많은 질문에 대해서 대개의 경우 성서는 구체적이고 뚜렷한 지침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혈청의 주사나 혈소판의 주입을 받아들이는 것은 수혈과 같이 취급되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에는, 성서가 완전히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 예는 코카콜라 회사에서 운전기사를 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 군사기지에 납품을 하는 직무가 주어질 경우, 혹은 증인 음악가가 군사기지의 장교 클럽에서 연주하게 된 경우, 이 때 이러한 증인의 행위는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죄인지 라고 하는 질문이었다. 성서에는 어디에서도 이러한 증인의 행위를 분명히 규정하는 기록이 없다. 그러나 통치체는 이런 경우 이러한 증인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그들은 군사기지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성서가 침묵을 지킬 때 사람의 논리가 답을 매듭짓는 것이다. 비록 반대자가 성서에 대한 언급을 요구해도, 대부분의 경우 요한 15:19의 「세상의 일부가 아님」을 인용하며, 그래서 비슷한 의문은 모두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그 같은 확대해석과 포괄적용방법이 성서 전체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를 따지는 일은 거의 없었으며 그것이 성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간혹 성서와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극소수의 성경구절에 의한 것이며 반대론적 성서논리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마태 23:23-24)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여, 당신들에게 화가 있소! 당신들은 박하와 딜과 쿠민의 십분의 일은 드리지만, 율법의 더 중한 것, 곧 공의와 자비와 충실은 무시해 왔기 때문이요. 이것들도 행해야 하지만, 다른 것들도 무시해서는 안 되요. 눈먼 인도자들이여, 당신은 각다귀는 걸러 내면서 낙타는 삼키고 있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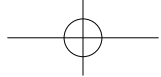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3분의 2의 다수결로 결정되는 통치체의 표결은, 제명 처분의 결정에도 적용되어 기묘한 결과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혈액이 있는 성분을 받아들인 증인을 제명 처분할지 어떤지의 결정의 경우에, 14명의 통치체 성원 중 8명까지가 그 행위는 제명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면, 이것은 3분의 2(14명 중 9명)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그 증인은 통치체의 과반수 이상이 허용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결과적으로 제명 처분이 되는 것이었다. 레이는, 이렇게 제명 처분 받게 된 증인들이, 실제로 다수의 통치체성원들이 그들의 행위를 지지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명되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느낄는지, 제명 처분에 관해서는 세상 법정에서 적용하는 「의심스러운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를 원칙으로 하면 안 될까라고 하는 의문을 통치체의 회의에서 제기했다. 그러나 이 의문도 오랜 세월에 걸친 이 조직의 전통적인 제명처분의 방침을,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해 가려는 분위기 속에서 매장돼 사라졌다.

레이의 통치체 의결에서의 결정들은 「양심의 위기」의 연속이었다. 전통을 고집하며 변화를 허용하지 않고, 하느님과 성서에 판단을 맡기는 대신 사람의 논리가 지배하는 통치체 내부의 심의과정은, 그를 서서히 통치체 내부에서 소수파로 몰고 갔다. 그 중에서도 특히 레이의 기억에 인상 깊었던 통치체의 결정 중에는 다음에 나오는 것과 같은 그의 양심을 책망하게 하는 몇 가지 사례가 있었다.



침실에 비집고 들어가는 여호와의 증인의 규제

레이의 통치체 임기 중에, 통치체는 부부 사이의 성행위에 대한 세세한 규제를 「파수대」 지에 차례 차례로 발표하였고 그 후 그것들을 변경해 갔다. 레이는 이 방침의 변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문제가 된 행위는, 정상적인 성교 행위인 성기끼리의 결합 이외의 행위, 특히 성기와 구강과의 결합, 성기와 항문과의 결합이었다. 많은 증인들 사이에서 이러한 성행위에 관한 의문이 전달되어 통치체는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72년에 통치체는 이러한 행위는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는 결정을 얼마 안 되는 심의 후에 내려서 1972년 11월과 12월의 「파수대」 지(영문)에 그 취지가 게재되었다. 이 결정은, 그러한 “이상 성행위”를 범했거나 목격한 사람이 회중에 보고(고발)할 필요성을 JW들에게 촉구하고 있었다. 그 결과로 1973년 이후에, 이상 성행위를 둘러싼 사법위원회가 각지의 회중에서 대부분 열리게 되었다. 이것은, 특히 부부 중 다른 한쪽이 JW이 아닌 경우에, 심각한 부부 사이의 불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 [이상 성행위]의 규제가 발표된 결과, 많은 증인들이 이혼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빠졌다. 오럴 섹스는 성교 전회로서 많은 부부 사이에서 행해지고 있었다. 혼란스러운 증인들과, 인도하는 입장에 있는 장로들이 차례차례로 본부에 문의를 하여 어디까지를 성교라고하며, 어디까지를 전회라고 하는지, 전회에서의 오럴 섹스는 상관없는 것인지는 질문을 빈번하게 보냈다. 그리고 병이나 부상 때문에 정상적인 성행위를 할 수 없게 된 JW들은, 그것을 대신하는 행위로서 성기 이외부위를 사용한 성행위를 오랜 세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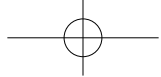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에 걸쳐 하고 있었지만, 이것도 금지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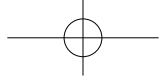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이 이상 성행위에 관한 규칙은 JW 사회를 5년 이상에 걸쳐서 지배했다. 많은 부부 관계가 파괴되어 혹은 적어도 불화에 빠져 버렸다. 그 영향력은 구체적으로 아무도 모른다. 1978년, 이 규칙은 통치체의 결정에 의해 폐지되게 된다. 1978년 2월 15일의 「파수대」지 32페이지(영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분명한 성서의 지시가 없는 이상, 이러한 일은 결혼한 부부 자신이 하느님 앞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혼에 관한 사적인 일은 회중의 장로가 지시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며 단지 이러한 일을 이유로 제명 처분을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서로 결정을 맡겨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독단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는 예리한 책임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레이는 이 기사의 집필을 담당했을 때, 이렇게 「성서로 결정을 맡기게 하지 않고 독단적인 입장을 취하는」 태도가 실제로는, 통치체가 결정하는 대부분의 일에 들어맞는 다는 것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기사의 집필은, 그가 양심의 아픔을 완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지만, 한편 지금까지 5년 동안 통치체가 전 세계의 JW들 사이에 일으킨 상처, 감정적인 스트레스, 무의미한 죄책감, 심리적 혼란, 이혼 등 온갖 피해가 포함되었지만, 그것들을 결코 원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레이는 알고 있었다.



이것과 관련된 문제로서, 성적부도덕이란 말에 대한 해석이 있었다. 위에 기록한 성기끼리의 결합 이외에는 정식 성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해석을 반대로 취하면, 성기결합 이외의 성행위는 음행이라고 해석되지 않게 된다고 하는 문제이다. 부부의 한편이 다른 부부 이외의 남성 또는 여성과 성기 이외의 관계를 가졌을 경우, 그 행위는 성교가 아니며, 따라서 그 행위를 범한 사람은 성서가 규정한 「간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통치체는 해석했다. 그 결과, 예를 들면 JW으로 있는 여성은, 남편이 다른 남성과 동성간의 성행위를 범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간음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것을 이유로 그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재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통치체의 판단이었다. 이것은 마태 19:9에서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음행의 근거 외에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이 근거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레이는 이 통치체의 다수 결정에 의문을 갖고, 그리스어 원문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조사해 보았다. 레이는 그리스어의 음행에 해당되는 단어, 포르네이아가 단순한 성교에 한정되지 않고, 거의 모든 성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레이의 이러한 견해는 그 후에, 워치타워의 「음행」이란 말에 대한 공식적 해석으로서 받아들여졌으며 이것은 1972년 1월 1일호 「파수대」지에 레이의 집필로 기사가 게재되었다. 그 이후에, 위에서 말한 경우의 여성은 남편의 동성에 관계에 의한 음행을 근거로 남편과 정식으로 이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여성에게 있어서는 때늦은 것이었다. 그녀는 이미 재혼했으며, 그 사유 때문에 이미 제명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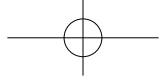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그리고 이것도 사람의 논리가 성서보다 우선되어 결정을 좌우해
증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례였다. 레이는 이러한 결정에 실제로
관여해 가면서 자신의 양심이 깨어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
다.

**병역을 피하기 위한 대체 복무인가,
그렇지 않으면 투옥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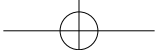
많은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서 그것을 대체하는 비전투군무, 예를 들면 토목공사라든지 군 병원
에서의 군무 등을 제시하고 있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오랜 세월 동
안, 이 대체 비전투 군무도 거부하는 것이 공식적 방침이 되어 있었
다. 이 교리는 1996년 5월 1일호 파수대지에서 변경될 때까지, 반세
기 이상에 걸쳐서 계속되어 그 결과, 징병제를 실시하는 많은 나라
들에서, 수천 명이 넘는 JW 남성들이, 징병거부라는 죄로 계속 투
옥되었다. 이 교리의 이유는, 대체군무를 받아들이는 것은 전투라고
하는 「유혈 죄」의 「대체」이며, 그것은 동일하게 유혈 죄가 된다고 하는 해석이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증인의 젊은 청년들은 대체
복무를 거부해서 투옥되든지, 대체복무를 받아들여 즉시 회중으로
부터 이탈로 처리되어 제명처분을 받은 것과 동일한 취급을 받든지
어느 한쪽의 선택을 강요받게 되었다.

레이의 통치체 임기 중인 1978년에, 이 문제는 벨기에의 한 증인



으로부터의 문의가 계기가 되어 통치체 안에서 재검토를 했다. 전 세계 지부에 조사를 위한 서신을 보냈고 몇 차례의 통치체 회의에서 심의를 도모했다. 이 안에서 대체 근무는 증인 각자의 양심에 근거한 결정에 맡겨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안은, 구성원 16명 가운데, 찬성 9 반대 5 기권 1로 과반수는 대체 복무를 받아들이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찬성이 3분의 2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채택은 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그의 임기 중 모두 합해서 6번에 걸쳐서 통치체의 의제로 올랐지만, 그때마다 현상을 변경하는 제안은 3분의 2에 이르는 찬성을 얻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 때문에, 그 후에 계속해서 17년간 여호와와의 증인은 세계 각지에서, 통치체중 과반수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일을, 계속 거부하며 투옥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양심의 가책은 더욱 심해졌지만, 다른 통치체성원은 단지 원칙에 따르고 있다는 것만으로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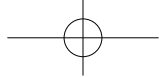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이러한 제명처분에 합당한 죄에 관한 통치체의 결정에 관해서, 어떤 경우에는 성서에서 그 제명처분 결정의 사유를 찾아낼 수가 없었다. 모든 결정은 순수하게 조직의 방침 결정의 결과였다. 그것은 한번 출판되면 전 세계의 형제자매들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확립된 방침이 된 결과였다. 레이는 마태 23:4의 「그들은 무거운 짐들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지만, 그들 자신은 손가락으로도 그것들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내지 않을 수 없었다.



레이는 통치체 임기의 후반에 다가가면서, 성서에 근거하지 않은 규칙으로 증인들을 묶는 통치체의 태도에 의문의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것에 대한 통치체성원의 태도에는, 그 밑바탕에 일반 증인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통치체 성원 중 대부분에게는, 조직이 세밀한 원칙을 정해서 일반 JW를 통제하지 않는 한, 그들은 타고난 경향 때문에 죄에 빠진다고 하는 사고가 지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오래 기간 지켜온 원칙을 변경하는 것은 그때까지 충실히 그 원칙을 지키며 자신을 희생해 온 다른 증인들에게 심리적 혼란을 가져온다고 하는 배려도 있었다. 하지만 통치체의 자신들만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겸손하지 못한 태도와 과거에 증인에게 무거운 짐을 부과해 왔다는 사실이 그것을 지속시키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하는 생각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겸손함과 타인의 명예를 분담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와는 완전히 이질적인 것임을 레이에게 생각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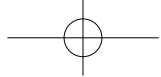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사람의 생명을 지배하는 사람의 가르침

여호와와의 증인은 혈액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교리에 근거해서, 많은 치료 행위에도 세밀한 규칙을 제정해 왔다. 그 좋은 예가, 혈액응고인자(혈우병치료약품)가 유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혈기능이 손상되어 응고 인자의 주사만이 유효한 치료법인 혈우병의 환자의 치료였다. 통치체와 조직의 각 지부의 지도부는, 혈우병 JW 환자에 대해서는 그 출판물을 통하지 않고, 환자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지도를 해 왔다. 그 혈우병 증인환자에게 혈액 성분인 응고 인자를 사용해 1회 정도 치료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이 치료를 반복해서 받는 것은, 피를 생명을 지탱하는 음식으로 이용해 거기에 따라 「길러지는 것」(feeding 즉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서의 가르침 (창세기 9:3-4; 레위기 17:10-12)에 위배된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 방침은 오랜 세월동안, 출판물에 실리는 일 없이, 문의를 하는 여호와의 증인에게 개별적으로 본부나 각국의 지부가 전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방침은, 1975년 6월의 통치체의 회합에서 변경되어 혈우병 환자는 반복해서 혈액 성분의 치료를 받아도 상관없다고 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 결과는 협회 출판물에 바로 발표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원래의 1번만 혈액 성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원칙자체가 발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 새로운 방침을 발표한다면, 먼저 과거의 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고, 방침의 어지러운 변경이 너무 드러나게 되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부는 과거에 문의해 온 혈우병 증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새로운 방침을 증인 환자 각자에게 전하기로 했다. 이 방법은 한편으로 만족할 만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증인들이 전화를 통해 본부에 치료 방침을 문의해 오고 있어서 그러한 환자에게는 - 전화기록이 온전히 보전된 것이 아니기에 - 이 새로운 방침을 일일이 전할 수가 없었다. 그 결과 간신히 1978년 6월 15일의 「파수대」 지에 (한국어 판은 10월호 48면) 다른 혈액 성분의 치료가 허용되는 사례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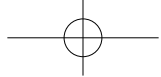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디프테리아, 파상풍, 혈청간염, 공수병, RH형이 맞지 않는 경우 질병에 대항하기 위해) 혈우병이 작게 다루어졌다. 과거의 방침의 변경은 어디에도 진술하지 않았다. 이 통치체의 결정에서부터, 「파수대」지에 발표되기까지의 3년 동안, 방침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출혈에 의해 병이 악화되거나 죽음에 이른 혈우병 증인들의 고통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의 지침 변경이 통치체의 배려가 미치지 않은 말단 증인 전도인들의 생사를 휘두르게 된 예로서 레이의 마음을 깊이 손상시키게 되었다.[#]

이중 표준

레이의 9년간의 통치체의 직무 중에서, 그의 양심을 손상하는 일은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그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 중에서, 최악의 조직의 방침의 모순과 불일치의 사례는, 통치체가 두 개의 나라의 지부에 대해 행한 지도 방침의 모순과 일관성의 결여였다. 이 예는, 이중 표준, 즉 한편에서는 하나의 원칙을 적용해서 지도하면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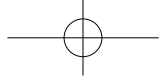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 이후 2004년 6월 15일호(파수대)에서는 또 다시 이 교리에 변경을 가한다. 즉 혈장,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제외한 세미 혈액분획은 개인이 결정할 일이라는 허가의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2006년 8월호(깨어라)에서는 해모글로빈의 경우에도 양심문제로 돌리는 듯한 [목상해 봐야 한다]는 식의 모호한 지침을 내린다.



른 한편에서는 동일한 일에 완전히 다른 규칙을 적용해서 지도한 뚜렷한 사례이며, 이 사례를 통해서 레이의 양심은 최대의 위기에 노출되게 된다. 이 두 개의 나라는 멕시코와 동 아프리카의 Malawi에서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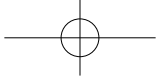
1964년 이래로, Malawi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실로 잔혹한 종교 탄압을 계속 받고 있었다. 천명 이상에 달하는 증인들의 집이 태워지고 폭행, 고문, 학살 등의 학대를 받아 많은 증인들은 근처의 잠비아나 모잠비크에 난민으로서 피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학대의 이유는 Malawi의 여호와의 증인이 당시의 일당독재정권의 당원 카드를 구입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Malawi는 당시 만다 종신 대통령이 Malawi 의회당을 인솔해 독재정치를 강압적으로 실시해서 국민에게 이 독재정당의 당원카드를 구입할 것을 강제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 독재정권이 국민 전체를 당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완전한 연합을 편리한 방법으로 달성하려는 정책의 하나였다. JW의 Malawi 지부는 이것에 대해서, 이 정권의 당원카드를 여호와의 증인이 구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것이며, 이 세상의 세력과 타협하게 되어, 그것은 여호와께 대한 배신으로 여겨진다고 하여, 그 나라 여호와의 증인에게 이 정당 카드를 사지 않게 지도하고 있었다. 이 방침은 뉴욕의 통치체에 의해서 온전하게 지지를 받고 있었고 그 때문에 Malawi의 대부

[#] JW들은 예수의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성구를 들어 정치참여, 선거, 전쟁 등에 참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킨다고 주장한다. 이 중립정책으로 인해 수 많은 나라에서 살육, 폭행, 투옥, 박해를 받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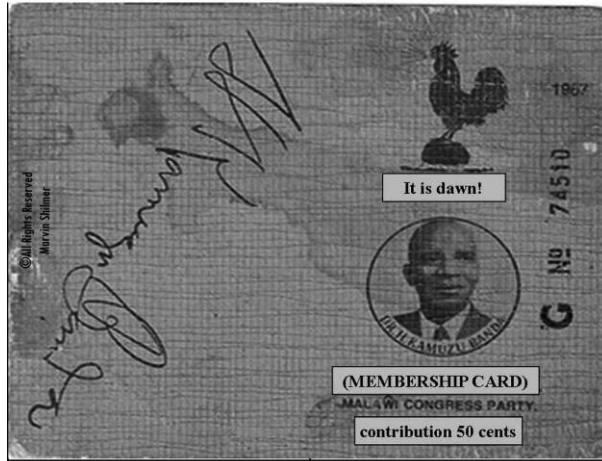


분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목숨을 걸고 이 지침을 지키며 행동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통치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는, 항상 「타협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강조되었다.

레이는 1975년에, 종교 탄압이 계속되는 이 Malawi의 상황을 조사해 서류로 남기는 임무를 받았다. 이 안에서 Malawi의 특수한 상황을 알게 됨에 따라, 레이의 마음속에는 이 당원 카드 구입 거부 방침에 대한 몇 가지 중대한 의문이 생겼다. 먼저 당원 카드라는 이름이 확실히 정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의 구입은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Malawi와 같은 일당독재국가에서 국가권력이 국민 전원에게 당원일 것을 요구한다면, 당원이 되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의무와 거의 동일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겼다. 사도 바울은 로마 13장에서 국가의 정치권력에 대해 「사자」 혹은 「봉사자」로 보면서 복종할 가르치고 있다. 바울은 로마 13:7에서 요구하는 것을 모두 주도록 가르치고 있다. Malawi에서 카드를 사는 것은 그 정권이 국민에게 요구하고 있는 의무이기에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정치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아닐까. 바울의 견해에 대해 예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확실히 이것과 동일한 상황은 성서에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권력자가 무거운 짐을 주어 1마일을 걷도록 요구했을 때 예수께서는 그에 대한 정치권력에 타협하는 일 없이 거부하도록 가르쳤을 것인가. 마태 5:41에는 1마일을 걷도록 권력자가 요구하면 2마일 가도록 예수께서 가르치고 있다. 레이의 마음에는 잇달아 성서에 근거한 의문이 끊어지지 않았다. 레이는 Malawi의 곤



English translation of MCP c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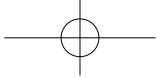


[말라위의 당시 당원카드]

란한 상황에 대해서 명쾌한 답은 낼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어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Malawi의 당원카드의 구입 거부 방침은 명확한 성서기록에 근거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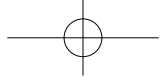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정확히 Malawi의 문제가 심각해진 1978년경에, 앞에서 말한 병역의 대체 근무문제에 관해서 통치체는 멕시코에서의 징병 제도에 대한 JW의 대응방법에 관한 보고를 멕시코 지부로부터 받았다. 그 보고는 레이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었다.

멕시코에서는 징병 연령에 이르면 남자 전원이 일정기간의 군사 훈련을 받는 것이 의무가 되어 있었다. 남자는 등록할 때에 「카르티라」라고 불리는 증명서가 발행되어 군사 훈련을 받으면 그 카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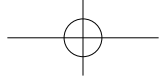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티라에 그것을 증명하는 표를 눌러 주게 되어 있었다. 멕시코 정부는, 이 군사훈련 종료의 표시가, 관리를 뇌물로 매수하는 방법으로, 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에게 불법으로 팔리고 있는 관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당시에 알고 있었으며, 정부는 그것을 적발하기 위해 힘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워치타워협회 멕시코지부의 보고에 의하면, 이 불법적인 관리매수는 멕시코의 여호와의 증인들 사이에서도, 수년간에 걸쳐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었다. 레이의 놀라움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이 불법행위를 오랜 세월 멕시코 지부가 지도해 나간 이유는, 뉴욕 본부가 것처럼 지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Malawi의 사태에서는 「타협을 허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지도해 온 통치체가 동일한 시기에 또 다른 지침을 멕시코에 지시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영의 인도를 받는 조직일까, Malawi에서 이 중립문제로 인해 박해나 살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레이는 이 심각한 의문에 직면해서 양심의 동요를 억제할 수가 없었다.

레이는 1978년 11월에 멕시코의 지부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이 사태를 조사하게 되었다. 레이는 멕시코의 지부에 있으면서, 현지 여호와의 증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게 된다. 그들 멕시코 지부의 JW들은 Malawi의 비참한 상황을 알고 있으며, 거기에 비교해 뇌물을 사용해 관리를 매수해 유효한 병역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멕시코의 증인들 사이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레이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이렇게 뇌물을 사용한 매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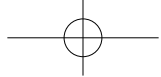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방법은 확실히 뉴욕 본부가 1960년에 문서로 승인한 지침이었다. 레이는 멕시코 지부에서 그 1960년에 본부에서 보낸 편지를 읽을 수가 있었다. 그것은 멕시코 지부가 뉴욕본부에 편지로 질문을 보낸 것에 대한 답변으로 보낸 것이었다. 그는 즉시 그것이 당시 부회장이며 그의 숙부인 프레더릭 프랜즈가 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편지에는 「뇌물」이라고 하는 말은 사용되지 않고, 대신에 「금전 거래」, 「요금의 지불」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어 지불한 금전은 군사 권력에 준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는 개인에게 간다는 것이 강조되어 이것에 의해 도덕적인 문제가 가벼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방법으로 기술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런 관습이 멕시코 각지에서 넓게 행해지고 있어 감시관도 놓치고 있다면 여호와의 증인에게 있어서는 유익한 일이나 계속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지시였다. 이 편지의 마지막에는, 그러나 이 관습에 의해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본부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증인 각자가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다.

레이에게 있어서의 슬픔과 놀라움은, 이 본부로부터의 지시가 멕시코로 전달된 1960년에 레이는 도미니카 공화국을 관할하는 지부 감독자였고 그 시기에 같은 문제, 즉 의무 군사 훈련에 참가하기를 거부한 다수의 JW들이 수년간이나 투옥되고 있었던 사실을 직접 체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멕시코에서 카르티라를 사용해 군사훈련을 회피하는 것을 인정해 준 것과 같은 시기에, 완전히 동일한 문제로 고통 받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형제들에게 노어 회장과 프랜즈 부회장은 어떤 방법도 내리지 않았다. 실제로 회장과 부회장은



같은 무렵 도미니카 공화국을 방문해서, 일부러 이러한 병역을 거부해서 투옥된 형제를 보러 구치소까지 면회하러 갔었던 것이다. 거기까지 하면서, 한편의 멕시코에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군사 훈련을 회피시키고, 완전히 동일한 문제로 고민하는 도미니카 공화국에는 방관하거나 좌시하는, 이 이중 기준은 레이의 이해를 아득하게 넘는 것이었다.

이 멕시코의 군사 훈련을 뇌물을 사용해 회피하는 방침은, Malawi에서 당원카드 구입거부의 방침과 거의 시간적으로 평행해 발전해 왔다. 최초의 Malawi에 있어서의 JW에게로의 폭력적 탄압은 1964년에 일어나, 일단 기세가 수그러들었지만, 1967년에 재발했다. 이와 같이 Malawi의 국민이 한 장의 카드를 둘러싸고 탄압에 괴로워하는 동안에, 멕시코의 JW은 뉴욕 본부에서의 승인을 받아, 한 장의 카드가 일으키는 문제를 뇌물로 계속 회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에 1969년에는, 멕시코 지부는 뉴욕본부 편으로, 이 불법적인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로 허용되는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편지를 보내고 있었다. 이 안에서 지부는 새로운 정보로서 이와 같이 뇌물을 사용해 군사훈련수료의 표를 얻은 사람은 제1예비군에 배속되어 전시에는 정규군의 다음에 소집되게 되는 것을 알려 이것에 의해 뇌물을 사용해 훈련 수료의 표를 취득하는 현행의 관습을 변경시켜야 할 것인가를 문의하고 있었다. 레이는 이것에 대한 뉴욕으로부터의 대답도 읽을 수가 있었다. 이 편지는 회장(노어)이 그의 비서를 시켜서 쓰게 한 것이었다. 그 편지는, 간단하게 1960년의 편지에서 말한 지침 이외의 변경은 없으며, 이 건은 형제들 각자의 양심에 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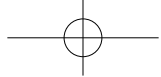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겨야 한다는 것이었고, 만약 그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집을 받으면, 개개인이 양심에 근거해 결정해야 할 일이다 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 사실은 더욱 레이의 마음을 깊게 손상하게 된다. 한쪽 Malawi에서는 「정치적 중립」이란 이름의 이유로 카드의 구입을 철저하게 거부해서 폭력적 탄압에 노출된 여호와의 증인이 다수가 있었으며, 다른 한쪽인 멕시코에서는 「양심문제」라는 이름으로 군사훈련수료의 표를 뇌물을 사용해서 취득하며, 제1예비군이라고 하는 군사 조직에 속하면서, 게다가 이탈처분도 받지 않고 순회감독자나 지역감독자가 되어있는 여호와의 증인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비 전투 대체 복무를 병역 대신에 받아들이는 것조차 이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게 된다고 하여 계속 거부해 투옥될 것을 지시해 두면서, 한편으로는 제1예비군이라고 하는 명백한 군대에 속하는 것을 「양심문제」라고 정리해 계속 용인하는 것이었다. 이보다 더 이상 명백한 이중적인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라고 레이는 깊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다. 레이는 다음과 같은 잠언 20:23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 가지 저울추는 여호와께 가중한 것이고, 속이는 저울은 좋지 않다.”^{##}

JW종교에서 말하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 하라]는 말은 일종의 [허가]를 의미한다. 즉, 그 일로 인한 개인의 결정에 대해서는 종교집단으로부터의 사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 된다.

역대 위치타워 협회장들은 미국 헌법에 충성을 서약하는 미국 여권에 당당히 서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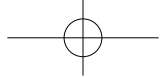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이 이중적인 표준은, 이 여호와와 증
인종교의 최고 권좌에 오르는 인간들
의 자의적인 산물과 다름 없었다. 조직
의 이익을 증인들 개개인의 괴로움보
다 우선하며, 자신들의 표결이 66.6%
나 62.6%등에 의해서, 많은 젊은이와
그 가족의 인생을 수년에 걸쳐 헛되게
하게 하는 것에 완전한 무감각이 되어
있는, 그것이 이 최고 기관으로 독점적



[멕시코의 카르티라]

결정권을 가진 소수 사람들의 실태였다. 성서에는 명백한 근거를 나
타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방침으로 한 나라의 신자들에
게는 목숨을 걸고 지키게 하면서도, 다른 나라에서는 완전히 반대의
방침을 용인하고, 게다가 그러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하는 것조차
「양심문제」라고 정리하는, 이것이 이 통치체라고 하는 권력자 집
단의 실태였다. 이 추악한 모순이 이 조직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고 있는 진정한 이유는, 결국은 이 지도집단이 여호와께 대한
충성이란 이름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조직에 대한 절대
적인 충성을 스스로 부과한 결과 사람들이 조직의 모순에 대해서 맹
목적이 되어 간다는 것을 레이는 깨닫게 되었다. 레이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느님은 동료인간 위에, 강력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
는 것 같은 인간집단을 두실 의도가 없다고 확신하기에 이르는 것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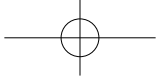


1975년까지 살아 남다

레이가 통치체에 참가한 1970년의 몇 해 전부터, 전 세계 여호와
의 증인들 사이에서는 1975년을 그리스도의 새로운 천년 통치가 시
작되는 해로서 기대하는 움직임이, 해를 거듭하면서 박차를 더해가
며 증대하고 있었다. 이 1975년의 「예언」을 만들어내 추진하고
있던 사람은 당시의 부 협회장인 프레더릭 프랜즈였다. 그는 1966
년에 출판된 자신의 저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 가운데서의 영
원한 생명」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한국어는 68년)

“... 이 독립적 연구의 결과로 발행된 연대표는 사람이 창조된 때
가 기원전 4026년임을 알려 줍니다. 이 믿음직한 성서 연대에 의하
면 사람이 창조된지 6,000년이 되는 해는 1975년이며, 인간 역사의
일곱째 천년 기간은 기원 1975년 가을에 시작됩니다.(중략)

그러므로 바로 우리 세대 안에, 여러 해가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존재의 일곱째 날로 보실 수 있는 날에
이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일곱째 천년 기간을 휴
식과 석방의 안식 기간 즉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자유를 공포하는
큰 희년이 되게 하신다면 얼마나 적절할 것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인
류에게 가장 때에 알맞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
있어서도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아직도 성서 마지
막 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 구백년 전에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자신에 관하여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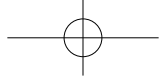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마태 12:8)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사람 존재의 일곱째 천년과 평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신 목적에 따른 것일 것입니다.”

계속되는 9년간의 워치타워 협회의 출판물은, 차례차례로 1975년을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시작되는 해로서 열심히 온 세상의 JW에게 계속 고무시켜왔다. 예를 들면 1968년의 깨어라지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 낡은 제도가 완전한 종말에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정에 달한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날 것이 틀림 없습니다. 기껏해야 여러 해 안에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성서 예언의 마지막 부분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결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천년통치로 살아남은 인류는 해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날이 오겠지만, 바로 우리 앞에는 얼마나 웅장한 날들이 놓여 있습니까!’ (깨어라 1968년 5월 1일 272페이지-한국어는 깨어라! 68년 8월 1일호 351면)

레이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확실히 1975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가까운 장래」 아무리 길어도 수년 이내」라고 있는 이 때는 도대체 어느 정도 먼 장래를 말하는지 소박한 의문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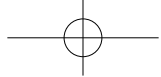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더욱 많은 「권위자」의 인용을 통해 1975년이 어떻게 특별한 해



로 일반적으로 생각되고 있을까를 「파수대」 지나 「깨어라!」 잡지에서 몇 번이나 다루어 1975년까지 세계가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한 저명인의 인용을 채택하거나 해서, 독자의 종말감을 더욱 더 부추겨 갔다.

나중에 워치타워 협회는, 어디에도 1975년에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시작된다고 단언했던 적은 없다고 말해 이 예언이 보기 좋게 빛나간 것에 대한 변명을 얼버무렸다. 확실히 무조건으로 것처럼 단언한 문서는 없다. 그러나 무수한 워치타워의 출판물의 기사 안에서 반복되었던 논리는, 1975년에 인류 창조로부터 6000년이 종료해, 제7번째의 천년기에 접어드는, 그것은 여호와와의 안식의 천년기에 해당되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년기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 논리는 1975년에 그리스도의 실질적 통치가 시작된다는 즉 세상정부들의 시대가 종료된다는 것에 조금의 의문을 주는 여지도 없었던 것이다. 당시, 1975년에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은 JW의 사이에 상식이 되어 버리고 있었다. 1974년의 「왕국 봉사」에서는 이 종말감은 절정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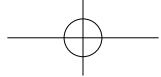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집이나 자산을 팔아, 파이오니아 봉사를 해 이 낡은 제도의 나머지 날들을 보내려고 하는 형제들의 보고를 듣습니다만, 확실히 그것은 사악한 세상이 끝나기 전에 남겨진 짧은 시간을 보내는 뛰어난 방법입니다.’ (왕국 봉사 1974년 5월호, 영문)---(한국어판은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형제들이 그들의 책임을 가볍게 마련함으로써, 이 낡은 제도에서 살게 되는 생활의 남은 부분을 파이오니아 봉사



로서 마치고자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를 종종 듣는다. 그것은 참으로 이 악한 세상의 끝이 이르기 전에 남아 있는 짧은 시간을 보내는 훌륭한 방법인 것이다.”-우리의 왕국봉사 74년 6월호 4면. 그러나 영문은 “brothers selling their homes and property” 즉 “집이나 자산을 팔아”라는 말이 포함되어있다. 위치타워라이브러리 영문참조--역자주)#

당시에 통치체 내부에서 이 사태를 보고 있던 레이는, 통치체 성원 대부분이 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상승하고 있는 기대를 억제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방치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로는, 이 1975년의 예언이 발표된 1966년 이후, JW 신자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이 새로운 교리가 조직의 확대에 확실히 공헌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했기 때문이다. 레이 자신도 그 당시 한 명의 여호와의 증인으로 그리고 새로운 통치체 성원으로서 확실히 이 1975년이라고 하는 해에 기대를 가졌던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레이는 성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 1975년이라고 하는 설정된 해를 향해 온 세상의 여호와의 증인이 준비해 있는 모습과 성서에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말씀의 여러 가지가 아무래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 내심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 한국 증인사회에서도 1975년에 대한 기대감은 대단했다. 정규직장과 사업을 정리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일은 예사였으며 심지어 집안에 비상식량을 비축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75년 직전까지 증인 침례자는 급증했으나 75년 예언실패 후 이탈자의 급증으로 신도수가 급감했으며 이를 만회하는데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 날과 시간에 관하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마태 24:36)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주가 어느 날에 올는지 여러분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태 2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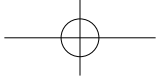
이 때문에, 여러분도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 24:44)

계속 눈여겨보며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은 지정된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가 13:33)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관할에 두셨으니, 그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은 여러분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사도 1:7)

레이는 이러한 성구를 읽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과도함을 억제하는 발언을 했지만, 증인전도인 숫자의 세계적 급성장을 보는 상황에서 그것을 듣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흥미 있는 것은 1968년 8월 15일의 파수대에서는(한국어는 11월15일호) 이 마태 24:36을 채택해 「그러므로 지금은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희롱할 때가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지금이야 말로 이 사물의 제도의 끝이 그의 횡포한 종말을 향하여 급격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예리하게 의식해야 할 때입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 “그 날과 그 때”를 아시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도 제쳐놓은 것 같은 가르침으로 일반 여호와의 증인들을 부추기고 있었던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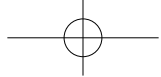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1974년의 어느 날, 레이 부부의 방을 방문한 숙부 프랜즈 부회장에 대해서, 레이의 아내 신시아는 레이가 다른 형제의 과열 기색의



1975년에 대한 흥분 상황을 가라 앉히는 것 같은 강연을 한 것을 이야기하였더니 부회장은 레이에 대해서 「모두가 흥분하면 무엇이 안 된다는 건지? 이것은 충분히 흥분해야 할 만한 것이야」 라고 말했다. 레이의 그의 숙부가 마음속으로부터 자신이 만들어낸 교리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75년 여름에는, 부회장은 「레이, 지금 1914년과 아주 비슷해. 그 해도 여름까지는 모두가 평안 무사했다. 그런데 가을이 와서 사태가 급변해 전쟁이 시작되었지 않은가」 라고도 말했다. 그는 1914년의 예언을 거의 체념하려고 하고 있던 제1대 회장 러셀의 심경을 자신의 심경과 거듭해 맞추고 있는 것이었다.[#] 1975년의 상반기에 걸쳐, 부회장은 회장과 함께 전 세계를 돌아 다니며 이 1975년의 교의를 중심으로 해 순회강연을 펼쳤다. 많은 증인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이 세계적인 과열 상태로 인해 통치체 내부에서도 비록 소수였지만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특별한 방침의 변환을 가져오는 논의에는 이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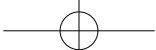
1975년은, 이 조직이 예언 해 빛나간 1881년, 1914년, 1918년, 1920년, 1925년, 1940년과 같이, 예상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지나갔다. 레이의 이 때 이와 같이 맞지 않는 예언을 반복하는 것이 하

[#] 1914년 가을 당시 성경연구생(여호와의 증인의 전신 조직)들은 (1878년에 기대했듯이) 그 해 세상 종말이 온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 자신들이 휴거(일종의 승천)된 이후에 현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예언은 빛나갔고, 1차 세계대전으로 세상이 혼돈에 처하자 그것이 마치 자신들이 기다리던 세상의 변혁인 것으로 변경 해석했다.



느님과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행위가 하느님과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신뢰감을 진척시키는 것이 되는 것일까. 오히려 반대로, 이러한 행위는 성서의 말씀을 경시하는 입장을 정당화 하는, 절호의 구실을 주는 것은 아닐까, 이것은 레이의 마음에 해를 거듭해 퍼져가는 의문이었다.

1976년이 되자 통치체의 회합에서는, 빗나간 1975년의 예언에 대한 대처방법이 몇 번이나 토론되었다. 통치체 성원 중 한사람은, 굳이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쓰거나 하지 않는 것이 제일 현명하다, 그러면 수년 안에 JW 형제자매들은 이것을 문제 삼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 침묵의 시간별기 전략을 권했다. 그러나 1977년 이후, 서서히 이 문제는 여호와의 증인의 사회 속에서 문제가 되어 갔다. 레이가 있던 브루클린의 본부 안에서도, 통치체로부터 1975년 예언에 대해 아무 코멘트도 없는 것에 솔직하게 문제 제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증가해 갔다. 그러나 가장 큰 타격은 1977년과 78년의 2년 연속으로 전 세계 전도인수(호별방문 전파활동에 참가한 인원수로, JW 활동의 지표로서 매년 그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가 감소한 사실이었다. 이러한 일은 워치타워의 전후 역사 중에서 충격적인 것이었다. 이 결과, 통치체는 마침내 1975년에 관해서 그 예언이 빗나간 것을 인정하는 기사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 기사는 그가 집필하게 되어, 1980년 3월 15일의 파수대지(영문 17페이지 5항)에 게재되었다. 물론 이것은 통치체 전체로부터 집필을 할당받아 통치체의 당시 다수 견해를 그대로 기술한 정도의 내용뿐이었다. 그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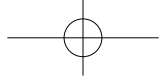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는 이것이 통치체 성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반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최대한의 진실한 행위였다.[#]

축소되는 「이 세대」

앞의 장에서 말한 1975년의 예언과 나란하게, 이 워치타워조직의 교리 중 큰 역할을 차지하는 연대 예언에 1914년과 「이 세대」 교리가 있다. 이 교리에서는, 마태 24:34, 누가 21:32로 예수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 이 세대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는데 기초를 두어, 1914년에 시작한 「마지막 때」의 표징을 본 세대가 지나가 버리기 전에, 이 사물의 제도가 끝나, 즉 최후의 대결전이 온다고 하는 것이다. 이 「1914년 세대」의 교리는 해가 지나감에 따라 증대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1914년의 사건을 목격한 세대는 매년 감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후의 대결전이 도래하지 않는 이상, 이 교리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든 「이 세대」를 길어지게 하는 「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처음에는, 이 교리에서 「이 세대」는 1914년에 적어도 15세 이상인 사람들로 했다. 그것은 15세라고 하는 나이가 그 당

당시 파수대에서는 ‘확신을 위한 견고한 기초’라는 기사(파수대 1976년10월15일호p.469~473)를 실었다 p.471제15항에서는 ‘만일 어떤 사람이 특정한 날짜에 끝이 올 것이라는 견해에 따라 생활을 영위하였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이 있었고, 증인들은 본문의 내용에 따라 ‘그 자신이 그릇되게 이해하였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견해를 조절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대답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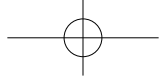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시 의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최저의 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이 해석은 1968년 10월 8일의 「깨어라!」 잡지 13페이지에 실려 있다. 이것은 1975년의 예언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왜냐하면 1975년에는 이 세대가 76세 이상이 되어, 생존중인 사람이 다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975년의 예언이 빗나간 후, 이 교리는 「1914년의 사건을 본 세대」라고 바꿀 수 있었다. 이것에 의해, 「이 세대」의 연령을 낮출 가능성을 만들었다.

1978년 통치체 회의에서는, 「이 세대」해석을 어떻게 변경하면 좋은가에 대한 토론을 했다. 통치체 성원 앨버트 슈로더는 「이 세대」를 「기름부음 받은 자」 즉, 14만 4천명의 특별한 증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기름부음 받은 자」의 수는 매년 봄 기념식에서 표상물을 취하는, 즉 빵과 포도주를 먹은 여호와 의 증인 숫자이며, 이 중에는 꽤 젊은 JW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곧바로 줄어들 걱정도 없었다. 그러나, 통치체 토의에서는 이 새로운 교리해석은 각하되었다. 다른 관련된 교리(지침 또는 가르침)의 변경도 필요로 해 교리 체계의 근본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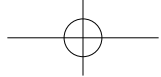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1979년 통치체 회의에서 레이는, 스웨덴의 장로 칼 올로프 존슨 (Carl Olof Jonnson)[#]이 보내온 1914년의 연대 계산의 근거로 대

[#] 스웨덴의 JW장로 출신으로서, JW통치체에 1914년 연대문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던 인물이다. 이와 관련된 여러 논문을 뉴욕 위치타워본부로 보냈으며, 이를 편집하여 이방인의 때 재고(Gentile Times Reconsidered)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JW가 주장하는 이방인의 때 즉 2520년 해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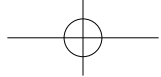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하는 조사 결과를 카피해 배포했다. 그리고 이 1914년과 「이 세대」의 교리가 역사적 근거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 예수께서 누가 21:28,31에서 「이 세대」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몸을 똑바로 일으키고 머리를 드십시오. 여러분의 구출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왕국이 가까운 줄을 아십시오.」라고 지시하셨는데, 지금의 교리대로 당시 유아나 갓난아기인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확실히 1914년 당시 20대, 30대이며 당시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해 「하느님의 왕국이 가까운 줄을 알았던」 세대는 차례 차례 죽고 있어서 생존자는 얼마 남지 않게 되고 있었다. 이것에 대한 다른 통치체 성원의 태도는 레이에 대해서 냉담했다. 통치체 성원 로이드 배리는, 통치체 성원 중에 1914년의 현행의 교리에 의심을 품는 사람이 있는 것에 당혹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른 통치체 성원 라이먼 스윙글은 소련의 어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130세의 장수하기 때문에 현행의 교리를 고수해 나가는 것에 문제는 없다고 말하여 이것은 통치체 다수에 의해 지지를 받았다. 레이는 이것에 대해, 오늘 「현재의 진리」로서 배우고 있는 것은 「과거의 진리」가 되어, 「미래의 진리」에 의해 바뀔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진리」는 그 말 자체의 의미를 잃는 것은 아니냐고 말했다. 결국 레이를 유일한 소수의견으로 하는 토론의 결과, 통치체는 이 1914년과 「이 세대」의 교리를 변경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통치체도, 회장도 1914년이라는 교리를 확고부동한 진



리라고 믿고 단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은 레이의 양심을 몇 년에 걸쳐 계속해서 손상시켰다. 예를 들면 1975년의 통치체 회의에서, 노어 회장은 「1914년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른다. 1914년은 대단히 오랫동안 말해왔다. 우리는 올바를지도 모른다. 맞을 것으로 희망한다.」라고 무기력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집필 부문의 회의에서도 1914년의 교의가 다루어졌을 때, 통치체 성원 클라인은, 이 1914년을 적어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을 잠시 중단함으로써 하나의 교리를 변경하기 전에는 그 교리에 관해서 그 상당분간은 침묵을 지키는 것, 그것에 의해 다음에 오는 교리의 변경은 가능한 자연스럽게 간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몇 번씩이나 행해지고 있던 방식을 통해 고수할 것을 시사했다. 그리고 레이는 나이지리아를 방문했을 때, 지부 위원회의 봉사자에게 일반 JW들 사이에서의 이 1914년 교리의 반응들을 물어 보았다. 그 지부 위원은, 자기 자신이 솔직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레이에게 털어 놓았다. 이와 같이 워치타워 지도부 내부에 많은 의문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면서도 통치체는 이 1914년 교리에 손을 대기를 계속 거부했던 것이다.

이 1914년의 교리 변경의 일련의 논의 중에서, 레이가 가장 놀랐던 것은 앨버트 슈로더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자위원회가 1980년 3월 5일의 통치체 회의에서 제안한, 「이 세대」를 1914년이 아니고 1957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안이었다. 그것에 따르면, 마태 24:3-22는, 1세기 당시와 1914년 이래 일어나고 있는 것을 평행하여 말하고 있어, 24:23-28은 그리스도의 1914년의 「파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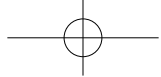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아」(눈에 보이지 않는 임재)를 가리키고 있다. 그에 대한 24:29-44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천체 현상을 말하고 있어 이것은 1957년의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인공위성 발사에 의해 열리게 된 우주 시대를 문자 그대로 가리키고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이 세대」는 1914년을 본 세대가 아니고, 1957년의 우주 시대의 시작을 본 세대로 변경해야한다, 라는 것이었다. 이 안에 의해 1914년과 「이 세대」 교리는 수정을 더해져 47년간 더욱 시간을 벌게 될 수가 있었다. 이 안은 통치체의 회합에서 너무 기발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러나 레이의 최대의 놀라움과 슬픔은, 이 1914년과 「이 세대」의 교리를 개발해 일반 JW에게 확고부동한 진리로서 가르치고 있던 본부의 통치체 내부에서 적어도 3명의 통치체 성원이 이 안을 제출했다고 하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이 교리의 근본인 최고 지도부 자체가, 이 교리를 확고부동한 진리라고 믿고 있지 않고, 다른 「안」에 의해 진리를 옮겨놓으려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레이의 통치체 성원으로서의 9년간은, 겹겹이 쌓이는 양심의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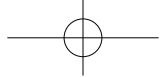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결국 (1914년 탄생세대가 80세가 지난 직후인) 1995년 11월 1일호 18면을 통해 이 세대를 숫자적으로 보지 말 것을 언급하여 사실상 [세대교리]를 변경한다. 1995년 10월15일호(꺄때이다)까지 잡지 발행목적으로 쓰였던 -하느님의 이름으로 발표했던 [1914년 세대] -표현도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후 2008년2월15일호 파수대 21-25면에서는 이 세대에 대해 또 다시 변경된 해석(이른바 겹세대론)을 발표한다.



기를 통해 그에게 새로운 경지를 여는 것과 동시에, 그의 양심은 갈등으로 그의 마음을 책망해 나갔다. 1976년 이후, 그는 통치체 안에서 그의 입장이 더욱 더 곤란해져갔다. 많은 경우, 그의 입장은 소수파이며, 그의 의견은 혐의의 눈을 가지고 다루어졌다. 그런데도 그는 사태가 때와 함께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레이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갔다. 레이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연설 가운데 다음의 말이 그의 그 때의 심경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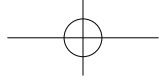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진리의 최대의 적은, 대부분의 경우, 계획적으로 만들어내는 부정직한 허위가 아니라 일관되게 설득성이 있어 보이는 비현실적인 신화이다.”

레이는 자신이 접근했던 것이, 바야흐로 「일관되게 설득성이 있어 보이는 비현실적인 신화」에 근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이것은 그의 성서와 하느님에 대한 견해가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는 그 반대였다. 성서 그 자체가 말하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는 재차 발견했다. 그는 그때까지 통치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얼마나 (그간 통치체가 강조했던) 「성서 자체가 말하게 한다.」는 중요한 입장과 어울리지 않는지 그리고 성서의 말이 「경로」로 사용한다는 이런 불완전한 인간조직을 통해 왜곡될 수 있었는지를 9년간의 통치체 성원으로로서 경험을 통해 가슴 아프게 알게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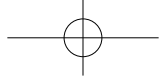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레이는 지도자의 권위나 조직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에 이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권위는 종으로서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을 지배하거나 억압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조직은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를 다만 조직에 온순하게 따를 만큼의 「영적인 갓난아기」로서 지도하지 않고 그들을 개개의 인간으로서 선악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어른」으로 단련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재차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조직보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의 생활가운데서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레이에 있어, 인간의 논리에 의해 성서의 말씀을 바꿀 수 있어 하느님의 말씀보다 조직의 전통적 입장이 옹호 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인간의 논리가 일관성 없는 결정을 내려, 이중의 기준으로 그리스도인의 생사를 지배해, 그것이 절대적 권위로서 온 세상에서 일제히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은 레이의 지성에도 감정에도 참기 어려운 아픔을 주는 것이었다.

1979년의 가을, 레이는 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하는 임무가 주어진 것을 기회로, 아내인 신시아에게 그때 그의 심경을 털어놓아 부부의 향후 장래를 상의했다. 레이는 57세, 신시아는 44세 였었다. 신시아는 레이의 통치체에서의 스트레스를 벌써 느끼고는 있었지만, 레이가 모든 것을 털어놓아 이야기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그는 통치체 성원의 일자리를 사임할 생각을 신시아와 상의했다. 레이는 두 사람의 건강 상태, 부부가 아이를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 등도 생각했다. 이것은 레이에 있어 실로 큰 결단이었다. 통치체 성원인 것은 레이에게 있어서 일평생의 보장이었다. 브루클린 본부



에서의 마음편한 주거, 생활의 보장, 거의 전 세계를 모두 협회의 경비로 여행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온 세상 어디를 가도 열렬한 환영을 받는 것 등 통치체 성원으로서 머무는 것의 매력은 많이 있었다. 한편 57세라고 하는 나이에, 일자리를 얻을 만한 기술도 없고, 연금이나 저축도 없는 레이와 그 아내가, 통치체를 그만두고 단순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곤란한 일인가는 너무나 분명했다. 레이와 다만 무난하고 평화로운 일생을 보내고 싶다면, 통치체의 회합에서 다수 의견에 동조해, 항상 다른 구성원과 협조를 유지해 간다면, 그의 생애의 통치체 성원으로서의 지위는 보장되고 있었다. 그러나 레이의 마음속에서는 이 시점에 더 이상 이 혜택을 계속 받는 것이 양심상 허락하지 않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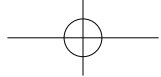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레이는 이 시점에서 이미 조직의 가르침 중 몇 가지는 성서를 통한 증명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중에는 이미 말한 1914년과 「이 세대」 교리 외, 증인 중에서 14만 4천명만이 하늘에서 부활하고 그 외 많은 신자들은 예수와 하늘에서 함께 하는 희망은 없고, 최후의 심판(아마겟돈) 후에 지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가능성만이 희망이라고 하는 신자를 2계급(두 반열)으로 나누는 교리가 있었다. 레이와 조직이 이것에 관해서 인용하는 성구, 로마 8:16, 17을 전후 관계를 포함해 읽어 보면, 결코 조직이 가르치는 것 같은 신자의 2계급 논리를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는 JW 통치체 성원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세계 각지의 순회강연에서는 항상 조직의 가르침을 강조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해야 했다. 실제 그는 자기 자신이 조직의 교리에 관한 의문을 강연 도중에 이야기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의 교리에 대한 의문에 대한 의사표시는 그저 개인적인 친구의 사이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양심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해 가는 것이 점점 참기 어려운 고통이 되어 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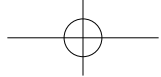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폭풍우의 예고

1979년 11월 14일의 통치체의 회합은, 그 다음 해에 JW의 세계 본부에 불어 거칠어진 숙청의 폭풍우의 예고가 되었다. 이 회합에서 통치체 성원 중 한 명, 그랜트 수터는, 통치체성원의 일부와 집필부의 일부에 협회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혼란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들었다는 것을 꺼냈다. 이러한 보고는 통치체 성원들 사이에서는, 수터 이외에는 거의 아는 바가 없었다. 레이는, 그가 세계 각국에서 순회강연을 할 때 한 번도 협회가 출판해 온 가르침과 모순되는 것 같은 강연을 했던 적은 없다는 것,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청중의 누군가가 녹음하거나 필기하거나 해서 어떠한 내용인가 알 수 있겠지만 그러한 증거는 있는지라고 수터에게 물었다. 대답은, 이것은 단순한 소문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었다. 결국, 교육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통치체의 일원이 강연에 즈음해 그리스도의 왕국이 기원 33년에 시작했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1914년 교리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청중 사이에 혼란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후의 회의에서 통치체는 향후의 강연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게 조심하자고 하는 것으로



이 문제는 일단락 된 것처럼 보였다. 이 합의에서는 개인적인 대화의 내용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것이 실은 그 후에 오는 모든 발언을 포함한 통제라는 것을 레이는 그 시점에서는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레이는 1976년 이후 해를 거듭해 높아지는 조직 지도부의 권위적 태도를 볼 때, 한층 더 진행된 통제의 수단이 취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레이와 몇 명의 본부에서 요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해질 것이라는 점을 희미하게 느끼고 있었다.

레이의 예감은 머지않아 적중했다. 레이에 대한 공격의 도화선을 지른 것은 통치체성원 로이드 배리였다. 그는 「파수대」지에 매호 실리는 기사를, 인쇄로 돌기 전에 최종 검열을 하는 역이었지만, 그는 다수의 기사의 원고에 레이만이 5명의 집필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승인하는 서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통치체 회의에서 문제 제기했다. 레이는 이것에 대해 자신은 양심에 비추어 이러한 기사를 승인은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레이는 이러한 기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은 투표로 기권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말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통치체의 의향에 따르지 않는 것이고 양심상의 이유로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면, 레이는 자신을 집필 위원으로부터 제외하고 서명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치체는 레이를 집필 위원의 직무로부터 제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레이의 마지막 말은, 협회 본부에서 그 후 일 년 가까이 걸쳐서 더욱 불어 닥친, 폭풍우의 예고를 느끼게 하는데 충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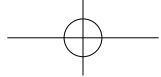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1980년 3월 4일, 레이는 통치체의 인사 위원회에 3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의 휴직 소원을 제출했다. 레이도 그의 아내도, 심신의 건강을 되찾는 데는 수개월의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건강진단을 받는 것과 동시에, 앨라배마 주 가즈텐의 마을에 있는 친구 피터 그레거슨을 방문해 통치체를 사직 후 어떤 일자리와 주거를 얻을 수 있을까를 알아 보려고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레이와 신시아가 앨라배마에 도착해 얼마 되지 않아 브루클린 본부에는 「조직에 대한 음모」라는 죄목으로 「숙청」의 폭풍우가 불어닥치게 되었다.

종교재판의 폭풍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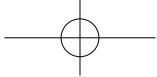
종교재판은 사람을 특정 신도의 신앙의 내용에 의해 재판하는 재판이다. 중세시대에는 고문, 폭력적 처벌이 항상 대부분이었지만, 이것들이 현재는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 권위주의, 교의적인 방식, 피고가 공정한 중재를 받을 권리의 배제는 현대의 종교재판에도 계승되고 있다. 워치타워 협회의 세계 본부에서 1980년에 전개된 일련의 사건은 현대 종교재판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레이가 휴직에 들어간 단 2주간의 사이에, 몇 명의 본부 직원에게 의혹을 걸칠 수 있어 조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 대상이 된 것은 길르앗 성서 학교의 교무 주임으로, [야고보서 주해]를 집필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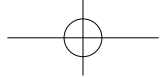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해박한 성서지식으로 잘 알려져 있던 에드워드 댄 램, 이전 스페인 지부 감독자로, 본부 봉사부에서는 전국의 스페인어 회중 전체를 지도한 적도 있는 루네 바스케스, 쿠바인으로 본부의 인쇄공장에서 일하는 크리스 산체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일의 발단은, 본부의 봉사부에 들어간 한 쿠바출신 증인으로부터의 밀고였다. 그것은 베텔 가족(본부 직원의 다른 명칭) 중에 조직의 가르침과는 다른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이 밀고자 훈베르트 고디네스는 봉사부와 사회자위원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장시간의 증언을 하여 그 내용이 테이프에 녹음되었다. 이 테이프에는 먼저 크리스 산체스가 크게 다루어졌고 그에 더해 루네 바스케스, 에드워드 댄 램, 그리고 레이의 이름이, 같은 동료로서 거론되었다. 그리고 그 청취의 한 중간에 고디네스는 루네 바스케스에게 전화해 직접적으로 그의 입으로부터 증거가 되는 것 같은 발언을 유도 하였다. 이 2시간 반에 걸친 고디네스의 증언 녹음은, 통치체의 회합에서 참가자 전원이 듣게 되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사법위원회가 설치되어 심문의 고리는 광범위하게 파급되게 되었다.

에드워드 댄 램은 두 명의 통치체성원인, 로이드 배리, 잭 바 두 명에 의해, 그의 조직에 대한 견해, 1914년 교리, 14만 4천명과 2계급 그리스도인의 교리 등에 대해서 심문을 받았다. 댄 램은 그에 대한 답으로서 통치체 구성원 사이에 성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 1914년, 14만 4천명의 교리에 관해서는 솔직하게, 통치체의 내부에도 이 가르침에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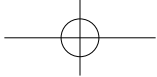
한편 같은 무렵 루네 바스케스, 크리스 산체스가 관여하고 있던 스페인어 번역부의 직원도 일제히 심문을 받게 된다. 이러한 심문은 개별적으로 행해져 각자가 같은 부문의 다른 인간이 사적으로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는지를, 꼬치꼬치 추궁 당했다.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한 심문을 통해 얻은 정보를 다음의 다른 사람에 대한 심문의 재료로서 사용하는, 범죄에 대한 조사방법이 사용되었다. 스페인어 번역부의 어떤 직원이 증언을 거부했을 때, 통치체성원으로 사법위원회의 한 명은 「당신이 증언 하지 않으면, 배교를 숨긴 죄로 당신도 제명된다.」라고 위협했다. 그러나 그 증인은 그가 들었던 것은 배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며 거부했다. 그러나, 이 사법위원의 위협대로, 그는 머지않아 제명처분 되었다.

당시 엘라배마에 있던 레이는, 이 사태의 급 전개를 에드워드 뎀 랩으로부터의 전화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았다. 레이는 통치체의 사회자로 사법위원회의 중심이 되고 있는 알버트 슈로더에게 엘라배마로부터 전화해 사태의 설명을 요구했다. 그 시점에서, 슈로더는 레이에게, 고디네스의 청문의 테이프, 에드워드 뎀 랩이나 레이의 이름이 「공모자」중에 오르고 있는 것, 그 죄상은 「배교」라고 하는 중대한 것임을, 모두 레이에게 알리지 않았다. 슈로더는 레이에게 「집필 부문의 운영이 잘 되어가지 않아서 출판 업무가 늦는 것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사실과는 반대되는 대답을 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 형제들 사이에 있어야 하는 솔직함과 정직함은 볼 수 없었다. 이것은, 통치체의 에드워드 뎀 랩에 대한 태도에서도 마찬가지



지로 동일했다. 그들은 댄 램을 심문했지만 무엇을 조사해 심리하고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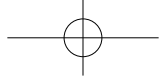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1980년 4월 25일, 레이가 앨라배마로 옮겨져 정확히 1개월이 지났을 때, 사법위원회는 대량의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 이 중에는 루네 바스케스 부부, 크리스 산체스 부부, 몇사람의 스페인어 번역부의 직원, 바스케스 부부가 소속된 회중의 장로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중에, 바스케스만이 상소를 인정받아 상소 위원회가 열렸지만, 그 중에 그에게는 조직의 교리 리스트를 들이대면서 이것에 전부 예스라고 말하는지 어떤지를 추궁당했다. 바스케스는 그 넘치는 냉혹한 처사에 쓰러져 울면서 그 이상의 대답은 할 수 없었다. 상소 위원회는 바스케스의 제명처분을 지지하여, 그의 처분은 결정됐다. 바스케스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상소는 즉시 기각되어 제명 처분은 본부 직원 전체에게 발표되었다. 이러한 제명된 사람들을 보건데, 그 성인으로서의 인생의 대부분을 JW으로서 개인적인 생활을 희생해가며, 조직을 위해서 바쳐 온 경건한 신자였지만,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심리의 결과, 수십 년간에 걸치는 조직에 대한 봉사도 허사가 되었다. 그들은 사적인 대화중에서 조직의 가르침에 대해 성서에 근거한 의문을 이야기하곤 했지만, 이것에 대해 사법 위원회는 모두 그 발단이 되는 가르침을 성서에 근거한 논의로 이 「배교자」들의 「잘못」을 가르치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 심리 위원은 이 「배교자」들의 심리에 대해 「우리는 당신의 성서적인 의문을 논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해 성서에 근거한 논의를 처음부터 회피했다. 사법 위원에게 있어서의 관심사는 성서의 말씀에 충실



한지 어떤지 보다는 조직과 그 가르침에 충실한지 아닌지에 관한 것이었다.

5월에 들어와, 종교재판의 손길은 마침내 레이에게 미친다. 5월 8일, 레이는 통치체의 사회자, 알버트 슈로더로부터 정식으로 본부로 돌아와 심문을 받도록 전화로 지시를 받았다. 이 시점에서 벌써 레이, 벌써 제명을 받거나 냉혹한 심문에 노출된 다수의 친구들로부터의 전화 연락에 의해, 일의 중대성과 자신에게 의혹이 파급되는 것을 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도, 통치체와 사법위원회는 레이에게, 지금까지의 경위를 모두 알리지 않았다. 본부에 있던 친구들은 레이에게, 이것은 「잔챙이」를 먼저 처분해 증거 굳히기를 하고 나서 레이나 에드워드 댄 랩과 같은 「거물」에게 조여가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5월 19일, 브루클린의 협회 본부로 돌아온 레이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인가 이해를 넘은 이상 사태를 겪은 본부 직원 친구들이었다. 그들은 심문의 내용과 방식을 「악몽」 「망상적」이라고 한 말로 표현해, 그것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태도가 아니고, 그들은 처음부터 위험한 적의 일부로서 다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심문 내용을 통해서 레이가 곧바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심문의 기본 태도가, 다른 견해를 가지는 사람은 그 만큼 하느님께 불충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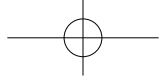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레이는 4월 28일에 통치체 사회자위원회의 이름으로 배포된 다음과 같은 메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잘못된 가르침이 퍼지고 있는 최근의 증거

아래에 나오는 것은 베텔에서 번지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 몇 가지이다. 이것들은 4월 14일 이후 외부로부터 통치체로 유입된 것이다.

1. 여호와와 오늘날 지상에 있어 조직을 갖고 있지 않다. 통치체는 여호와에 의해 지시를 받지 않았다.
2. 그리스도의 시대(기원 33년) 부터 마지막 때까지 침례를 받은 것은 모두, 하늘에서의 부활의 희망이 있다. 이러한 모든 사람은 기념식에서 표상물을 말아야 하는 것이며, 「기름부음 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으로 한정해서는 안된다.
3. 기름부음 받은 자로부터 완성되는 「충실하고 슬기로운 중」 반열의 사람들과 통치체가 여호와의 백성을 지시한다고 하는 정당한 근거는 없다.
4. 오늘날 「천적」 반열과 요한 10:16에서 「다른 양」 이라고 부르는 「지상」 반열, 의 두 개의 반열은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다.
5. 계시 7:4로 말할 수 있고 있는 14만 4천의 수는 상징적인 의미이며,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계시 7:9에서 말하고 있는 「큰 무리」도 또한 하늘에서 봉사를 드린다. 이것은 15절에서 그들이 「그분의 성전에서 주야로」 혹은 왕국행간역 에서는 「그분의 신성한 거주지에서」 봉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써 있다.
6. 우리는 지금 「마지막 날」의 특별한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날」은, 베드로가 사도 2:17에서 예언자 요엘을 인용해 말한 것처럼 1900여 년 전인 기원 33년에 벌써 시작되었다.
7. 1914년은 확립된 해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914년에 왕좌에 도착한 것은 아니고, 기원 33년 이래 왕국을 지배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임재 = 파루시아)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마태 24:30에 진술되어 있는 「사람의 아들의 표징이 하늘에 나타날」 장래에 일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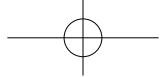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난다.

8. 아브라함, 다윗, 그 외의 옛 믿음이 있던 사람들도 히브리 11:16에 써 있는 대로 하늘에서 부활한다.

주의: 위에서 말한 성서의 견해는 어떤 사람들에게 의해 받아들여져 「새로운 이해」로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협회의 그리스도인 신앙의 기본적인 성서의 「골격」과 반하고 있다. (로마 2:30, 3:2)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여호와의 백성에 의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성서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건전한 말씀의 본」에도 반하고 있다. (디모데 둘째 1:13) 이러한 「변형적 가르침」은 잠언 24:21, 22에서 비난하고 있다. 따라서 위 내용은 「진리에서 벗어나,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교란하고 있다.」(디모데 둘째 2:18) 모두를 고려하면 이것은 배교이며, 회중적 조치로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신권 선교 학교 지침서 1977년 58페이지 참조.) 의장 위원회 4/28/80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논리는, 레이에 있어서는 이미 몇 번이나 들었던 것이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에 걸친 협회의 가르침을 먼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오랜 세월 믿어 왔다는 사실이 마치 그 올바름을 증명하는 것 같이, 이러한 인간의 전통적인 가르침이 하느님의 말씀보다 첫째로 중시된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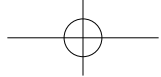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레이는 다음에 고디네스의 청문 테이프를 들었다. 그 중에 레이가 느낀 것은 세 명의 조사에 해당되는 통치체성원들의 이미 결론을 내린 것 같은 태도였다. 거기에는 용의자의 반론을 듣거나 증거 조



사하고를 하거나 하는 전부터 이미 이러한 「배교자」로서 평가를 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강한 비난으로 밀고를 해 온 고디네스 부부에게로의 칭찬은 포함되었지만 명확한 잘못이 드러나지 않은 동료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다음에 그가 들은 것은 제2의 밀고자 보네리의 증거청취 테이프였다. 이 내용은 전자의 테이프보다 더욱 심한 내용이었다. 보네리는 루네 바스케스, 크리스 산체스들이 새로운 분파를 만들어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거나 다른 집회를 열거나 침례를 주거나 하고 있다고 하는 자신이 목격한 적도 없는 것을 소문에 근거해 증언하고 있었다. 그가 증언한 것 중 반 이상은 근거가 없는 소문이거나 완전히 만들어낸 것으로 이루어졌다. 그의 증언의 나머지 절반은, 성서에 대한 개인적인 대화의 내용이었다. 성서를 개인적으로 논할 때 조직의 가르침과 완전하게 일치하고 있지 않는 한 그러한 대화는 금지된다고 하는 규칙을 만들지 않는 이상 이것으로 처벌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었다.

보네리의 이 소문에 근거한 고발은, 2차적인 소문을 만들어내 이후 본부 직원의 일부가 새로운 분파를 만들려고 했다는 소문이 본부 전체의 1500명 이상의 직원들 사이에 퍼져, 그것은 결국 전 세계 JW들 사이에서 소문으로서 확대되었다. 이 완전히 사실과 반대되는 소문을 퍼지도록 내버려두고 그 소문의 신빙성을 조사해서 근거가 없는 소문이 퍼지는 것을 멈추는 지도를 하지 않았던 것은 통치체였다. 그리고 용의자를 제명하는 일은 신속히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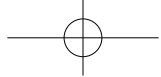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이 외 그 시점에서 증인사회에 세계적으로 퍼진 소문 중에는, 스페인어 번역부가 공모해서 스페인어판 출판물의 내용을 바꾸어 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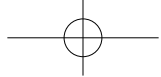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다는 것, 이러한 「배교자」들 사이에 동성애를 하고 있었다는 어느 쪽도 완전히 아무 근거도 없는 것이 있었다. 레이는 왜 이러한 터무니없는 소문이 전 세계 JW들 사이에 퍼지기가 쉬운 것인가를 생각했다. 정보가 통제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그에 대한 설명을 찾아, 그런 사태를 정합적으로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이러한 많은 성실한 증인들이, 갑자기 일제히 제명된다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일어났던 데다가, 정보 통제하의 증인들은 어떻게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각색해 합리화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 결과 조금이라도 타당한 것 같은 소문은 「진실」로서 받아들여지기가 쉬워지고 있었다. 거기에 대신하는 설명은, 그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믿는 「조직」 그 자체가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일반 JW들의 생각에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조직을 계속 지지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이유를 필사적으로 찾은 결과가, 이러한 소문이 퍼지는 결과가 되는 것이었다.

마지막 통치체 회의

5월 21일, 레이는 통치체의 전체 회의에 임했다. 17명 전원이 출석한 이 회의의 분위기는 정상이 아니었다. 엘라배마로부터 돌아와 2개월 만에 얼굴을 맞대는 통치체 성원들의 누구하나도 레이에게 친하게 말을 건네는 것은 없었다. 사회자 앨버트 슈로더는 먼저 레이에게 사회자 위원회가 배포한 8항목의 교리에 관해서, 각 항목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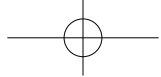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다 의견을 표명하도록 요구했다. 이 사회자의 위원회의 8항목의 작성법은 교의적이고, 이것을 받아들이든가, 받아들이지 않는가의 선택을 강요하는 것 같은 것이었다. 이것에 대해, 레이는 자신의 성서에 근거한 양심에 타협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이러한 항목에 관한 견해를 할 수 있는 한 조직의 가르침에 맞추는 형태로 말해 갔다. 예를 들면 제1항의 「여호와와 오늘날 지상에 있어 조직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물음에는, 레이는, 지상에 있어 조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조직을 여호와가 가지고 있을지가 문제이다. 중앙집권적인, 고도로 계층화한, 권위적인 조직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형제의 회중의 조직으로, 그 중에서의 권위는 형제를 도와 이끌어 섬기는 것이며, 결코 지배하는 것은 아닌, 그러한 조직은 아닌 것인지 그것이 문제였다. 따라서 레이의 답은 「나는 하느님이 지상에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는 믿지만, 그것은 하느님이 지상에 형제사랑을 실천하는 회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의미에 대해이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통치체가 여호와와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어떤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통치체가 성서의 말씀에 충실할 때에는 하느님의 인도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통치체가 하느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에는 하느님의 인도는 없다고 믿는다.」라고 대답했다. 레이의 답은 모든 항목에 관해서, 이와 같이 조건부의 유연성이 있는 것이었다. 만약 다른 배교의 죄로 고발된 사람의 누군가가 이 8항목과 같은 교의적인 견해를 말했다고 하면, 레이가 자신이 먼저 그에 대해 보다 유연한 견해를 갖도록 충고할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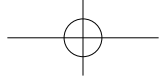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이것에 대해, 통치체 성원 중 여러 명은, 레이가 지금 말한 견해가 테이프 안에서 증언 된 레이의 견해로 여겨지는 것과 달라서 이 레이의 이야기에서는 문제점이 애매해지고 있다면서 좀 더 집요한 추궁을 했다. 레이는 이것에 대해, 타인이 그의 견해를 어떻게 해석할까에 책임을 가질 수 없다고 대답해 사도 바울조차 그 말을 오해 받은 것을 지적했다 (로마 3:8;베드로 둘째 3:15, 16). 그 외, 그리스도교국의 성서 주해서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한가,파수대지를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하는 증언은 사실인가, 레이가 기념식(봄마다에 행해지는 여호와의 증인이 실시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의식) 강연에서 「다른 양」과 관련하여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왜일까 등의 질문이 레이로 향해졌다. 「다른 양」은 두 반열의 증인 중 「그 외 여럿」의 반열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이것에 대해, 그의 숙부로 현 회장인 프레더릭 프랜즈도, 레이가 최초로 브루클린에 온 해의 기념식에서, 「다른 양」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만약 확인하고 싶으면 자신이 그 때에 써둔 노트가 남아 있기 때문에 증거로 제출해도 괜찮냐고 말했다. 일련의 질문의 뒤, 레이는 이번 사태에서 말해지고 있는 것 같은, 조직에 반대하는 교리적인 의견을 표명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유감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벌써 제명되어 있던 친구, 특히 루네 바스케스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가 과거 30년간 얼마나 충실한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조직에 대해서 헌신적인 봉사를 해 왔는지를 강조하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품에 지금도 경의와 신뢰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레이는 통치체의 이 심문이 끝나고 회의실을 나와 다음 통지까지



방에서 기다리라고 들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서, 수 시간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 점심식사 시간에 다른 통치체 성원이 안뜰을 걸어 식당으로 가는 모습을 창을 통해서 보고 있었지만, 레이는 식욕이 없어 사무실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그 오후부터 저녁에 걸쳐, 통치체로부터의 통지를 기다리는데 녹초가 된 레이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지만 더욱 더 속이 메스꺼워졌고, 피곤함에 잠 자리에 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밤에 슈로더 의장으로부터 통치체의 야간회합에 출석해 추가 질문에 답하도록 전화가 왔다. 그는 아내를 통해 자신은 병으로 속이 메스껍고 더 이상 심문은 받을 수 없다고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은 모두 말했으므로 이 후로는 자유롭게 결론을 내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 밤에 다만 한 명 통치체 성원인 라이먼 스윙글이 레이의 방을 방문해 상태를 보러 왔다. 레이는 스윙글에게 솔직하게 감사하면서 이 수 주간에 걸친 고된 과정들이 탈이 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 가장 괴로운 것은 성서의 말이 제2의 기준이 되고 인간이 만든 조직의 가르침이 제1의 기준으로서 사람을 재판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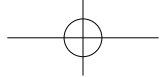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다음날 낮 레이는 다시 스윙글을 만날 기회가 있어 통치체의 결론이 어떠했는지를 물었다. 스윙글은 오후에 결론 통지가 올 것이라고 알린 후, 통치체의 여러 명은 레이의 제명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스윙글은 「저런 일을 말하다니 믿을 수 없어」라고 말하면서 울먹이기 시작했다. 그는 반대로 스윙글을 달래는 입장이 되어 이미 제명인지 아닌지는 그에게 있어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빨리 이 사건이 종결해 주었으면 할 뿐이라고 말했다. 레이는 이



때 라이먼 스윙글이 보여준 우정을 그 후 결코 잊지 않는다. 레이에 있어 그 후 스윙글이 레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레이는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버릴 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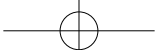
그 날 오후 통치체 의장 슈로더가 통치체의 결론을 레이의 방으로 가져왔다. 결론은 레이를 통치체로부터 사임시키고, 동시에 협회 본부의 봉사로부터도 사임시킨다고 하는 것이었다. 레이의 제명을 주장하는 의견은 3분의 2에 이르지 않았기에 제명 처분은 면했다. 여호와의 증인에게는 병약 특별 파이오니아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 병이나 노령에 봉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순회 감독자나 지구 감독자가, 선교 활동의 조건을 채우지 않아도, 협회로부터 매월 일정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기에 통치체는 레이에 관찮으면 신청하라고 했다. 그러나 레이는 조금이라도 의무가 수반하는 것 같은 경제 원조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여 그 제안을 고사했다. 슈로더는 마지막에 「성서 이해를 위한 보조서」는 실로 잘 할 수 있던 일이야라고 레이가 본부에서 맡았던 일 중에서 최대의 공헌을 칭찬한 후, 레이의 방을 떠났다. 그 날 레이는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해, 여기에 레이의 15년 간에 이르는 브루클린 본부에서의 일과 9년간에 이르는 통치체의 일은 마지막을 고하게 되었다.

이것과 거의 때를 같이 해서 에드워드 댄 랩의 사법위원회가 열려 단시간의 심리를 마친 후, 그의 제명 처분은 결정되었다. 레이는 후에 댄 랩으로부터, 그의 사법위원회의 내용을 들었다. 댄 랩이 사법위원의 질문에 대해 대답한 말은 솔직 명쾌했다. 예를 들어, 두 반



열의 교리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댄 랩은 로마 8:14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 하느님의 아들입니다。」를 인용하면서 이외에 어떠한 방법으로 읽는 것이 가능한지, 오히려 사법 위원에게 질문했다. 사법 위원은 이것에 대해 「당신은 심리 받고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댄 랩은 천부적인 성구의 기억을 발휘해 모든 질문에 성서의 성구를 사용해 대답한 후 진짜 문제는 형제들이 성서를 잘 공부하지 않고 협회의 출판물만을 공부하고 있는 것임니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번 심리의 이유의 하나로, 벌써 이번 사건으로 제명된 사람과 그가 식사를 함께 해 성서의 내용을 이야기로 주고 받았다는 사실이 거론되고 있었지만 댄 랩은 이것도 솔직하게 인정해 누구라도 그에게 성서에 관한 질문을 가져 사적으로 물어 오면, 그에 대해 대답해 주는 것이 그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그의 답변은 간단하게 제명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열쇠가 되었다. 왜냐하면 제명 처분을 받은 사람과 친하게 사귀는 것은, 그 만큼으로 제명 처분이 되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 사이의 기본적인 규칙이기 때문이었다.

깃곳은 일로, 심리위원 중에 한 명이 댄 랩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실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 위원은, 댄 랩이 자신은 제명 처분은 바라지 않는다고, 자신은 많은 형제들과의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은 친교를 단절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그에게 조직에 머물면서 기다리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그리고 「몰라, 5년 정도 기다려 봐, 지금 당신이 말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이 혹은 모두가 조직으로부터 출판될지도 몰라」라고 댄 랩에 대해서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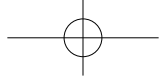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다. 이 사법위원은 조직의 가르침이 때와 함께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만약 조직의 가르침이 5년이 지나면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쩌서 이 눈앞의 인간이 충실한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않으면 「배교자」인가 의 판단도 5년간 기다릴 수 없는 것일까. 이 댄 랩이라고 하는 사람은, 벌써 조직 안에서 50년간이나 기다린 인간이 아닌가. 이러한 의문을 가지지 않고 한 사람의 형제를 간단하게 잘라 버릴 수 있다는 것은, 단지 조직의 무사평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 명의 신자의 일생은 그 때 그 때의 조직의 형편에 의해서, 일회용으로 되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논리가 있다는 것을, 레이는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에드워드 댄 랩은 72세에 제명 처분을 받아 협회 본부를 벗어나 태어난 고향 오클라호마 주로 돌아와 벽지 붙이는 일로 생계를 꾸릴 수 밖에 없었다. 댄 랩은 제명처분 통지를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1980년의 봄의 협회 본부의 폭풍우속에서 제명된 사람들의 공통의 기분을 나타내는 것일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결정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배교」 때문에 제명되었다는 말은 그만 두었으면 합니다. 배교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과 그리스도 예수에 반역하는 것으로 당신들이 본 것처럼 나는 그런 일은 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사상 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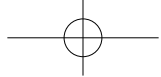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1980년 봄의 협회 본부를 불어 거칠어진 폭풍우 속에서, 레이는



마침내 사태의 근저에 있는 문제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게 되었다. 궁극적으로는, 성서의 말씀에 고착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조직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우선시켜, 하느님의 말씀을 조직의 가르침에 맞추는지의 선택이었다. 이것은 바야흐로, 에드워드 댄 랩이 마지막 말로 말한 것처럼, JW들이 사용하는 「배교」의 의미가 성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하느님과 그리스도에 반역하는 것」이란 의미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조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1980년 8월의 「왕국 봉사」(전도인들에게 배포되는 월간 전도 지시서)에는 다수의 배탈가족이 제명되었다는 것이 발표되어 거기에 계속해서 「조직에 대한 배교」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었다. 여기에 나온 「배교」라는 말의 사용법은 증인들의 「배교」라고 하는 말의 이해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1980년 9월 1일에는 전국의 순회 감독자, 지역 감독자등의 모든 여행하는 감독자에 대해서, 「배교자」에 대한 대처방법을 상세하게 지시한 편지가 배포되었다.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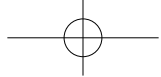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제명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배교자가 배교적인 견해를 선전하는 사람일 필요는 반드시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1980년 8월 1일의 「파수대」 지 17면 제 2항(한국어는 80년 12월 호 18면 2항)에 기록되어 있듯이, “배교”라는 단어가 유래한 희랍어는 “물리섬”, “떨어져 나감, 이탈”, “반항, 포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떤 침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을 통해 주어진 여호와의 가르침을 포기해 성서에 근거한 충고에도 불구하고



고 다른 가르침을 계속 믿는다면 그 사람은 배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재조정하는 장시간의 친절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장시간의 재조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교적인 생각을 계속 믿어 「종 반열」을 통해 주어지는 것을 계속 거부한다면 엄중한 사법 조치가 취하여져야 합니다.”

이 편지는 레이의 이해를 명쾌하게 증명하고 있다. 즉 제명 처분이 되려면, 이미 성서에 반대하는지 어떤지가 문제가 아니고, 유일한 기준은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에 의해 주어진 여호와와 가르침」에 동의하는가 하지 않는가의 여부였다. 이것은 마치, 임금님(즉 하느님)에게 충실한지 어떤지를 조사하는데, 임금님이 쓴 메시지(즉 성서)에 충실한지의 여부가 임금님에 대한 충실함의 증거인 것이 아니라, 임금님의 종인 메신저(즉 워치타워 협회)가 전하는, 임금님이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따르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배교라는 죄는, 다만 단지 조직과 다른 것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해 굳이 그 다른 견해를 선전하지 않아도 다만 개인적으로 믿는 것만으로 사법상의 조치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사상 통제」의 가장 좋은 예가 아닐까라고 레이는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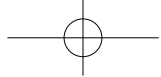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이 사상 통제에 근거한 제명 처분은, 그 후에 많은 심리 위원회의 결정을 지배하는 것이 되어 갔다. 개개인으로 보면 헌신적이고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인, 이러한 증인이 왜, 이러한 조직의 맹목적인 포로가 되어 버리는 것일까. 레이는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그 근



저에 있는 것이 JW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교묘하게 심어진 「조직」에 대한 이미지라는 사실을 찾아냈다. 이 「조직」의 이미지는, JW의 독특한 사고 과정에 의해, 독립된 절대적인 권위로서 JW의 마음속을 지배하는 것이다. 이 「조직」의 이미지는, 하나의 추상적이고 관념적 존재로서 현실의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의 존재로부터 동떨어진 절대적 권위로서 성서보다 상위에 군림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여호와의 증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실한 개인으로서 하느님과 그리스도와 성서만을 사용하여 사물을 판단해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와 동포인 인류에 대한 봉사의 마음을 가진다면 이러한 개인을 압살하는 강대한 조직이 지배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레이는 느끼게 되었다.

폭풍우의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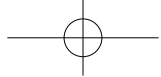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1980년 여름, 레이와 아내 신시아는 정들었던 뉴욕 브루클린 본부를 뒤로하고, 앨라배마주 북부의 가즈덴이라는 마을로 이사했다. 협회가 전별 금품으로서 레이에게 지급한 1만 달러에다, 빚낸 5천 달러를 보태, 그는 조립 주택을 구입하여, 친구인 피터 그레거슨의 부지에서 살게 되었다. 그레거슨은 앨라배마, 조지아주에 몇 개의 가게를 가지고 슈퍼마켓 체인점을 경영하는 2대째 충실한 JW이었다. 레이 부부는 이스라엘의 여행을 함께 한 것을 계기로 그레거슨 부부와의 수년간의 우정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레거슨은 레이에게, 그의 주거 부지와 그 부지의 손질을 하는 정원수 일자리를 주었



다. 그레거슨 자신은, 그 당시 스스로 독립적인 성서 연구의 필요성을 통감해 실행하고 있었다. 그는 이윽고 성서를 연구하면 할수록, 조직의 가르침이 성서와는 어긋난다는 점에 눈을 뜨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마침내 장로 직분을 스스로 그만두고 있었다. 그는 레이에게 「나는 사람들 앞에 서서, 자신이 성서가 증명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연구하는 사회자가 될 수는 없어」 라고 장로를 그만둘 때의 심경을 말하고 있다.

레이는 그레거슨의 소유지의 잔디 깎기, 잡초 제거, 식목의 초목 손질 등의 일을 했다. 별이나 등에게 물리기도 하는 한 여름 혹서 아래에서의 연일의 육체노동은, 레이가 지금까지의 59년간의 인생 중에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 확실히 육체의 아픔이었지만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완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 레이 부부는 그 와중에서도 매일 아침 부부 사이의 성서 연구를 빠뜨리지 않았다. 레이는 그 당시 부부가 함께 계속 읽은 시편이 그의 다친 마음을 달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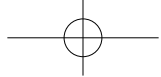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한편, 레이는 동쪽 가즈덴 회중의 일원으로서 여호와의 증인으로서의 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따뜻한 환영을 받았고 집회와 야외 봉사에 참가했다. 그리고 2개월 후에는 장로로서의 추천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 추천은 브루클린 본부의 승인을 얻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왕국 봉사지[#]에 레이의 통치체 사임소식과 그 즈음에 제명된 사람들의 기사가 다루어진 것이 최근의 일이라는 것



이었다. 「파수대」 지에 나타난 혐회의 제명자에 대한 새로운 강경 노선 때문인지 이 지방회중에서조차 레이에 대한 태도들이 변화되어 갔다. 여호와와 증인들 가운데서 당시의 분위기는 일종의 반동 체제와도 비슷했다. 각 회중 안에서 의혹과 공포가 지배해 「배교자 사냥」의 분위기가 만연되고 있었다. 이것은 당시 「파수대」 지를 읽으면 분명하게 통치체가 JW의 사회 안에 자아내려고 했던 분위기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레이 자신도 자신이 회중적인 활동 안에서, 더욱 더 이질적인 존재가 되어간다는 느낌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집회에서 전달되는 많은 내용 중에 성서가 오용되어 조직의 자화자찬과 자기중심적인 말이 발표되는 것을 계속 듣는 것은 레이에게는 고통이 되어 갔다. 레이는 자신이 왕국 회관의 「손님」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집회에서 해설할 때에도 될 수 있는 한 성서로부터 인용하여 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그런데도 그를 대하는 동료증인들의 분위기에서 험악한 조짐을 지닌 「배교자 사냥」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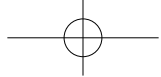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레이가 엘라배마로 이사하여 6개월이 지났을 무렵, JW의 사회에서는 「마녀 재판」과 닮은 반동의 분위기가 더욱 더 높아지고 있었다. 1980년의 9월에는, 앞서 소개한, 새로운 배교의 정의, 즉 조직의 가르침과 다른 것을 믿는 것만으로도 배교가 된다고 하는 지시와 함



게 JW들 가운데 배교자 찾기의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 시기와 일치하게 동쪽 가즈텐을 관할하는 순회 감독자로 보다 강경한 방침을 지지하는 사람인 벤나가 임명되었다. 이 새로운 순회 감독자 벤나는 동쪽 가즈텐 회중의 방문에 즈음하여 먼저 피터 그레거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레거슨이 「파수대」지의 기사에 공공연하게 반론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회중의 안팎에서 돌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벤나의 추궁이 쉽게 끝나지 않는 것을 안 그레거슨은 사법위원회에 의해 조사를 받아 제명되는 것보다 스스로 이탈 신고해 조직을 탈퇴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레거슨의 가족 전원과 그의 사업상 고용인중 몇십명이 증인이었다. 그가 제명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다수의 가족과 고용자에게 많은 폐를 끼치게 된다는 것을 그레거슨은 잘 알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자발적인 이탈을 한 사람은 제명 처분을 받은 사람과 같은 엄격한 처우를 받지 않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1981년 3월, 피터 그레거슨은 회중에게 사퇴를 신고해 이것은 큰 문제도 없게 받아들여졌다. 그 시점에서는 그레거슨은 그대로 가즈텐의 마을에서 그때까지와 같이 사회 활동이나, 가족, 친구, 고용인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 상황은 1981년 9월 15일 20페이지 「파수대」지(영문) (한국어판 「파수대」 1981년 11월 15일 14페이지 「제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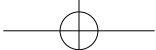
[#] JW종교는 고침 5장 11절을 확대 적용하여 제명된 자와는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가르친다. 따라서 직장에 제명된 자가 있다면 아무리 사무적 대화만 하면 된다는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기 싫어 직장을 떠나는 일이 생기게 된다. 자칫 잘못하면 제명자와 사적인 대화를 했다는 의심을 받게 되어 사법 처분의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분-어떻게 볼 것인가?)」의 기사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 제명자에 게도 어느 정도의 온정적인 취급을 하는 것을 인정했던 지금까지의 1970년대의 태도로부터 극단적인 강경 노선으로 방침 전환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 「파수대」 기사에서는 제명자에 대해 철저하게 기피하도록 가르침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탈퇴한 사람도 제명자와 똑같이 취급한다고 하는 가르침이 처음으로 내세워졌다. 이 기사가 발표되는 것과 거의 때를 같이 해 레이에 대한 조사가 동쪽 가즈텐 회중의 장로에 의해 개시되었다. 그 「죄」는 레이가 자발적으로 탈퇴했었던 피터 그레거슨과 스테이크 레스토랑에서 회식을 했다고 하는 것이었다. 피터 그레거슨의 남동생인 지방 장로 댄 그레거슨이 목격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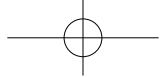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처음에 레이에 대한 조사는 바로 이 사람 댄 그레거슨에 의해 행해졌다. 또 한사람의 장로와 둘이서 레이의 집을 방문한 댄은 먼저, 고린도 둘째 13:7-9를 읽으며, 그가 레이의 생각에 「조정」을 더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했다. 댄은 레이가 피터 그레거슨과 스테이크 레스토랑에서 회식했던 것은, 9월 15일호 「파수대」 기사에 비추어볼 때, 단절된 사람에 대한 그의 생각을 「조정」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레이는 피터 그레거슨은 그의 지주이며 고용주

[#] 증인들의 사법 처분에는 연대책임과 연좌제가 작용한다. 즉 다른 증인의 범법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좌시하면 그 목격자도 사법 처리를 받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증인 동료간의 고발과 친족 심지어 직계가족간의 고발도 적지 않다. 그러한 고발이 범죄자를 회개하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기에 형제사랑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출판물의 기사들이 다수 있다.



라고 말했다. 덧붙여 레이는 댄에게 탈퇴한 사람을 것처럼 엄격하게 취급하는 성경적 근거를 물었다. 댄은 고린도 첫째 5:11이 그 성경적 근거라고 했다. 레이는 그에 대해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스러운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나 더는 사귀지 말고,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레이는 이것에 해당되는 사람과 교제했던 적도 없고, 피터 그레거슨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에 대해서 댄은, 이번에는 요한 첫째 2:19를 채택해서, 이성구가 근거라고 말했다. 거기에는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우리의 부류에 들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의 부류에 들었다면, 우리와 함께 머물렀을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었다. 레이는 이 요한의 편지의 전후 문맥을 본다면, 요한이 문제 삼고 있는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이며, 레이는 한번도 「적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와 하느님께 반역한 사람을 사귀었던 적이 없으며, 피터 그레거슨은 그러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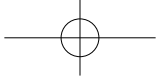
이후의 조사는 오로지 레이가 조직의 가르침에 얼마나 충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맞춰졌다. 레이는 조직의 가르침이 분명히 성서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 가르침에는 따르지만 성서의 근거가 확실치 않은 가르침, 예를 들면 이 탈퇴한 사람에 대한 처우의 방법과 같은 가르침의 경우에는 때와 경우에 따라서 복종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댄은 그 다음에 하느님의 가르침에 겸허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레이에게 설득했다. 레이는 이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겸허



함은 먼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해 모본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레이는 다음과 같은 비유적인 이야기로 그것을 나타냈다. 어떤 사람이 몇 개의 의견을 말한 것에 대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의견에 많은 부분 동의하지만 몇 가지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가진다고 했을 경우 그 다른 사람을 그의 의견에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 방으로부터 나가라고 명한다면 그 태도는 겸허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레이는 되물었다. 댄의 명확한 답은 없었고 그렇게 제 1 차 조사는 종료됐다.

제2차 조사는 순회 감독자 벤나와 함께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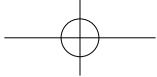
이 새로운 순회 감독자는 성격이 급한 편이어서 레이의 발언을 자주 중간 차단해 말하는 사람이었다. 레이는 이 조사받는 도중에 로마 14장을 다루어 사도 바울이 믿음에 근거한 양심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하느님의 승인을 얻고 있는 것에 대해 의심을 가지는 것은 죄이며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 (로마 14:23) 성서에는 「악한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자와 의로운 자를 악하다고 선언하는 자-그 둘은 모두 여호와께 가증하다」라고 써 있다 (잠언 17:15). 그래서 악한 인간이 아닌 피터 그레거슨을 악한 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은 이 성서 원칙에 근거해볼 때 자신의 양심상 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피터 그레거슨에 관해 레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으로는 그가 악한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레이는 말했다. 벤나는 이것에 대해, 레이가 자신의 양심에 근거해 행동한다면, 회중의 장로들도 스스로의 양심에 근거해 레이에 대해서 조치를 취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거기에는 양심에 근거한 「조치」는 있어도 양심에 근거한 관용은 없었다. 그 조치란 통치체가 결정하여 가장 최근호 「파수대」 지에 게재한 이탈한 사람과의 교제 금지의 규정인 것은 분명했다.

1981년 11월 1일, 레이에 대한 사법위원회가 회중내에 정식으로 설치되어 레이의 처분이 심리 받게 되었다. 11월 5일, 레이는 통치체에 직접 편지를 써서 「피터 그레거슨은 그의 주인이며 고용주이다. 60세에 이른 자신에게 있어서 그레거슨과 관계를 끊고 새로운 주거와 일자리를 찾는 것은 곤란하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그레거슨의 초대를 받아서 그와 회식을 했다는 것이 「파수대」 지 9월 15일 호의 기사에서 밝혀진 이탈자를 기피 하는 새로운 가르침에 따라 제명의 사유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레이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해 보다 유연한 처분이 내려져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요지의 질문을 보냈다. 그러나 사법위원회는, 이 편지에 대한 통치체로부터의 대답을 기다리는 일 없이 심리를 개시하는 것을 레이에게 통고해 왔다.

3명의 사법위원회 장로의 이름으로 쓰여진 이 통고의 편지는 마치 재판소예의 출두명령과 같이 차가운 사무적인 편지였다. 거기에는, 여호와와 의 증인으로서 온 생애를 바쳐 통치체 성원까지 맡은 조직의 형제에 대해서 그리고 노령에 곤란한 생활 처지에 놓여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 있는 배려의 자세는 전혀 볼 수 없었다. 비록 레이가 정말로 실수를 범했다고 해도 거기에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의 실수를 걱정해 사랑을 가지고 이끌려고 하는 자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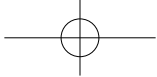


완전히 없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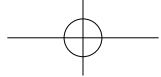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레이는 이 통고에 대해, 11월 21일로 설정된 제1차 사법위원회는, 다른 주로부터 오는 손님 때문에 연기하고 싶다고 신청했다. 이 일자는 연기되었지만, 위원회는 11월 25일을 최종 기한으로 해 만약 그 날에 출두할 수 없으면 궐석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레이에게 통고했다. 레이는 그의 지금까지의 통치체에서의 경험으로부터 이 성급하게 「판단을 서두르는」 자세가 실은 회중 장로회의 결단이 아니고, 순회 감독자가 본부의 통치체와 밀접하게 연락을 취하면서 결정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 레이는 11월 25일의 위원회에 출석하기로 했다.

피터 그레거슨의 또 한 사람의 남동생으로, 장로이지만 사법위원회에는 참가하고 있지 않는 톰 그레거슨은 레이에게 시종일관 동정적이었다. 톰은 레이의 사법위원회에 동석해 레이의 변호를 할 수 있도록 신청해 두었다. 11월 25일 저녁, 레이와 톰은 이미 3명의 사법위원이 기다리는 왕국 회관에 출두했다. 심리 위원들은 톰의 동석은 인정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톰은 그레거슨 집안 사업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어 레이는 그 고용인 중에 혼자서 왔으니까 심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반론했지만, 이것도 인정받지 않았다. 레이는 결국 변호를 하는 사람도 없이 세 명 위원의 심문을 혼자서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법위원회는 먼저 증인에 대한 심문부터 시작하였다. 최초로 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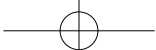
그레거슨이 증언 했다. 그는 레이가 피터 그레거슨과 웨스턴 스테이크 하우스 레스토랑에서 양쪽 모두 자신의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레이는 이것에 대해 그 일자를 물었다. 댄은 이것은 여름으로 9월 15일의 「파수대」의 기사가 출판되기 전인 것을 인정했다. 레이는 위원회가 이 기사를 과거에 거슬러 올라가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믿지 않는 이상 댄의 증언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제2의 증인은 로버트 데일리라고 하는 회중 장로의 부인이었다. 데일리 부인도 역시 레이 부부가 피터 그레거슨 부부와 같은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회식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 했지만, 이 일자는 9월 15일의 「파수대」 지 발행의 후에 있었다. 레이는 이 사실은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러나 레이는 반대로 데일리 부부도 피터 그레거슨과 식사를 같이 한 사실을 지적했다. 피터가 있는 날, 모리슨 카페테리아에 식사하러 가 열에 줄섰을 때, 우연히 그는 데일리 부부의 곧 뒤로 줄섰던 것이었다. 데일리는 실은 피터 그레거슨의 아버지가 죽은 후 피터의 어머니와 재혼한 적이 있기에, 과거에 피터 그레거슨의 의붓아버지에 해당되고 있었다. 그런 관계 때문에, 피터와 데일리 부부는 그 카페테리아에서 테이블을 같이 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데일리 부인은 이 회식이 9월 15일 이후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데일리 부인은 당황했지만 곧바로 이것을 벌써 다른 자매에게 보고를 하였고 자신이 했던 것은 실수이며 두 번 다시 같은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자기변호에 급급했다. 그러나 레이는 나중에 피터 그레거슨으로부터 그 후에도 데일리 부부와 같은 카페테리아에서 테이블을 함께 했던 적이 있다는 것, 게다가 그것은 데일리 부부가 피터를 불러 낸 경우였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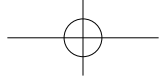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이 증인 심문이 끝난 후, 심리 위원장 테오티스 프렌치는 레이의 「파수대」 지 9월 15일호의 기사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레이는 11월 5일에 통치체에 질문장을 보내고 있어 그 반응을 기다리고 싶다고 말했지만 프렌치는 「파수대」 지만이 우리의 필요로 하는 권위라고 말했다. 레이는 만약 통치체가 직접적으로 이 건에 관해서 지시해 주면 보다 더 확실하지 않은지 물었다. 이것에 대해 프렌치는 처음으로 사법위원회가 브루클린 본부와 밀접하게 연락을 하면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피고」에 해당되는 레이에게 이러한 중요한 심리의 경과가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레이에게 있어서 놀라움은 아니었다. 벌써 브루클린 본부에서의 전년의 대규모 제명처분의 폭풍우속에서도, 피의자의 알 권리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었던 것을, 레이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심리 위원장 프렌치는, 본부는 이 9월 15일의 기사에 굳이 덧붙일 것은 없다고 말했다고 레이에게 알렸다. 다른 성원들도 모두 「파수대」 지가 가르치는 것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것에 대해, 레이는 성서에 근거한 논의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새로운 「파수대」 지의 가르침에 대한 성서적 근거를 요구했다. 레이는 성서가 자신의 유일한 지침이라고 말했다.

사법위원 존슨은 고린도 첫째 5장의 몇 개의 마디를 읽어냈지만, 그 읽는 법에는 망설임을 숨길 수 없었고, 곧바로 그는 읽는 것을 그만두어 버렸다. 그는 그 성구와 이 그레거슨과의 회식사건과의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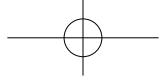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성을 논할 수 없었다. 레이는 한 사람 한사람의 위원에게, 피터 그레거슨이 이 고린도 첫째 5장에 써 있는 것 같은 인간이며, 요한 첫째에 써 있는 「적그리스도」에 해당되는 인간이라고 믿는지 어떤지를 물었다. 프렌치 위원장은 이 레이의 질문에 대해 흥분하는 기색이 되어 반론해 왔다. 그는 사법위원은 이 그레거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레이에게 말했다. 레이는 그러면 사법위원도 판단을 내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레이가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어, 그 판단에 의해 그가 평가받는 것은 어떤 의미냐고 물었다. 프렌치는 「프랜즈 형제, 당신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레이는 이에 대해, 그는 사법위원을 가르치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 전체가 재판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변호할 권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레이가 피터 그레거슨이라고 하는 사람과 식사를 했다는 죄를 재판하러 하고 있는데, 어떤 성원도 피터 그레거슨이 성서적인 견해로 볼 때 어떠한 인간인지를 명확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일주일 후 레이의 제명 처분의 통지가 도착하였다. 그에게는 일주일 간의 상소 기간이 인정되었다. 레이는 상소의 긴 편지를 썼다. 그것은 레이가 상소에 의해 이 처분의 결정을 뒤집을 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성서에 근거한 그가 믿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이것이 그 편지의 목적이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부터, 어떠한 사법위원회도 이런 케이스에 대해 성서에 근거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레이는 알고 있었었다. 레이는 그 편지 중(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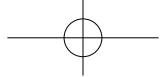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아마 피터 그레거슨과 식사를 했던 것에 대해, 제가 회개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여러분들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회개하기 전에 나는 먼저 자신이 했던 것이 하느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확신은 영감을 받고 틀림없이 신뢰를 둘 수 있는 하느님의 말씀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디모데 둘째 3:16, 17) 나의 성서에 대한 이해로는, 하느님과 그 말씀에 대한 충성은 최고의 것이며 다른 모든 일에 대한 충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사도 4:19, 20; 5:29). 그리고 나도, 어떤 사람도, 그리고 어떤 인간의 그룹도, 하느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덧붙여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하는 것은 「거짓말쟁이」라고 불러 재앙이 더해지게 된다는 것을 나는 성서를 통해 이해하고 있습니다. (잠언 30:5, 6; 계시 22:18, 19) 나는 그러한 성서의 경고를 경시할 수 없습니다. 성서의 타인을 재판하는 일에 대한 모든 경고를 고려하면, 나는 자신을 (혹은 어떠한 인간도, 인간의 그룹도) 입법자로 하는 것에 온전한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한 판단은 하느님의 말씀에만 맡겨야 하는 것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그러한 판단을 하려면 먼저 내가 단지 인간이 만들어낸 기준에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기준은, 하느님의 기준과 같이 보이지만 실은 영감을 받지 않았고 하느님의 말씀에 의해 지지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표명하신 말씀에 의해 심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제멋대로인 추측과 오만함으로 판



단을 내리는 죄를 범하고 싶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마 14:4, 10-12; 야고보 4:11, 12; 「야고보서 주해」 161-168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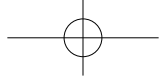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만약 여러분이 성서로부터, 피터 그레거슨과 식사를 했던 것이 죄라는 것을 제시하여 보여줄 수 있다면, 나는 겸허하게 하느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곳, 나의 심문에 해당된 분들은, 이 성서에 기초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위에 말한 잡지로부터의 인용만을 「권위」(심리 위원장이 사용한 말)로서 내세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회중내의 권위는 모두 하느님의 말씀으로부터 유래해, 하느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기초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해합니다. 잠언 17:15에는 「악한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자와 의로운 자를 악하다고 선언하는 자-그 둘은 모두 여호와께 가증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꺼리시는 일을 할 계획이 전혀 없으며, 따라서 이 일을 매우 염려하고 있습니다.

레이가 이 상소의 편지를 제출한 7일 후, 상소 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프렌치를 통해 전해 들었다. 3명의 위원이 순회 감독자에 의해 새롭게 선택되었지만, 이 3명의 장로는 모두 피터 그레거슨을 잘 호의적이 아닌 사람들로만 이루어졌다. 한 명은 이전의 사법위원회에서 젊은 JW의 문제가 심리되었을 때에, 그 지나친 방식 때문에 피터 그레거슨에 의해 비판받은 사람이며, 다른 두 명은, 그 아들이 그레거슨의 딸과 이혼한지 얼마 안 된 가족의 사람들이었다. 레이에 있어 이 상소 위원의 인선은 그와 피터 그레거슨에 대한 불리한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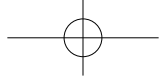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정을 의도한 것으로 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었다, 그가 공정한 재판을 받게 될 리가 없었다. 그는 즉시 위원 전원의 교체를 청원 했다. 상소 위원회는 12월 28일로 설정되었다.

이전에 레이가 통치체 앞으로 보낸 11월 5일자 편지에 대한 뉴욕 본부의 답장은 오지 않았다. 레이는 그 후 2회 더 편지를 써서 회답을 청원 했다. 그러나 브루클린본부의 통치체와 봉사 위원회는 그에 대한 사법위원회와는 밀접한 연락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레이가 3회에 걸쳐 보낸 「파수대」 9월 15일호 기사에 관해 질문한 편지는 철저히 무시했다. 통치체는 회답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질문의 편지를 무시한다는 것을 레이도 알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원칙에 굳건하게 고착하고 있다고 선전하는 조직의 지도부가 하는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자기 자신에게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협회 지도부의 본성을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었다. 이 시점에서 그는 더 이상의 상소를 하는 것이 쓸데없다는 것을 알고서 상소를 취하할 결의를 했다. 그는 원래 상소에 의해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분위기로부터 봐서 장로회와 본부 통치체는 그를 제명하는 굳건한 결의한 가운데 온갖 그에게 있어 불리한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그를 제명에 몰아넣으려 하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아마 이 피터 그레거슨과 식사한 죄가 제명처분하는데 충분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언젠가 다른 사건을 채택해서 레이의 제명을 실행할 것은 시간 문제였다.



상소위원의 교체에 의해 혹시 상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것을 염려한 프렌치는 다른 JW에게 전화를 걸어서 레이가 조직을 비판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을 누군가 들은 기억이 없는가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레이는 이것을 다른 JW 중 프렌치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부인으로부터 알게 되었다. 어디에도 레이의 죄를 목격했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을 때에, 죄의 구실을 만들어내기 위한 재료를 사람들의 기억 중에서 파헤쳐 찾아다니는 이런 태도는 이미 상식을 넘고 있었고 레이는 더 이상 이러한 부조리한 취급을 참을 수 없었다.

상소를 취하하는 편지내용 중에서, 레이는 갈라디아 6:17의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종의 낙인을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인용해 자신의 심경을 말하고 있다. 그는 상소를 취하하는 것이 자신의 죄를 인정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제명처분이 정당하여 성서에 근거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한 후에 고린도 첫째 4:3, 4에 있는 사도 바울이 한 다음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나에게는 여러분에 의해서나 인간 법정에서 의해서 판단 받는 것이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거스르는 것을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것으로 의롭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여호와입니다.」 그는 이 일련의 경험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름에 대한 그의 신뢰는 더욱 더 강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동료인 많은 증인들과의 결별에 즈음하여, 레이의 선의의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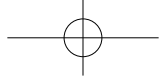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과 하느님의 소원은 여호와의 증인 편에 있는 것, 1938년 이래 그는 전력을 다해 여호와의 증인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쳐 온 것, 만약 그의 이런 재판흐름이 계속되는 것이 정말로 JW의 형제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뻐해 계속하고 싶다는 것으로 로마 9:1-3 「나는 내 형제들, 곧 육체를 따라 된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에게서 갈라져도 좋습니다。」를 인용하면서 이 편지를 맺고 있다.

1981년 12월 31일, 레이몬드 프랜즈의 제명 처분은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 이 일자는 기이하게도 그의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삶이 정확히 43년째 되는 날이었다. 그는 1939년 1월 1일에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공식적 죄명은, 조직을 탈퇴한 사람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는 단지 그 일 뿐이었다.

파문

레이의 제명 처분은 1982년 세계 각지의 매스컴에 화제가 되어 JW 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특히 「타임」 잡지는 1982년 2월 22일호로 「박해하의 증인 - 숨겨진 종말주의 분파의 전직지도자 제명」라고 제목을 붙인 기사에서 레이의 제명에 이르는 경과를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 지도자의 입장에서부터 보면 레이몬드나 그 외의 비판 분자를 치는 것은 분명하게 필요했었다. 이러한 비판 분자는, 이 종교의 정통인 성서 해석보다 루터와 같이 「오직 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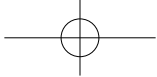


에 중점을 두므로, 종교의 토대에 있어서는 위험인 것이다. 그 외에 많은 위치타워의 중심이 되는 교리도 위험에 처해지고 있었다.

이 기사에서는 더욱이, 레이 이외에 많은 탈퇴자, 제명자의 처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이전 여호와의 증인들은 차례차례로 항의 운동이나 출판 운동, 소송등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비판자들은 과거 10년 동안에 약 백 만명의 여호와의 증인이 조직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한다. JW조직은 그런데도 쉽지는 전파활동에 의해 신자의 증가를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성공도 지속되지 않을지도 모르다. 그들은 1975년의 종말 예언을 철회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런데도 종말은 1914년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세대가 살아 있는 동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노인의 수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현재, 여호와의 증인은 스스로 부당한 절대적인 마감을 앞에 두고 더욱 더 곤란한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Time 2/22/1982, p66)

이 「타임」 잡지 기사는 레이를 직접 취재해 쓴 것이었지만, 그 반향은 세계적으로 퍼져 레이 앞으로 답장을 끝까지 쓸 수 없을 정도의 다수의 편지가 쇄도했다. 대부분은 위치타워 때문에 괴로움을 받은 이전 여호와의 증인이나 가족으로부터의 격려의 소식이었다.

그러나 그 한편에서는 위치타워 협회의 홍보 담당자를 취재한 기사에서 완전히 다른 일이 말해지고 있었다. 1983년 6월 25일의 시카고 트리뷴 잡지는 위치타워의 홍보 담당자 새뮤얼 하드의 말로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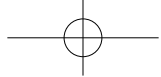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이러한 불미스런 상태는, 비교적 소수의 불만을 가지는 이전 JW에 의해 완성할 수 있던 것으로 이러한 불만분자는 성서에 등을 돌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경찰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그 의견만으로 사람을 억압하는 것 등은 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신문도 워치타워 캐나다 지부의 홍보 담당자 월터 그라함을 취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만약 우리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싫으면 그 사람이 스스로 그만두는 것은 자유롭습니다. 책망을 당하거나 터무니없이 신체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골치를 썩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라함 씨는 이에 덧붙여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지방 회중에서 장로 위원회에 의해 합리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우리는 본부의 지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직은 매우 개방적이며 실제로 다양한 개성이 용서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

레이는 이러한 기사에서 워치타워 조직의 홍보담당이 정직하게 내정을 외부에 알리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때에 즈음해서, 그는 자신의 지금까지의 체험을 한권의 책으로 정리해 출판할 것을 결심한다. 그 중 한 가지 이유는, 매스컴의 반향의 결과 레이 앞으로 쇄도한 편지의 압도적인 대부분이 레이가 제명에 이르게 된 정확한 경위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정확한 정보가 없는 가운데 JW 측으로부터 레이의 의도에 관한 아무 근거도 없는 중상과 소문이 퍼져서 레이가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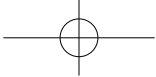


이러한 소문은 레이뿐만 아니라 많은 하느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해서 조직을 떨어진 사람들을, 자신을 높이기 위한 야심과 교만에 빠진 사람이라든지,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한 사람이라고 하는, 냉혹한 상표와 함께 전 세계 여호와의 증인들 사이에 퍼질 수 있었다. 그러한 악의로 가득 찬 소문과 증상의 그늘에는 혹시 이러한 제명자들은 성서 말씀에 대한 충실과 진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가능성조차 생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일부 제명자의 악행이 자동적으로 모든 제명자의 상표가 되는 것이었다. 더욱이 온 세상의 여호와의 증인들 사이에 퍼뜨릴 수 있었던 악의로 가득 찬 증상에는, 스와핑(부부교환), 동성애자, 위선자, 자신의 컬트 종교를 시작하려 하고 있다는 등 완전히 생각할 수도 없는 소문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졌다. 노령의 제명자에게는 「노쇠해져 판단력을 잃었다」라고 하는 소문도 퍼지고 있었다.[#]

「양심의 위기」라고 제목을 붙인 이 책의 제1판은 1983년에 출판되었다. 레이는 이 책을 쓴 의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여기에 나타난 것은 어떤 종류의 「폭로」를 의도한 것은 아니

[#] 실제로 JW조직의 많은 지방회중에서는 이탈하였거나 제명된 사람에 대해 마녀사냥식의 험담과 증상을 퍼뜨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방회중의 사법처분은 내밀스럽게 진행된다고 하지만 사법위원의 가족을 통해 퍼지는 재판에 대한 이야기는 증폭되고 왜곡되는 경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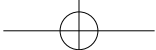


다. 확실히 여기에 써져 있는 것은 나에게 있어선 충격적이었지만, 그것이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건은 실로 기본적이면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내어 예시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쓰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극단적인 「조직에 대한 충성」이, 그것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것이라도, 얼마나 선한 의도로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어떻게 불친절과 부정 그리고 잔혹한 행위와 결정으로 향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1992년 제2판에 이어 현재 7개 국어로 번역되어 온 세상의 여호와의 증인 관계자들에게 필독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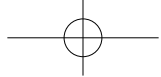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여호와의 증인에게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증인으로

레이는 제명 후에도 피터 그레거슨의 고용인으로서 그 부지에 계속 살고 그레거슨의 슈퍼마켓의 사업을 도왔다. 그리고 1985년 새 주택을 건축할 계획을 세우던 때, 「양심의 위기」를 읽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만난 적도 없는 모르는 부인이 생각지 못한 고액의 기부를 그에게 제공해 주었다. 이 자금과 정월일로 모은 적금 그리고 아내의 친척으로부터의 빚을 더해, 1986년 조지아주 아틀랜타의 서쪽 교외에 있는 웨스턴에 작은 집을 신축할 수 있었다. 전 여호와의 증인으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전면적으로 건축분야를 지원해 주었다. 1986년 이래 레이는 피터 그레거슨의 슈퍼마켓을 퇴직



해 사회 보장 연금과 출판물의 판매수익으로 아내와 생계를 꾸리고 있다. 그의 연 수입은 항상 주가 정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이다. 그런데도 그는 그만큼 생활이 곤란하지는 않다고 말한다. 한 가지는 그가 절약을 하는 것에 훈련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세계 사람들의 따뜻한 지원이 있다는 것이다. 그의 최근의 일상은, 거의 출판에 대한 일과 편지 쓰는 일, 전화에 응대하는 일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편지와 전화 수는 항상 레이가 감당해낼 수 있는 수를 넘고 있어 답장을 쓰는 일이 늘 늦어지고 있어 마음 아파하고 있다. 비교적 넓은 부지를 가진 그의 집을 날마다 손질하는 일도 74세의 레이에 있어서는 상당한 큰 일이지만 다행히 그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편이라고 한다. 아이를 갖지 않았던 레이 부부는, 대신에 애견 무체드를 친 아들과 같이 귀여워하고 있다. 무체드를 데리고 하는 산책은 그에게는 중요한 매일의 운동이 되어 있다. 그리고 거의 매주마다 미국 내에서는 물론 세계 각지로부터의 방문자가 끊이지를 않는다. 이러한 방문자를 접대하는 것도 레이 부부의 큰 일과이다.

1991년, 레이는 「양심의 위기」의 속편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찾아서」를 출판했다. 이 책에서 그는 「양심의 위기」와는 달리 성서에 관한 그의 신앙을 깊게 논하고 있다. 그의 출판물은 「코멘터리 프레스」의 이름으로 출판되어 현재 레이의 이러한 2권의 책 이외에도 약10권의 관련된 서적을 통신판매하고 있다. 1996년부터는 「이방인의 때 재고」책의 재판 발행을 위해 그 스스로 컴퓨터 출판 프로그램을 제작하였고 인쇄제작에도 관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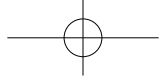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제명 후에 그의 그리스도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은 이전보다 더욱 더 강한 것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두 번 다시 「조직」에 속할 계획은 없다는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하고 있다. 레이는 어떤 그리스도교의 종파에도 속하지 않고 일반 그리스도교의 교회에도 다니지 않았다. 그것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그는 거의 평생 계속해 온 아내와의 매일 아침의 가정 성서 연구와 전 세계로부터 찾아오는 방문자나 근처에 사는 사람들과의 가정 성서 연구를 빠뜨리지 않는다. 그는 이것이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 회중의 모습이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많은 그리스도교 교파를 비판하는 태도는 전혀 없으며 교리 논쟁에 참가할 계획도 없다. 그런 그의 신앙에 대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찾아서」에서 상세하게 논하고 있다.

레이의 아주 최근 심경은 다음 글에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는 만약 워치타워가 내부 개혁을 실시했을 경우 다시 그 종교로 돌아갈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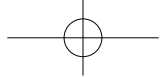


2010년 사망 전의 레이몬드.



[위치타워의 조직으로 돌아갈 의향이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 같은 근본적인 조치를 그들 JW 종교가 취할 가능성은 절대 없으며, 비록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저는 두번 다시 하나의 종교 조직의 일부가 될 생각이 없습니다. 이 조직의 기초가 되는 교의의 중대한 결함 때문에 어떤 조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외관상의 것일 것이며 기초 자체는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력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행해져 온 그리고 조직에 의해 배양된 정신은 매우 불건전한 것이며, 그 정신이 사람들의 주의를 그리스도와 성령으로부터 딴 데로 돌려서, 그 결과 신자의 관심이 인간의 가르침을 우선시하여 영적으로 후퇴하여 왔습니다. 본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할 권리와 특전을 하나의 인간조직이 가로챈 것은 위치타워가 범한 가장 중대한 잘못이지요. 그에 더해 또 다른 잘못은 하느님과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관계의 신실한 감각을 개인 신자로부터 강탈해 순전히 인간의 산물인 무수한 규칙과 규정을 부과한 결과, 개인 양심의 올바른 행사를 침해했던 것입니다. 이 사태는 마태 15:9에 기록된 것 같은 1세기 당시 바리새인들의 경우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증인종교의 사람들이 그 조직으로서의 존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 근본적 개혁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형제사랑 그 자체이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중앙의 집행부에 종속되는 체제화 된 사회가 아닙니다.]



(위 답변의 원문)

私がものみの塔の組織に戻る気持ちがあるかという問いに対しては、あなたの言っているような抜本的な処置を彼らがとるなどという可能性は先ずあり得ないことですし、たとえそのようなことがあったとしても、私は再び一つの宗教組織の一部になる積もりはありません。この組織の基礎となる教義に重大な欠陥があり、うわべだけの取り繕いでこの基礎は決して変えられないでしょう。強力に、また継続的に行われてきた、組織の強調によって培われてきた精神は、非常に不健全なものであり、その精神が人々の注意を神の一人子と神の聖霊からそらし、その結果信者の関心は人間の教えに主眼がおかれ、彼らは霊的に退化してきたのです。本来神の一人子にのみ帰せられる権利と特典を、一つの人間の組織に横取りさせたことが、恐らく彼らの犯した最も重大な誤りでしょう。もう一つの誤りは、神とキリストとの個人的関係の真の感覚を個人の信者から奪い取り、純粹に人間のものである無数の規則、規定を課する結果、個人の良心の正しい行使を侵害したことが上げられます。この事態はマタイ15:9に記されたような、一世紀当時のパリサイ人のものと酷似した状況を生み出しているのです。彼らがその組織としての存在をあきらめない限り、その抜本の変革はありえないでしょう。キリスト教は兄弟愛であり、そうでなければならぬのであって、中央の執行部に従属する体制化された社会ではないのです。